Buddhanews.com

현대불교

제832호 2011년 4월 20일 수요일 (음력 3월 18일 · 불기 2555년 · 주간)

어두움은 밝음으로 푼다
어리석음은 지혜로 푼다

-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불교 브랜드는 불자 손에 달려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등에 전략적 마케팅 도입 시급

이명박 대통령이 4월 8일 제4차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회의에서 "사찰, 서원과 같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일이 한국의 이미지를 신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 발언이 화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불교를 종교로 보기 보다는 2000년 동안 한민족의 삶에 녹아든 전통의 한 단면으로 느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 외에도 사회경쟁이 심화되고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전통문화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불교문화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휴)가 3월 29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불교 및 스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응답자의 67.7%)은 불교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의 조사 결과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10명 중 3명(응답자의 33%)이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을 성장동력으로 꼽았다는 점이다. 불교문화와 민족전통으로 생각하는 사회인식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교명상 등 수행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열기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참선, 절 수행 등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해 참선 수행을 도입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불교수행을 배우고 익히는 수행단체들도 크게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전국적으로 10여 곳의 사찰음식 전문점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전문 사찰음식점은 채식 열풍에 편승해 해마다 10%가 넘는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를 소개한 책과 잡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불교전통문화를 가미한 축제들도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세계유일의 '등축제'인 연등축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발돋움했다. 불교전통문화와 민속문화가 접목된 연등축제는 지난해 외국인을 포함, 총 30만명이 참가하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고즈넉한 산사에서 펼쳐지는 산사음악회는 문화소외지역에 놓여 있던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매년 전국적으로 300여개 사찰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불교전통문화들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불교의 대중화도 상대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상품은 모방하기 쉬우나 그 콘텐츠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소비자의 신뢰까지 모방하지는 못한다. 그런 면에서 1700년 이상의 신뢰를 쌓아 온 불교 문화 콘텐츠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실추된 불교 이미지는 회복하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이 걸린다. 불교문화 콘텐트의 개발과 유지, 그 수요는 각 사찰이나 종단에서 긴 시간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

한 스님은 불교계에는 문화콘텐츠화 할 것들이 많다. 전문적인 마케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 만큼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문화 · 포교 또한 보다 수월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7면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이 연등과 장엄 등 제작 등 본격적인 봉축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사진은 4월 14일 안양 한마음선원 청년회원이 제등행렬에 동참할 보현등에 채색을 하고 있는 모습. 박재완 기자

인환·정관·암도·근일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선출



인환 스님



정관 스님



암도 스님



근일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에 인환 · 정관 · 암도 · 근일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4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37차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신임 원로의원 인환 스님(81)은 1953년 효선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53년과 1956년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조계종 법계위원,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을 맡고 있다.

정관 스님(79)은 1954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54년과 1957년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영주암 회주, 사단법인 불국토 대표이사이다.

암도 스님(73)은 1955년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5년과 1964년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양사 주지와 총무원 부원장, 포교원장, 교육원장, 중앙승가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근일 스님(72)은 1961년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1년과 1967년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고운사 조실로 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교육불사 뜻 모은다

27일, '교육불사 후원의 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4월 27일 저녁 6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육불사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후원의 밤'은 '교육불사'의 중요성을 사부대중이 모두 공감하고 이를 종단적으로 확산시켜 교육불사가 성공적으로 회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수덕사 방장 스님의 격려사, 총무원장스님의 인사말, 교육기금 전달과 가수 이은미 · 장사익 님의 음성공양 등이 진행된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교육불사 후원의 밤'을 통해 모아진 격려와 성원은 승가교육불사를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전국은 지금, 봉축 열기로 뜨겁다

봉축위, 4월 11일~5월 10일 봉축기간 선포

불기255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을 주제로 4월 11~5월 10일 전국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4월 11일~5월 10일을 봉축기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중 지역 · 단체 · 사찰별 장엄등 제작과 제등행렬 · 연등축제 · 봉축법요 등을 개최한다.

서울 지역에서는 4월 11일 전국병원불자연합회가 각 병원 병실을 방문해 연꽃등을 나눠준 것을 비롯해, 19일 한국불교꽃예술전 등이 개막돼 부처님오신 뜻을 봉축했다.

이어 22일 장애인 군부대 견학(해군), 23일 찬불율동제 어린이 연꽃노래잔치(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공연장, 오후 1시)와 불교 108울트라 마라톤대회(조계사), 24일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정진기도(조계사), 25일 연등장엄전(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6일 시청앞 장엄등 점등(오후7시)과 청계천 등전시회 등이 열린다.

봉축위원회는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등축제, 전통의 멋과 흥이 넘치는 전통문화축제, 신명나고 역동적인 참여축제,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축제를 목표로 올해 연등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차주상보)

조동섭 기자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해야"

5대 종교인 658명,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 촉구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종교인의 성명서 가 발표됐다.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4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입장에서 식량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성명서에 서명한 종교인은 658명으로 불교 117명, 가톨릭 217명, 개신교 136명 천도교 106명, 원불교 82명 등이다.

종교인들은 성명서에서 "민간단체들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천진영기자

1주일간 봉축 특별법석 열어

봉은사 4월 25~30일 10시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4월 25~30일 오전 10시 법왕루에서 큰스님 초청 봉축특별법회를 봉행한다.

행사에는 △25일 암도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 △26일 청화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 △종범 스님(前 중앙승가대 총장) △도영 스님(완주 송광사 회주) △성우 스님(BTN 회장) △혜총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이 법문한다. (02)3218-4800~4 조동섭 기자

832호 CONTENTS

▶12~13 특집
간화선과 위빠사나



▶16~17 여성지도자를 만나다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



▶19 현장속으로
한국·대만 불교문화교류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장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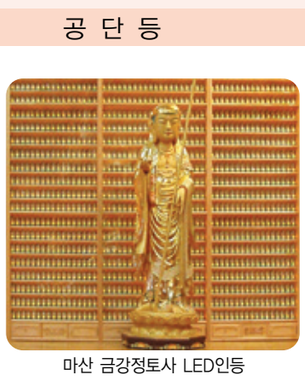
팔각접등



만월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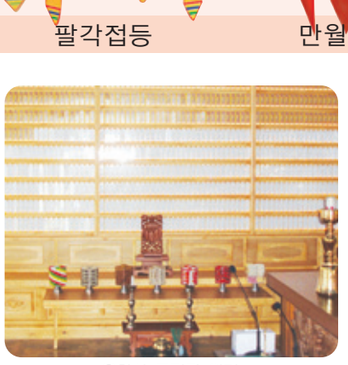
종등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大



小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불교기록 집대성 추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계획 발표

불교원전과 사상서, 사찰역사, 전통의례 등 불교기록유산이 하나로 집대성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4월 11일 한국의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세기 통합대장경 아카이브 구축' 등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대장경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불교학술원 산하 동국역경원 ·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진행해온 한글대장경 개역 · 전산화사업과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 조선불교사기 편찬사업 등을 토대로 불교기록문화유산을 집대성하는 사업이다.

불교학술원이 집대성할 불교기록문화유산에는 고려대장경을 비롯해 한국불교전서 등 불교원전과 사기(私記) · 언해 · 문집 등 사상문화서, 사지(寺誌) 등 사찰역사, 의식 · 의례 등 전통의례, 구술 · 구전자료 등이 포함된다.

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2012~2016년)에는 고려대장경 · 한국불교전서 등 불교원전 기록유산을 역주와 국내외 한국불교 관련 자료 등 불교기록유산을 집성한다. 웹 서비스 및 스마트미디어 앱 개발 등도 진행된다. 2단계(2017~2021년)에는 1단계 사업에 더해 사상문화 중심의 불교기록유산 역주와 문화콘텐츠 개발에 착수하며, 3단계(2022~2026년)에는 1 · 2단계 사업을 토대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완료한다. 3단계에 걸친 사업기간 동안 한국불교 문헌에 대한 영역화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학술원장 인환 스님은 "동국대가 한국불교학 만큼은 세계 중심이 되자는 취지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기획했다. 한국 불교학의 중심에 걸맞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불교학술원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외에도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불교학 진흥 연구인력 양성 △한국불교학 진흥기금 모연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환 스님은 "산하기관인 종학연구소, 불교문화연구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동국역경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한국학으로서 한국불교학 확립'을 모토로 HK(인문한국)사업 등 신규프로젝트 수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금강대 위상 강화

정원 확대 지역교양 나서

정병조 금강대 신임총장은 4월 13일 인사동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용불교학과 신설 등 학제를 개편하고 재학생 정원을 늘려 불교종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강대는 2개 학부 4개 전공 체제로 학생정원은 400명 수준이다. 정병조 신임총장은 2012년 개교 10주년을 앞두고 응용불교학과와 회계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1200명 규모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재정충원에 대해 정병조 신임총장은 "학교발전 기금 모연과 함께 그동안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전액 무료로 운영하던 기조를 바꿔 기숙사비는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강대는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금강불교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복지시설 및 불교박물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김영국 칼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바라보며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사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은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단의 총본산인 총무원청사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건물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권력과 종교와의 밀착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이 건물을 조성하는 일에 관여한 스님은 당시 권력의 실세로부터 국고보조를 받기로 약속 했지만 불교단체의 사무실을 건축하는 일에 국고보조를 받을 명분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박물관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일을 성사시켰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다.

한국불교의 총본산 사무실 건축에 국민 세금을 편법으로 지원 받은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불교의 현실인 것이다. '자성과 쇄신'을 주장하는 지금의 총무원장스님 말씀대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불교신자들의 시주금을 모아 건립을 했다면 총무원을 드나드는 2000만 불교신도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번 조계종 총무원 인사에 대해 일부 불교언론이 새로 임명된 스님이 정관계에 두터운 인맥을 쌓고 있다는 보도 때문이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세간을 떠난 출가자가 세속의 정관계 인사들과 교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세속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일식집에서 만나 비싼 음식을 먹고, 폭탄주나 마시며 개인이나 특정계파의 이익이나 챙기는 로비를 하는 일에 정관계 인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계종이 강조하는 '전통문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 요구'는 결코 이러한 로비에 의해 달라지지 않는다.

출가수행자들이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속의 정관계 인사들과 어울려 출가수행 자체가 권력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면 전통문화뿐만이 아니라 불교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고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포교연구실장에

법 상 스님 임명



새 포교연구실장으로 법상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4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실에서 법상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은 1980년 덕명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19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범어사승가대학과 동국대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기 구리시에 있는 관음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이나은 기자

한중일 불교우호대회

11월 1~3일 낙산사서

제1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11월 1~3일 강원도 낙산사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4월 12일 AW컨벤션 센터에서 제1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교류위원회의를 열고 한중일불교우호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불교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 앞서 9월초에는 한 · 중 수행체험교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삼국대표단은 일본 지진피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노덕현 기자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체제로

상임대표 선출 않아, 회원 의무 강화



불교환경연대(공동대표 보선 등)가 상임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공동대표 체제로 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불교환경연대는 4월 13일 서울 템플스테이센터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열고 공동대표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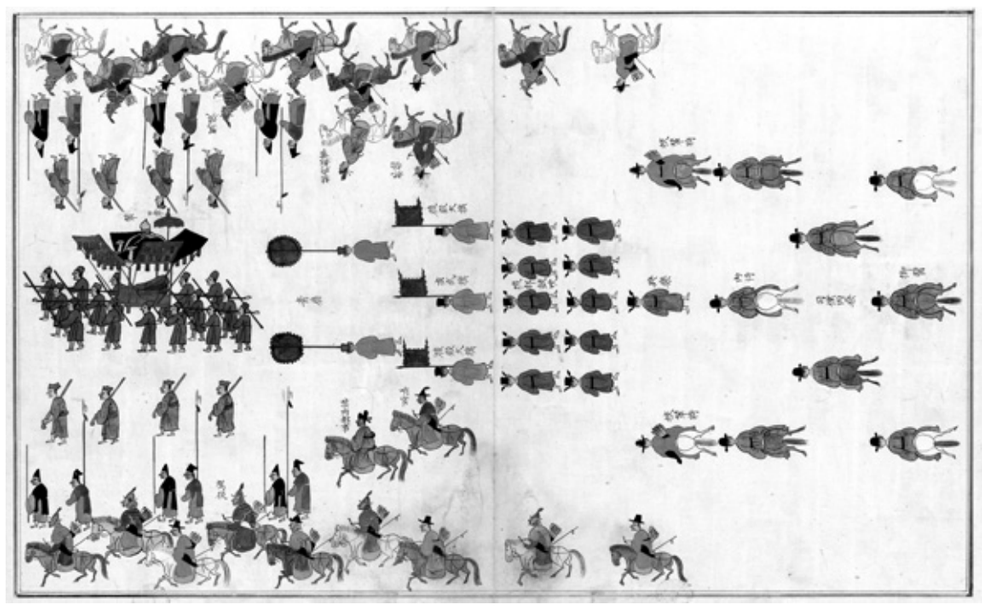
불교환경연대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종회의장 보선 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을 비롯해 백련암 감원 원택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여주 신륵사 주지 세영 스님, 현고 스님, 혜자 스님, 진원 스님의 8명으로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공동대표 의장은 보선 스님이 맡아 대외 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이밖에 기존 사무국의 역할을 집행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집행위원장에는 비상대책위원장에 있던 전 조계종 환경위원장 주경 스님(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임했으며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각 지부 대표 6명을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임효정 전 집행위원과 최은영 전 사무처장을 집행위원으로 선출했다.

또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이도흠 한양대 교수 등 6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이전 사무국의 연구활동 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2011년 정기총회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규약 변경을 통해 정회원의 자격을 명문화 시킨 것이다. 불교환경연대는 규약에서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약정한 회비를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납부한 자, 본 단체의 임원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의무를 부여한 점이다.

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운하개발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살리기 운동 전개 △생태 · 환경 교육 및 실천활동 전개 △조직 재무구조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환수기구 설치 검토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5일 외규장각 도서 환수에 기여한 관계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이번 환수를 계기로 해외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14일 한국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도서 중 가례도감 의궤 하권 중 도상.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두 번 속지 않겠다”

조계종, 낙단보 유역에 CCTV 설치·직원 파견 등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낙단보 유역 공사 강행에 대한 조계종은 4월 13일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에는 조계종의 시정 요구를 문화재청이 즉각 수용했지만 불교계에서는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4월 13일 문화부장 효탄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미등 스님과 문화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문화재청 측에서는 최광식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엄승용 문화재정책국 국장, 김창준 문화재보존국 국장이 배석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병두 종무관이 함께했다.

이 날 항의방문은 양측 관계자만 참석한 채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계종은 이 자리에서 낙단보 공사 강행에 대한 항의와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사전 통보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비교적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마무리 됐으며 낙단보 유역에서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순수한 옹벽 공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광식 문화재청장과 조계종은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을 맞아 문화재청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측은 올해 문화재청도 개청 50주년인 만큼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 문화재청 개청 50년’의 틀에서 다양한 사업을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국민들이 석굴암의 가치를 한층 편리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올해 석굴암을 3D 정밀 입체 영상으로 제작·보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종단이 낙단보 유역 공사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제2 마애불 발굴을 우선하라는 요구에 대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유감표명과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전폭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이미 양측의 협의를 한 번 파기한 전례가 있는 문화재청의 태도를 무조건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더구나 이번 기회에 4대강 공사 구간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면 재조사 등 강력한 사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법응 스님은 “문화재청이 유감 표명을 했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전문가와 종단이 참여하는 지표조사와 4대강 공사구간의 문화재 전면 재조사 등 종단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문화부도 문화재청의 이례적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화부는 항의 방문 이후 낙단보 유역에 2명의 실무자들을 파견해 교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낙단보 인근 제16교구본사 고운사와 매일 마애불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혜국 스님도 함께 모니터링에 참여한다.

문화부는 14일 책임자급 실무진이 낙단보에 직접 내려가 현장 확인 후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CCTV를 설치, 문화부 사무실에서 낙단보 마애불 인근의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심주완 문화부 팀장은 “문화재청의 이번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화부에서는 또 다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미니인터뷰

“문화재청의 진정성을 보이겠습니다”

문화재정책국 엄 승 용 국장



“불교계의 유감 표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의 항의 방문에 대해 엄승용 문화재정책국 국장은 사전에 불교계에 미리 통보하지 못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엄승용 국장은 또 이번 공사는 순수한 옹벽 공사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의 주장처럼 4대강 공사 등 개발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제2 마애불 발굴도 문화재청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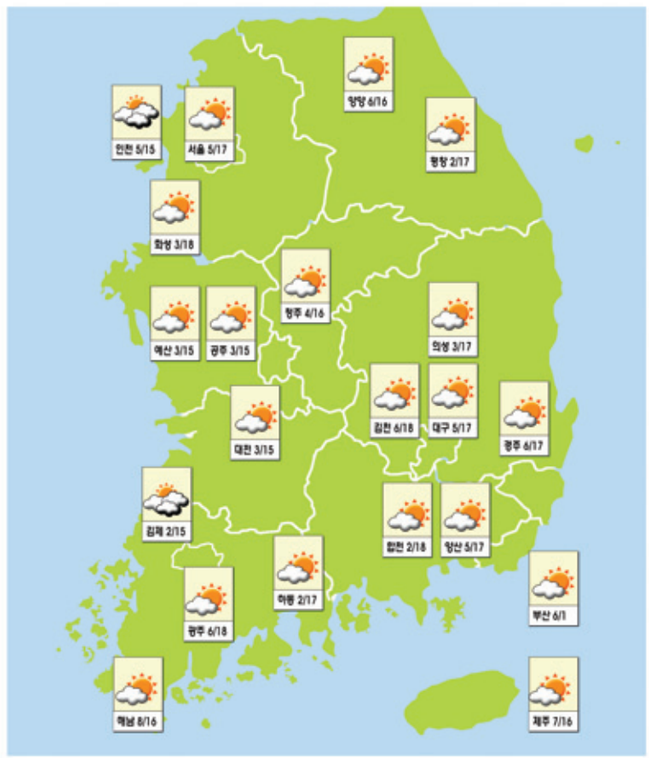
엄승용 국장은 “추가 발굴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공사는 잠정 중단할 것입니다. 불교계와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로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이주의날씨

4월 넷째 주(4월 20~26일)

구름 많이 끼고 흐림…한 때 비소식



주요 7개지역 날씨

지역	22일(금요일)	23일(토요일)	24일(일요일)	25일(월요일)	26일(화요일)
서울	구름조금 6/19	흐리고비 11/15	흐린후갬 11/16	맑음 8/21	구름많음 9/21
부산	구름조금 7/18	흐리고비 12/17	흐린후갬13/18	맑음 11/19	흐리고비 13/18
대구	구름조금 7/20	흐리고비 13/19	흐린후갬 14/20	맑음 10/23	흐리고비 13/18
대전	구름조금 4/20	흐리고비 11/18	흐린후갬 13/19	맑음 9/21	구름많음 8/22
광주	구름조금 7/21	흐리고비 12/18	흐린후갬 14/19	맑음 11/20	흐리고비 13/18
강릉	구름조금 6/19	흐리고비 11/15	흐린후갬 11/16	맑음 8/21	구름많음 9/21
제주	구름조금 10/20	흐리고비 13/17	흐린후갬 14/18	맑음 12/19	흐리고비 14/17

25개 교구사별 (해뜸/해짐)

지 역	20일(수요일)
조계사	05:52/19:06
용주사	05:53/19:12
신흥사	05:44/19:06
월정사	05:46/19:05
법주사	05:51/19:08
마곡사	05:51/19:08
수덕사	05:55/19:11
직지사	05:49/19:05
동화사	05:47/19:03
은해사	05:48/19:02
고운사	05:46/19:03
불국사	05:45/19:00
해인사	05:50/19:04
쌍계사	05:50/19:04
통도사	05:47/19:00
범어사	05:47/19:00
금산사	05:55/19:10
선운사	05:55/19:10
백양사	05:55/19:08
화엄사	05:53/19:06
송광사	05:53/19:06
대흥사	05:57/19:09
관음사	05:59/19:08
봉선사	05:53/19:12

25개 교구사별 날씨(℃)

지 역	21일(목요일)
조계사	구름조금 6/19
용주사	구름조금 5/21
신흥사	구름조금 8/20
월정사	구름조금 2/19
법주사	구름조금 4/20
마곡사	구름조금 3/17
수덕사	구름조금 3/17
직지사	구름조금 6/19
동화사	구름조금 6/19
은해사	구름조금 6/19
고운사	구름조금 5/18
불국사	구름조금 6/18
해인사	구름조금 3/18
쌍계사	구름조금 3/18
통도사	구름조금 6/18
범어사	구름조금 7/18
금산사	구름조금 2/16
선운사	구름조금 2/16
백양사	구름조금 7/20
화엄사	구름조금 7/20
송광사	구름조금 7/20
대흥사	구름조금 9/18
관음사	구름조금 10/20
봉선사	구름조금 2/20

25개 교구사별 강수량(%)

지 역	20일(수요일)
조계사	0
용주사	0
신흥사	10
월정사	0
법주사	0
마곡사	0
수덕사	0
직지사	0
동화사	0
은해사	0
고운사	0
불국사	0
해인	0
쌍계사	0
통도사	0
범어사	0
금산사	0
선운사	0
백양사	0
화엄사	0
송광사	0
대흥사	0
관음사	0
봉선사	0

자료제공=케이웨더 www.kweather.co.kr (02)360-2200

문화유산지구 케이블카 노선 금지해야

불교계, 국립공원위 노선 논의에 수행환경 훼손 우려

국립공원위원회가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노선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불교계가 사찰 경관을 훼손을 우려하고 나섰다.

‘불교와 정책’(대표 영공)은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문화유산지구에 케이블카가 개설될 경우 사찰 위로 관람객들이 승차한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이 경우 사찰의 경관과 수행도량으로서의 기능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불교와 정책’ 운영위원 법응 스님은 “케이블카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역사 및 문화유산에 대한 훼손이다. 또한 국립공원 내 신설된 문화유산 지구 훼손과 국토 파괴 행위로 국립공원 설치 목적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불교와 정책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불허하고, 사찰 등 역사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종단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도 선로회피 지역에 문화유산지구를 추가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이미 케이블카 설치지역에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 정류장 및 지주 설치지점 회피항목에 문화재·전통사찰의 보존가치 및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포함, 실시설계 및 공사시 종교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공사시간 조정 및 보호대책 강구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 요구들은 지난 해 12월 ‘자연공원 삭도(케이블카)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원안 또는 수정 반영됐다.

사회부 관계자는 “선로회피지역에 문화유산지구가 추가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사찰 수행환경 보호 위해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중광사, 국책 공사로 사찰 곳곳 균열

조계종 제7교구 수덕사 말사인 중광사 신도들이 국책 공사로 법회 활동의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이 공사는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서 공주시 반포면을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 1-3구간 건설 사업이다.

중광사 신도들과 스님들은 공사 기간 중 계속된 발파로 인해 식수가 고갈되고 사찰 곳곳에 균열과 바닥이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피해를 우려해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시행 중이며 균열된 곳을 보수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은 양곤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건립, 식수부족 공동우물 파기, 신뿌출가의식, 불자어린이 학용품 지원 등으로 전달되며 봉사단 현지 방문에 맞춰 후원물품도 직접 전달됩니다. 담당자 안내를 받으신 후 후원금 입금과 후원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봉사단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후원금 입금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로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 지 순 례

마하연 투어 여행 상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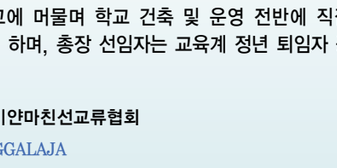
미 얀 마
■ 출발일 : 6월 8일, 6월 21일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1,690,000원
■ 출발일 : 5월 18일, 5월 27일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590,000원
■ 양곤 | 바간 5일 1,090,000원
* 모두 포함된 일정, 추가요금 없습니다.
* 확정된 날짜 이외에도 출발 가능합니다.

중국 · 티벳
■ 5월, 6월 출발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 항주 5일
1,090,000원
– 관음도량
구화산 | 보타산 | 황산 6일
1,14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하늘열차 티벳 8일

태국 · 캄보디아
■ 출발일 : 5월 18, 19, 22, 24, 29, 31일
방콕 | 파타야 5일 599,000원
특전 : 초특급리조트, 태국특식 3회, 다양한 관광
■ 출발일 : 5월 20,21,24,28일
씨엠립(앙코르왓) 특급 5일 499,000원
특전 : 특급호텔, 곤돌라투어, 특식
* 유류세 및 각종 팁 불포함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LEADER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 빙 안 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 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 사 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일 주 문



조계사 성인 단기출가자 모집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4월 24일까지 부처님오신날 맞이 성인 단기출가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02)720-1390



월정사 탄허대종사 휘호 대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5월 25일 월정사 경내에서 제7회 탄허대종사 선서함양 전국휘호대회를 개최한다.



마곡사 단기출가학교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5월 21일 마곡사에서 단기출가학교를 개강한다.



수덕사 신행단체 통합법회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4월 17일 충청지역 신행단체 통합법회를 수덕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제26회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 대회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4월 24일 경주 불국사에서 제26회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송광사 삼월불사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4월 28일 송광사 승보전에서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대흥사 제17회 나라사랑 글쓰기 사생대회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4월 28일 대흥사에서 제 17회 나라사랑 글쓰기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황룡사 백옥대불 점안대법회
천태종 황룡사 주지 덕해 스님은 4월 18일 남북평화통일기원 백옥대불 점안 대법회를 황룡사 야외 동산에서 봉행했다.



무심사 낙동강 수륙재
대구 무심사 주지 무심 스님은 4월 24일 영남범패 회원스님 초청 제4회 낙동강 수륙재 대법회 및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053)616-8080



동화사 제5대 신도회장
삼환주식회사 대표 한삼화 회장은 4월 1일 대구 동화사 통일약사 대불전에서 동화사 제5대 신도회장으로 취임했다.

"북녘에 평화의 등 달자"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집행위원장 혜 경 스님



"현재 남북관계가 어려워도 이런 상황에서도 부처님의 뜻이 바르게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신계사 평화의 등달기를 통해 우리의 뜻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4월 27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평화의 등 달기 점등 행사를 갖는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민족화해기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경색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강산신계사사적〉에 따르면 신계사는 신라 법흥왕 5년(519년)에 보운 스님에 의해 창건돼 653년 김유신이 중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민추본은 25일까지 불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등 모연을 진행한다. 점등은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연등 모연 동참금은 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한 자비의 쌀 지원기금으로 사용된다.

민족의 영산이며 불교의 성지인 금강산에 연등을 밝혀 남북의 불교계가 공동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국민들에게 민족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신계사를 방문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도 정부도 인도적 차원의 민간 교류는 허용할 방침이고, 조계종도 신계사 복원의 의미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평화의 등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북의 상황이 경색돼 있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을 수행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북한을 밝히고, 자비 사상의 연을 맺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6·25 전쟁 중 폭격으로 소실된 신계사는 2001년 조계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이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2004년 4월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복원 사업은 2007년 10월에 마무리 되면서 낙성법회를 갖기도 했다. 2009년에는 조계종과 조불련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계사 복원 2주년 기념 공동법회를 열기도 했다.

혜경 스님은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 조상들이 가꾸었던 부처님의 도량인 신계사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금강산 신계사 평화의 등 달기에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박기범 기자

"젊은 70·80 학번대 중심으로 개편"

대불련 총동문회 제24대 윤 제 철 회장



"동문회가 발전하려면 더 큰 수레가 돼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동문들을 폭넓게 규합하고 대불련 후배들이 스스럼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윤제철, 이하 대불련)는 4월 10일 열린법당에서 이취임법회를 열었다. 이날 대불련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한 윤제철 회장은 "언제나 새롭고 문화적인 동문회를 만들겠다. 열린 법회나 여름대회를 더욱 다양하게 편성해 보다 많은 동문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만 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된 대불련에서는 현재 5000여 회원이 실질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60~90학번이 대불련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70학번대여서 대불련 총동문회가 젊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윤제철 회장은 "회장은 동문회 활동의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실무적인 운영은 70~80학번대가 중심이 되도록 개편하겠다. 가능한 90학번대에서도 유능한 회원들이 운영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제철 회장은 서울·경기, 충청지역에 지부설치 추진의사도 밝혔다. 윤 회장은 "특히 수도권 지역은 동문회 본부가 지부를 겸하고 있었으나 지부로 독립해 보다 유연하고 회원중심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부장 회의를 활성화해 지부 간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8월 대불련 총동문회는 대외적 활동을 공식화하기 위해 법인 '대불'을 출범시켰다. '대불'의 이사장직도 겸임하는 윤 회장은 수 십 년간 기업경영에 참여해온 노하우를 살려 대불련 동문회와 함께 운영할 것을 다짐했다.

윤 회장은 "이웃종교단체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회원들 모두 대불련의 창설 이념을 살려 참다운 구도자가 돼 참다운 복지사회를 건설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윤제철 회장은 1970년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7년 한국자산관리공사 본부장을 거쳐 2005년 삼정회계법인 부회장을, 현재 동국대 겸임교수(회계학)를 맡고 있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기획국장 진 우 스님
상임감찰에는 탄 공 스님 임명



진우 스님



탄공 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에 진우 스님이 임명됐다. 호법부 상임감찰에는 탄공 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탄공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신임 기획국장 진우 스님은 만적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1994년 범어사에서 정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前 국제선센터 기획국장.

신임 호법부 상임감찰 탄공 스님은 능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86년 망월사에서 정영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광덕사·비례사 주지, 호법부 상임감찰 등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대한불교법상종 수계법회 및 산사음악회 봉행



대한불교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4월 10일 안성 쌍미륵사에서 용화계단 보살계 수계대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해월 법상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관내 김학용 국회의원, 황은성 시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해월 법상종 총무원장은 봉행사를 통해 "수계 공덕으로 부처님의 법을 좀더 바르게 실천하는 참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행사에는 불자자녀 11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 불교에 기여한 불자들을 위한 감사패가 전달됐다. 보살계 수계식에서는 700여 수계자들이 3사 7증이 증명하는 가운데 보살5계를 수계했다. (031)677-9950

노덕현 기자

여래종 세계승왕청 임명식 및 진신사리 이운 대법회 봉행



한국불교여래종은 4월 8일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세계고승 초청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4월 9일 성남 금강 대약사사에서 세계고승원돈십중보살대계를 봉행했다.

보살대계법회에서는 승왕청 임명식과 스리랑카 시암종 불치사의 부처님 진신사리를 여래종으로 이운하는 대법회가 열렸으며 오후에는 원돈십중보살대계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일어난 미얀마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미얀마 대사관 측에 성금이 전달됐으며 불교발전을 위한 한국과 스리랑카·미얀마·태국 3개국의 문화교류 협약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한편 4월 10일에는 한국불교여래종 약사사에서 300여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한 가운데 점심 공양과 다과를 겸하여 세계고승의 법문과 기도법회가 열렸다. 11일에는 주 스리랑카 대사 초청으로 여래종 환영만찬이 진행됐다. (043)731-2261

노덕현 기자

선종수사찰 봉은사 봉축 큰스님 초청 특별법회

"오늘,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면…"



암도 큰스님 청화 큰스님 중범 큰스님 도영 큰스님 성우 큰스님 혜총 큰스님

한국불교 중흥도량, 도심포교의 거점도량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에서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큰스님 초청법회의 법석을 마련하고 사부대중을 초대합니다.

● 법회 기간
불기 2555(2011)년 4월 25일(월) ~ 30일(토)
● 시간 및 장소 오전 10시 / 법왕루
● 문의처 봉은사 교무교육팀 02)3218-4817

법회일정
❶ 4월 25일(월) : 암도 큰스님 (전 포교원장)
❷ 4월 26일(화) : 청화 큰스님 (전 교육원장)
❸ 4월 27일(수) : 중범 큰스님 (전 승가대학교 총장)
❹ 4월 28일(목) : 도영 큰스님 (전 포교원장)
❺ 4월 29일(금) : 성우 큰스님 (현 불교텔레비전 회장)
❻ 4월 30일(토) : 혜총 큰스님 (현 포교원장)

자비도량 참법기도 안내

선종수사찰 봉은사에서는 큰스님 초청법회 일정과 더불어 아래와 같이 자비도량 참법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시. 2011년 4월 21일(목)~30일(토) / 오후 2시 ~4시
● 장소. 봉은사 법왕루
● 내용. 〈자비도량참법〉 10권을 매일 1권씩 10일간 독송
회향일에 합동 천도재 봉행
● 동참금. 기도비: 10만원 / 합동천도재: 영가 1위 5천원
설판: 10만원(사시축원)

문의 봉은사 교무교육팀 02)3218-4817

봉은사 대한불교조계종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135-090
73 Samseong-Dong Gangnam-Gu Seoul 135-090 Korea
T 02 3218 4800 F 02 544 2141 www.bongeunsa.org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말라

정토회 법 륜 스님, 2030 청춘멘토링 '방황해도 괜찮아' 세번째 강의… '결혼'

아직 싱글인 청춘남녀라면 누구나 결혼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간다. 매일 같이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밥을 먹는 등 영화나 드라마 속 한 장면과 같은 결혼을 꿈꾼다. 허나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은 다르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벅찰 것 같았던 결혼은 예상과 달리 잦은 다툼과 갈등으로 얼룩져 버리기 일쑤다. 꽃피는 봄이 되니 올해도 어김없이 결혼시즌이 돌아왔다.

4월 14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는 '결혼'을 주제로 법륜 스님의 2030 청춘멘토링 '방황해도 괜찮아' 세 번째 강의가 열렸다. 결혼을 주제로 다뤄서 인지 이날은 유달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들이 많이 참석했다. 결혼이 불행이 아닌 아름다운 꽃길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법륜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리=이은정 기자





선택에는 대가가 있기 마련

Q: 32살의 미혼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차다 보니 결혼을 하기 위해 선도 보는데, 자꾸 남자의 외모를 따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니 외모보다는 능력이나 다른 조건을 더 많이 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외모가 제 맘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이 싫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남자의 외모를 따지는 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A: 남자의 외모를 밝혀 걱정인 것 같은데, 외모를 밝혀도 괜찮습니다. 잘생긴 남자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잘생기면 다 좋아합니다. 보통 내가 괜찮다 싶은 남자는 이상하게 이미 짝이 다 있습니다. 나이가 32살이라고 하셨죠? 솔직히 32살의 여자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능력도 되고 잘생긴 남자를 찾기란 확률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와 비교해 볼까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집을 살 때는 싸게 구하고 싶어 하고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간혹 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100개 중 2~3개 밖에 되질 않습니다. 괜찮은 남자도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그럼 그런 낮은 확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선도 더 많이 보고 많은 남자들을 만나다 보면 우연히 제 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에 성공하려면 실현가능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삶의 현실입니다.

막상 자신이 원하는 남자를 골라 결혼하면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사실 실속은 그다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인물값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다 같아서 모두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본인의 마음은 속상할 것이고, 그런 일에 질투를 느끼고 의심이 늘고 화가 나면 결국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잘생긴 남자와 살고 싶은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니나, 그 후에 따라올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대가를 치룰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면 자신이 조금 숙이고 살아야 하고,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하면 삶은 편한데 상대방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져 행복한지 잘 모르고 삽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혼 전에 연애도 오래 하고 이것저것 다 맞춰보고 결혼을 해도 시험 볼 때 마치 틀린 답만 골라서 찍는 것처럼 결혼하면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자꾸 상대방에게 기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선택에는 선과 악,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결과를 받아들이는지가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고치려 하지말라

Q: 만난 지 2년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서른이라 슬슬 결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랑 그 친구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평소에는 감정표현을 잘 안하다가 술을 먹으면 어느 정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그 친구에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소통이 안 되는 데에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고치려 하면 100% 실패합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그대로 두고 본 다음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가 60점인데, 이것만 고치면 80점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걸 바꾸려 들면 무조건 실패하게 돼있습니다. 그건 남자친구뿐 아니라 본인도 자기의 성격을 바꾸기 힘듭니다. "밖의 100만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더 힘들다"라는 말이 있듯, 그만큼 자신을 바꾸는 일이 힘든 겁니다. 만약 남자가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십시오. 그런 남자에게 "사랑해" "좋아해"라는 말을 자꾸 들으려 하면 안 됩니다.

산이 좋아 산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을 자주 다녀도 산이 나보고 좋다는 소리 하던가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소통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을 못하는 강아지랑 진짜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건 강아지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서가 아니라, 말을 안 해도 강아지랑 산이랑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말이 많이 없으면 말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술을 마시면 조금 말문이 트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에 말문이 막혔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직장이나 결혼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 사람은 술을 먹고 주정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술에 취해 주정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보지 말고, 기질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맞춰야할지 연구하는 겁니다. 술을 먹고 이야기할 일이 생기면, 취하기 전 평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술에 취해 상대방이 자신의 얘기를 하려하면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했던 말을 또 해도 항상 처음 듣듯이 들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 어른의 강압적인 행동에 말문이 막힌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어른이 뭐라 했기 때문에 대들지 못했지만, 자신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보통 말싸움을 하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졌다고 생각이 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기려 듭니다. 그러니 남자가 나중에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격려를 해주고 따뜻이 대해 줘야 합니다.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혈질인 사람은 속을 알기가 쉽습니다. 성질에 따라서 자신이 그런 기질을 잘 조율하면 됩니다.

사랑은 장사가 아니다

Q: 저는 33세의 미혼 여성입니다. 현재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어머니가 남자친구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고 결혼을 반대하십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거스르자니 부모님에게 죄송하고, 결혼을 포기하자니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합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결혼을 해야 할지, 포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20살이 넘으면 부모가 반대해도 결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조계사 법당에 가서 혼례를 올리세요. 꽃 일곱 송이만 있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자꾸 부모님 핑계를 대면서 결혼을 미루는 것은 진짜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꼭 축복해 주길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그건 아직 본인이 부모에게 기대고 싶고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니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할 때는 경제적인 것, 축복해주길 바라는 마음 모두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반대하기 때문에 결혼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한 부부는 보통 부부들보다 더 힘들어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엄마가 이래서 결혼을 반대했구나"라고 합리화 시켜 버립니다. 결혼할 때는 부모를 적으로 보고, 내가 위기에 처하면 부모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할 때에는 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포용해 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결국 자식이 잘 살면 나중에 지지해 주기 마련입니다. 만약 아직도 부모의 덕을 보고 살기 바란다면 사랑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에 실패하면, 궁합이 맞지 않아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궁합이 안 맞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단 3일이라도 같이 살아본 것은 인생의 행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손해는 감수해야 합니다. 사랑은 장사가 아닙니다. 자꾸 주판알을 튕기지 마십시오.

奉

제1회 룸비니 세계불교 문화올림픽

行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성역화 운동

룸비니 제1회 세계불교문화올림픽 참가 국내종단

대한불교임제정종	종정	석묘각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석능인	
선농교단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 블	
대한불교대원조계종	종정	범 아	
대한불교벽암조계종	종정	석해안	
대한불교달마조계종	총무원장	석효천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총무원장	석용산	
대한선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석법공	
대한불교임제선종	종정	석운암	
대한불교유가종	종정	혜 수	
대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 승	
대한불교서천종	총무원장	홍 산	
한국불교석가종	총무원장	원 통	
대한불교일불조계종	총무원장	진 각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 산	
총남불교조계종	종정	석청암	
대승불교임제종	종정	석법장	
진여법계세존여여종	종정	석보각	
국제불교조계종	종정	석명석	
대한불교법화조계종	총무원장	석심공	
대한불교미타조계종	총무원장	석종묘	
세계불교약사종	종정	석혜월	
대한불교무상사조계종	총무원장	석동월	
대한불교일붕법왕종	총무원장	원 각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 장	
세계일화조계종	총무원장	인 덕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일 웅	
대한불교옴조계종	총무원장	인 묵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가입된 38개 종단
대한불교알평승가회 28개 사찰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가입된 23개 종단
참가 각 종단 사찰 1,000여개 사찰

이번 행사에 동참하실 종단은 신청하시면 다음에 종단명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89개 종단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조직위 집행부에 동참하실 스님께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증명대법주 만옹. 도성

증명법주 현블. 청암. 보각
조직위원장 학운 추진위원장 덕산
기획위원장 담화 사무총장 능인

증명법사 묘각. 범아. 원각. 혜승. 해안. 지우
집행위원장 법장 운영위원장 일웅
총괄본부장 현광 성지순례단장 진각

■ 행사내용
· 의식 : 영산재, 수륙재, 예불 등 각국의 고유불교 의식 경연
· 의상 : 출가자 의복, 재가가 의복 등 각국 불교의상 소개
· 음식 : 각국민족, 찬불가, 독창, 합창경연
· 무용 : 바라무, 극락무, 화관무, 전통무, 고전무
· 영상 : 불교영화 및 다큐
· 무술 : 전통무예, 창, 검, 권법
· 미술 : 탱화, 조각, 불상 (작품제출)
· 경전 : 법화경, 금강경, 사경 및 염송 독송

■ 불교문화교류 및 발굴
1. 불교 무차선 세계대회
2. 세계불교연합대법회
3. 불교문화재 박람회
4. 불교국가 미술대전
5. 유네스코 주관 세계불교 문화재 보존 세미나
6. 탄생불 불상조성 기공식
7. 석가모니 진신사리 및 10대 제자 사리 전시

• 주 최 : 네팔 관광부,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 주 관 :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 후 원 : 네팔 관광청, NRN세계봉사단체, 네팔불교협회, 불교TV방송, 세계불교승가회, 알평승가회, 세계불교 문화올림픽봉사단(WBOV) http://cafe.daum.net/wbov (자원봉사단 접수)
• 일 시 : 불기 2555(2011)년 9월 21일 – 10월 11일
• 장 소 : 네팔 룸비니 부처님 탄생지 일대
• 개막식 : 2011년 9월 21일
• 폐막식 : 2011년 10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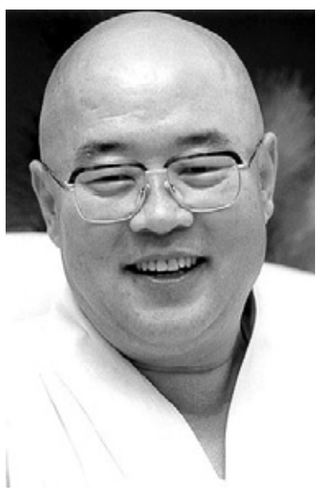
한국대표로 참가할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행사동참 및 성지순례 신청 받습니다.

열린여행사 Tel 055)533-6114 / fax 055)332-7644

세계불교문화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1224 전화 02)761-0410 / 팩스 02)785-6870

베트남에 복지타운 세운다

연꽃마을, 4월 20일 '복지교육타운' 설립 위한 MOU 체결



베트남 광남성에 '한국형 복지교육타운'이 설립된다.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은 "베트남 광남성 탐키시로부터 2만여 평(66,000㎡내외)을 기증받아 베트남에 '한국형 복지교육타운'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베트남 광남성 인민위원회 부회장, 탐키 시장 광남성 외무 부국장, 탐키시 토지개발센터 이사장 등 5명의 베트남 고위급 공무원 일행이 4월 19~23일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 체류 기간인 20일 오전 10시 연꽃마을 안성 파라밀 병원 6층 법당에서 '한국형 복지 교육타운 설립을 위한 상호 기본협약 조인식'을 체결한다. 21일 오후 2시에는 조계종 자승 스님을 예방해 한-베트남 불교교류 확대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MOU체결은 연꽃마을이 2005년부터 한국 해병대가 주둔했던 '다낭' 지역에 소재한 베트남 광남석 지역 청소년들에게 매년 500여 만 원의 장학금을 제공한 것이 계기가 됐다.

연꽃마을 관계자는 "3년 전에는 연꽃마을이 광남성 성장으로부터 각현 스님이 감사장을 받았다. 이런 인연 등으로 베트남 광남성 탐키시내 부지 2만여 평을 연꽃마을이 무상기증을 받아 양국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베트남으로부터 기증받는 2만 여 평의 부지는 베트남 광남성의 수도인 탐키시내에 위치한다. 광남성은 경기도 보다 큰 지역(면적 10,406㎢)으로 베트남 중간지점에 위치한 곳이다.

연꽃마을은 이곳에 광남성과 협의해 공동으로 △한국형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국제교육센터 △한국형 건강증진센터 △복지대학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전법단 출범 1주년 기념

2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2010년 4월 30일 출범한 조계종 전법단(단장 계성)이 1주년을 맞아 4월 29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기념식은 전법단 출범 후 1년간의 활동에 대한 중간 점검과 향후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에서는 전법단 활동 모범사례를 영역 · 지역별로 발표하고 전법단 출범 1년의 성과를 보고하고 활동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또한 전법단은 행사를 통해 소속 지도 법사의 화합 및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전법단 활동의 대외적 홍보를 통한 현장 활동 인력을 확보하기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따라 전법단 지도법사의 교류 및 친교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공불련, 월정사 성지순례법회

2011 주요행사, 사업계획 발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이하 공불련)은 4월 9~10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제20차 성지순례법회 및 제7차 임원단회의를 개최했다.

공불련은 행사 첫날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을 모시고 입재법회를 했으며 탑돌이 강의 및 참선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을 모시고 기념법회를 가졌다.

공불련은 입재법회 후 제7차 임원단회의를 열고 △2011년 주요행사 추진일정 △해외성지순례 △공불련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 등을 논의했다.

공불련은 올해 △표준 경전보급사업 △전국 암자순례 사업 △불교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불련은 △제11차 합동수계법회 (6/11~12) △조계종 포교원과 임원연수 (5/20~22) △제10차 해외성지순례 (7/30~8/6) △창립11주년 기념법회 및 대의원총회 (10/8~9) △송년법회(12월) 등을 진행한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사찰 후원금 '쾌척'

조계사, 봉은사, 신흥사, 신륵사 등



조계종 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우송)와 여주 신륵사(주지 세영)가 승가교육진흥기금으로 성금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4월 12일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전달했다.

같은 날 조계사(주지 토진)에서는 일본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3월 15일부터 진행한 '세계일화(世界一花)' 지구본 성금과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은해사(주지 돈관)도 일본지진과 군법당 건립을 위한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13일에는 봉은사(주지 진화)가 일본지진피해 지원과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신도들의 모금 등으로 마련한 자비나눔기금 2000만원을 전달해 왔다. 15일에는 무진선원(주지 도선)과 수덕사(주지 지운)가 국군장병 지원을 위한 기금 1000만원을 각각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전달했다.

박기범 · 이나은 기자

노인요양시설 자인원 증축개원

전남 신흥사, 위탁운영 15명 수용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4월 14일 가정형노인공동시설 자인원의 증축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강진 신흥사가 운영지원사찰인 자인원은 강진군 강진읍 춘전리 43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증축된 자인원은 연면적 356.4㎡크기의 1층 건물로 물리치료실, 생활실, 식당 등의 설비를 갖추고 수용인원도 15인 규모로 증가시켜 노인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 노인요양시설로 거듭날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전문적 경험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케어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노인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박 기 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도심포교에는 의료봉사가 최고죠"

한솔종합복지관에서 활동하는 구룡사 이혈치유단 봉사

분당에 위치한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화)은 목요일 오후만 되면 평소보다 어르신들의 발길이 더 잦아진다. 1시부터 '구룡사 이혈 치유 봉사단'이 복지관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이혈 치유는 귀에 분포돼 있는 혈을 '신반석'을 이용해 자극, 건강 증진과 치유에 도움을 주는 대체의학의 하나다. 가톨릭 등 이웃 종교에서는 포교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10여 명의 구룡사 이혈 치유 봉사단은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한솔복지관을 찾는다. 자신들을 기다리는 어르신들 덕분에 힘든 줄 모르고 활동한 것이 벌써 5~6년째다.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대화를 하다보면 가족 같은 정이 샘솟습니다."

봉사단의 김동옥(62)씨는 이혈 치유가 단순한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며 심리상담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매주 목요일이면 이곳을 찾는다는 이정숙(83)할머니는 "다들 우리에게 너무 잘 해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매주 이 날만 기다린다"고 말했다.



구룡사 이혈치유봉사단. 사진 왼쪽부터 이경숙, 조초영, 김동욱 씨.

한솔복지관도 신반석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등 봉사단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

봉사단의 조초영씨는 "봉사를 하면서도 불교의 기본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라고 밝혔다.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김동욱 씨와 조초영 씨는 구룡사에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하며 불교계 이혈 치유요법 확산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봉사단에서 활동하는 이경숙(52)씨는 두 사람의 제자의 제자다.

이 씨는 "두 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불교계에서 이혈 치유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이혈 치유를 배워 봉사를 하려는 불자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조초영씨는 "도심 포교를 위해서도 의료 봉사가 더 적절하다. 이혈 치유를 불교계에 확산시켜 불자들이 의료 봉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옥씨는 "봉사활동을 통한 부처님 말씀 실천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범 기자

이 나 은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부루나 덕분에 합창제 가요"

5월 14일 서울광장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기원 국민대합창 후원음악회'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정명훈씨가 지휘자로 참여하며 각 종교계, 다문화어린이합창단, 성인합창단 등 유수 합창단들이 참여해 KBS로 전국 방송 될 예정이다. 종교계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300여 명이 참여한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민간단체 월드하모니가 불교계 합창단을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중 페이스북 부루나를 통해 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 연구소장이 페이스북 부루나에 올린 글을 보고 불교계 합창단이 연락을 하게 된 것.

이 연구소장은 "다문화어린이 합창단이 평창동계올림픽 국민대합창에 참여하는데 이와 관련해 월드하모니 주최측과 논의를 하다 '불교계 합창단 섭외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월드하모니 측이 조계종과 종단협의회에 불교합창단 지원요청을 했으나 종단에서는 "봉축준비로 5월에 행사가 많으니 지원이 어렵다"고 거절한 것.

이현정 연구소장은 "월드하모니 관계자가 '5월 14일 종교계 합창행사에 불교계만 빠지면 정부입장에서도 이상해지지 않느냐'고 우려를 표했다"며 "월드하모니에 연락을 줘야하니 참여 가능한 합창단 있으면 연락 달라"고 부루나에 게재했다.

이후 부루나를 본 정각원 합창단과 남성불자합창단이 월드하모니에 참여의사를 밝혀 후원음악회에 나갈 예정이다.

이현정 연구소장은 "페이스북 부루나 덕을 톡톡히 봤다. 하지만 이웃종교인들과 함께 일을 할 때 불교계의 소극적인 태도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며 "국가적인 일에 참여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동참 및 후원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시대의 요청과 교계의 필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포교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교중심을 세우고 현장의 지원을 통해 포교역량을 강화하고자 2010년 4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후, 분야별 · 지역별 전법단의 구성과 운영을 전개하여 어느덧 출범 1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불교중흥을 이끄는〈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의 활성화와 포교영역 확대를 위하여 본 종 스님 및 신도님들께 동참 및 후원을 안내드립니다.

■ 취 지

○ 신행 · 법회 소외 지역의 실질적 포교활동을 지원하여 현장에 도움을 제공
○ 지역과 연계된 전법단의 활동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 포교의 거점 및 중심으로 위상 정립
○ 분야별 · 지역별 포교활동 진흥과 특수 분야의 포교활동을 우선적으로 촉진하여 포교활성화에 기여

■ 목 표

○ 주요 계층 및 광역 중심의 전법단 구성
○ 포교현장 활동 스님의 발굴 및 전법단 조직 확대

■ 구성 경과

○ 분야별 구성

분 야	출범일시
병원 전법단	2010년 5월 12일
경찰 전법단	2010년 6월 28일
군 전법단	2010년 7월 14일
대학생 전법단	2010년 12월 1일
교정교화 전법단	2011년 1월 20일
이주민 전법단	예정
장애인 전법단	예정

○ 지역별 구성

지 역	출범일시
광주전남 전법단	2010년 10월 6일
성남 전법단	2010년 11월 1일
대구경북 전법단	2011년 4월 27일
울산경남 전법단	2011년 6월 중
대전충청 전법단	예정
인천 전법단	예정

■ 후원 계좌

전법단 명	후 원 계 좌	예 금 주
병원 전법단	국민은행 023501-04-164937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병원)
경찰 전법단	국민은행 023501-04-164940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경승)
군 전법단	국민은행 023537-04-002650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군)
대학생 전법단	국민은행 023501-04-164953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대학)
교정교화 전법단	국민은행 023537-04-002832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교정교화)
광주전남 전법단	국민은행 023501-04-166733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광주전남)
성남 전법단	국민은행 023537-04-002803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성남)
대구경북지역 전법단	국민은행 023537-04-002788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전법대구경북)

■ 구성 개요

○ 지도법사단 : 본 종 승려로서 특정 분야에서 실제 포교활동을 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분
○ 전법지원단 : 본 종에서 발급한 각종 포교자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분
○ 전법후원단 : 스님과 신도, 사찰 등에서 분야별, 지역별 전법활동을 후원하고자 하는 분과 단체

■ 동참 및 후원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전법지원팀
- TEL 02)2011-1892~3,1903 / FAX 02)720-7065
- E-mail : shyjieun@buddhism.or.kr / airjaeil@buddhism.or.kr

2011년 4월

대 한 불 교 조 계 종 포교원장 혜총

불교산업 점검 1 – 불교문화컨텐츠산업

문제점도 해결방안도 '말로만'

대표적 컨텐츠, 템플스테이·사찰음식·출판… 불교문화 바른 인식·실천 통한 개선 나서야

불교산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좋은 수단이다. 또한 산업 발전으로 인한 수익은 불교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본지는 3회에 걸쳐 불교산업에 대한 현황과 나아갈 길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외국인들이 2005년 흥국사템플스테이에 참가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불교문화컨텐츠 산업의 대표 주자는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출판 등이다.

이들은 한국불교의 원형을 현대적으로 포장해 불자는 물론이고 무종교인 및 일반 국민들에게 불교의 정신과 가치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템플스테이= 현재 템플스테이는 전국적으로 120여 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외국인들의 참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신종플루와 세계경제 침체로 증가세가 주춤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04년 이후 매년 40% 씩 늘어나고 있다.

템플스테이의 성공 요소로는 참가자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사찰의 적극적 참여와 숙박 등 시설 확충, 자원봉사자, 통역 등 전문 인재 확보가 꼽힌다. 또한 갈수록 다양화, 세분화되는 참가자들의 욕구를 반영해 사찰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 자원봉사자 확충도 시급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템플스테이사업단 관계자는 "수용 능력 해결을 위해 거점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거점센터는 지정사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교문화 대중화와 템플스테이 수요 증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 통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통역 및 문화해설사 봉사자와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한 지나친 퓨전은 사찰음식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항상 제기돼왔다. 사찰음식은 현재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정체성은 상실되고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 사찰 음식의 정체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선재 사찰음식 연구원 원장 선재 스님도 2009년 한 세미나에서 "국적 불명의 사찰음식, 일반인들의 사찰음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도 사찰음식 발전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9년 5~12월까지 대전·충정지역 사찰음식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사찰음식 순례〉를 발간했다. 당시 문화부장 효탄 스님은 "사찰음식 발전을 위해 전국 사찰음식의 종류와 제조, 전승 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제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판= 불교출판의 영세성과 불황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다. 불교 출판들계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로 불교계의 독서부족 현상을 꼽는다.

더구나 재가자들에게 책을 권하는 스님은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한 출판사의 종교서적팀 관계자는 "개신교의 경우 목사님들이 신도들에게 책을 많이 권한다. 그렇게 권한 책들은 급속한 판매량 증가를 보인다"며 출판 활성화를 위한 독서풍토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출판도 불교 문화도 스님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스님들이 불교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추고 그 속에서 실천할 때 불교문화는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범 · 노덕현 기자

특별기고 Ⅰ

불교문화콘텐츠 산업을 위한 제언

불교는 무궁무진한 콘텐츠 창작의 보물창고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전통문화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시대에 늘 더디게 뒤쫓아 간다고 한다. 불교문화콘텐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가 다양한 매체나 기기를 통해 불교와 함께 할 수 있게 불교문화에 숨결을 불어 넣는 선교방편(善巧方便)이다.

현재 청소년들을 'TGIF세대'라고 한다. 트위터(Twitter), 구글(Google), 아이폰(i-phone), 페이스북(Facebook)의 첫 글자를 딴 말로 소셜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살아가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는 세대이다. 불교문화콘텐츠는 현 시대 사회와 대중에게 불교를 알리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방법이다. 또한 우리의 시대정신과 창의적인 상상력을 담아내고 공감하는 문화 그 자체이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를 소비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소비지향 단계를 뛰어 넘어, 문화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체험과 소통을 통해 자아발견과 성숙을 지향하는 문화적 성숙 단계에 다가서고 있다. 이는 불교적 지향과 그 맥락이 통하는 지점이다. 특히 2011년 3월 스마트폰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고, 올 연말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스마트폰 빅뱅에 접어들면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미디어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새로운 콘텐츠가 확장돼야 할 것이다.

불교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쌍방향 네트워킹과 프로슈머 양성을 통한 문화시장이 형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불교종단이 이를 위한 시스템, 네트워크,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첫째, 불교문화콘텐츠 진흥의 기반을 이끄는 (가)불교문화콘텐츠진흥센터와 같은 구심점이 마련돼야 한다. 종단이 앞장서서 불교계가 가진 문화적 자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뉴미디어 환경을 앞서가는 문화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을 선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

둘째, 불교문화콘텐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불교문화콘텐츠 진흥에 관련된 일들을 종단이 모두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의 흩어져 있는 불교문화콘텐츠 역량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 종단과 관련기관의 조직 네트워크, 학계 연구자 산업계 개발자 간 인적 네트워크, 산업계 불교계 문화조직의 인프라 네트워크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불교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타종교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포교는 물론 신도교육과 대중적 이미지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종 불교문화콘텐츠 창작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학계에서는 인재양성과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종립대학을 비롯한 학계에서는 불교문화와 관련한 연구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열린 정보 서비스체계로써의 불교문화 아카이브가 구축돼야 한다. 기존의 연구 역량과 문화콘텐츠 창작의 원천이 되는 원천자료 등을 누구나 쉽게 다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같은 학술연구조직이 마련되어 한국불교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지니고 있다. 학계에서 불교가 지닌 문화유산, 기록유산에 대한 수집과 학술연구를 통한 결과물이 원천자료의 형태로 서비스될 수 있는 체계로써의 아카이브로 학계와 종단, 산업계의 소통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불교문화콘텐츠를 통해 종단과 불교계는 불교문화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인간 내면의 참된 행복과 여유로움을 키워주는 '불교'라는 '종교성'의 깊이를 더해 주시고, 학계에서는 문화콘텐츠 창작의 원천자료를 연구하고 서비스해 '문화'의 '공공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불교에 관심있는 창조적인 개인과 산업계는 시대와 불교가 만날 수 있는 '콘텐츠'로 '대중성'의 가치를 무한히 확장시켜 주신다면 소통과 선순환 구조가 되는 불교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재수

특별기고 Ⅱ

수익사업 확대로 통 큰 자비정신 실천을

불교계의 수익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템플스테이입니다. 하지만 템플스테이는 수익성 사업이라기 보다 일반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거리감을 줄여주는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밖에 불교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 영역은 크게 친환경 부분과 실버 부분일 것입니다. 이는 불교계가 태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최근의 사회적 이슈와 접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 사업은 녹색산업과 함께 최근 정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사찰들은 사찰 주변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찰림이나 사찰휴경지를 이용하여 사업화한다면 멋진 수목원이나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많은 예산 투자 없이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사찰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생태공원이나 수목원을 조성한다면 시장성은 충분할 것입니다. 식음료 사업도 고려해 볼 만한 분야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함을 강조한 천일염사업, 연꽃차나 국화차 등 전통 차 제조업 그리고 곡차를 상품화해 새로운 형태의 주종을 창출해 내는 것도 수익사업의 한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실버산업은 또한 불교계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고 철학적 접근성이 근접한 분야입니다. 의료사업은 동국대 한의대와 산학협력을 통해 안티에이징이나 웰에이징할 수 있는 다양한 약품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사찰 부근 휴경지를 활용한 실버타운 설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수익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시행이 개별사찰 차원이 아닌 중앙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불교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사업에 대한 콘트롤 타워가 존재해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업무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가능해 일반 소비자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중앙종단 차원에서 별도의 법인 설립이 우선돼야 합니다. 지주회사 성격의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 영역에 따라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이 같은 관계회사 체제는 제품의 표준화를 이끌어 소비자의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회사간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비용의 최적화를 추구할 수 있고 생산체제의 대형화를 이끌어 규모의 경제 효과도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상조회사에서 시작하여 보험사, 증권사에 이르는 금융업으로의 진출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농협이나 우체국, 사학연금 등 구성원의 상호부조를 위해 설립된 기관들이 공제사업으로 시작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업으로 업무확장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업으로까지 진출하는 상황을 벤치마크 하는 것도 불교계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체계적 관리 시행으로 불교계의 수익사업이 현실화되어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준서

대한불교대승종

제3기 승려 기본교육

1988년에 창종하여 24년간 대승불교의 근본취지를 추구해 온 본 종단에서는
입종 예정자를 위한 기본 교육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초보자, 전종 및 입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기 간 : 2011년 5월 21일(토) ~ 2011년 6월 19일(일) (토,일 / 4주간)
과 목 : 예불, 불공, 법기실수, 초발심자경문, 사찰경영 外 기본교육
장 소 : 북한산 도봉사 도봉선원 (천년고찰)
접 수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2-952-1074 / 010-7273-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042-271-3754 / 011-9704-3247)
지 원 서 : 대승종 카페참조
마 감 : 2011년 5월 3일까지 소인 유효

※ 출가를 원하시는 불자 및 초심자 기초과정은 의식교육 수료 후 종헌종법에 따른 특별승려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불기 2555(2011)년 4월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http://cafe.daum.net/daeseungjong
서울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 B상가 303호

봉 영남범패 회원스님 초청 제4회 무심사 낙동강 수륙재 대법회 및 경로잔치 축

귀의 삼보하옵고,
매년 무심사에서 년중 행사로 실시하는 수륙대재(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영혼과 아귀를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식)를
영남범패 회원 스님을 특별히 모시고 성대하게 거행하고자 합니다. 공덕 중에 으뜸 수륙대재
귀한 법석에 수희 동참하시어 선망부모 조상인연 영가천도하시어 무량공덕 쌓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2011년 4월 24일(일요일) 10시
장 소 : 무심사

* 영가위패 올리실 분 천도 동참자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영가 1위당 : 5,000원)
* 식전후 행사 : 영남풍물단 공연, 국악공연, 민요가수 다수 출연

신묘년 4.8(초파일) 석가탄신일 봉축기념법회
일 시 : 2011년 5월 10일(화요일) 10시
장 소 : 무심사

* 연등접수 받습니다.

* 매주 토요일 천수다라니 철야정진 기도 및 방생도량
◑ 안내전화 : 053)616-8080, 055)532-0408, 010-9898-0108
◑ 계좌번호 : 농협 702058-51-003978 (예금주 : 무심사)
▶찾아오시는길 (네비게이션주소)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암2리 810번지



무 심 사 주지 무심 합장

불교스카우트 운동 확산되기를

부산 흥법사, 청소년 40명으로 홍법스카우트 발대… 9월 불교연맹 창립 예정

9월 전국불교스카우트연맹 창립을 앞두고, 부산 흥법사에서 지역대인 '홍법스카우트'가 발대했다. 전국에서 처음이다.

부산의 대표적 어린이·청소년 포교도량 흥법사(주지 심산)는 4월 10일 대웅보전에서 '홍법스카우트 발대식 및 선서식'을 갖고, 본격 활동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서 홍법사 중·고등학생회를 중심으로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10명 등 40명이 홍법스카우트 창립대원이 됐다.

'홍법스카우트'는 홍법사 중·고등부 자모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홍법사 교사불자회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대원들은 매월 1회 홍법사에서 열리는 정기법회에 참여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봉사활동에 참가할 계획이다.

심산 스님은 "스카우트 정신인 모험, 도전, 성취, 재미, 우정의 덕목에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불자로서의 정신을 접목한 자랑스러운 불교스카우트 대원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전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는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산하 청소년포교기구로, 9월초 한국스카우트 내 불교연맹의 창립을 목표로 지역대 모집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카우트'는 전 세계 161개 회원국의 3000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세계 최대 청소년단체이다. 이웃종교의 경우 이미 2003년 '한국스카우트 가톨릭연맹'과 2007년 '원불교연맹'을 창립했다. 이들은 국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으며, 가톨릭연맹의 회원은 이미 5000명에 달한다.

진정순 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장은 "7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탐험활동과 연계한 '불교스카우트 캠퍼리'를 개최하고, 9월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 창립대회 가질 예정"이라며 "그동안 침체되어온 청소년 대상 포교활동의 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흥법사에서 시작된 불교스카우트 운동이 전국으로 널리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 산하 어린이청소년위원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중심도량 사찰을 우선으로, 희망하는 사찰을 대상으로 불교스카우트희망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문의 (051)508-0345 흥법사, 010-3662-8068 진정순 회장

박지원 기자

"천도재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복전"

부산 불광사, 제주 약천사에서 선상수륙대재 봉행

부산 초읍 불광사(주지 보광)는 4월 12일 제주 약천사(회주 혜인)에서 선망부모천도 선상수륙대재 및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불광사 신도 350명이 동참해, 11일 저녁 7시 부산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갑판 위에서 수륙대재 및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익일 아침 6시 제주항에 도착, 서귀포시 약천사(회주 혜인)에서 천도재를 봉행한 뒤 산방산사(주지 벽공)와 관음사(주지 원종)를 순례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한밤 중 망망대해를 달리는 설봉호에서 약 2시간 여 이어진 수륙대재가 끝난 후에도 대부분의 불자들은 갑판 위에 모셔진 부처님을 향해 절을 하고 철야기도를 올리는 등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튿날 오전 약천사에 도착한 순례단은 대적광전에서 사시예불을 올린 뒤 범음범패의식이 어우러진 천도재를 여법하게 봉행했다.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은 특별법문을 통해 "약천사에서는 모든 신도들이 일상에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일'을 권장하는 삼호(三好)운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항상 삼호운동을 되새기며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산방산 산방사와 조계종 제22교구본사 관음사를 차례로 참배한 후 2박 3일간의 대장정을 회향했다.

주지 보광 스님은 "생사의 어두운 길은 부처님의 등불을 의지해야만 밝힐 수 있고, 고해의 깊은 파도는 진리의 배를 타야만 건널 수 있는 것"이라며 "먼저 가신 조상님과 부모님, 그리고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이번 천도재를 보살행을 실천하는 복전이라 여기고, 돌아가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광사는 6~7월경 제주 약천사의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아름다운 약천사 도량과 제주의 정취를 만끽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제7회 부산차밭골문화제 성료 제7회 부산차밭골문화제가 4월 8~9일 부산 금정산 금강사(주지 혜성) 인근 차밭골 일원에서 금강사 신도회 및 선다회 주관으로 성료 했다. 주지 혜성 스님은 "금강사를 중심으로 차밭골을 조성했으며, 매년 봄 백화만발헌다례를 통해 새로운 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불교계 노인요양시설 '효림원' 개원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이사장 혜국) 산하 노인요양시설 효림원이 4월 13일 오전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홍제사(주지 성문) 경내에 자리하는 효림원은 대지 4,035㎡, 건물 581.32㎡,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4인실 총 28병실과 최신식 의료 및 물리치료 장비, 150인분 조리시설, 목욕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051)807-8300 박지원 기자

부산여성불자회, 제17주년 기념법회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는 4월 13일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법당에서 창립 17주년 기념법회를 갖고, 불자청소년 18명에게 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로 17돌을 맞은 부산여성불자회는 창립당시 55명으로 출발해 현재 108명의 정예회원으로 구성된 부산 대표 여성불자모임이다.

매년 군법당과 신병훈련소 포교, 부산교도소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포교사각지대의 전면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리이타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22주년 넘어 깨달음과 회향으로"

부산불교약사회, 제22주년 기념법회

부산불교약사회(회장 박정주)가 창립 22주년을 맞아 4월 9일 지안 스님(前조계종종립승가대학원장)을 초청해 법문을 들으며 창립의 초발심을 되새겼다.

부처의 행복한 삶을 살자는 데 뜻을 모은 불자 약사들이 만든 단체다.

약사회는 매년 템플스테이와 사찰 순례, 봉사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김 상 희 대한불교교사대학 교무처장

"어린이불교회관 건립하고 싶다"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를 양성하는 (사)동련 산하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 범어사 주지)에는 엄부자모(嚴父慈母)가 있다.

항상 열정적인 강의와 현 불교계의 세태에 일침을 가하는 김광호(불명 현묵) 부학장이 엄한 아버지라면, 자애로운 어머니는 바로 김상희(불명 용선행) 교무처장이다.

김상희 교무처장은 학교에 갓 입학한 새내기들에게는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인자한 스승이자,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어린이법회를 이끄는 졸업생들에게는 훌륭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다.

김 교무처장은 4월 9일 오후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에서 열린 '제51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입재식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지도자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서 대한불교교사대학 교무처장으로 7년째 교육자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그녀이지만, 상을 받는 일에는 여전히 부끄럽기만 하다.

"시상식이 있기 며칠 전 포교원으로부터 소식을 받고 깜짝 놀라 내뱉은 첫마디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왜 그래요?'였어요. 제가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부끄러움과 긴장감이 섞인 오묘한 기분에 가슴이 두근거렸는데요. 막상 상을 받고 나니 앞으로 더욱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김상희 교무처장이 7년 전 대한불교교사대학의 교무처장으로 소임을 맡게 된 동기는 특별할 것이 없다. 스스로 성실한 삶을 살고 싶어 시작한 일이 어느 덧 지금에 이른 것이다.

평생을 고등학교 교사로 살아오던 중 남편의 직장일로 외국에 나가 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

그러나 귀국 후에도 여전히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 남았고, 독실한 불자가정에서 자란 탓에 불교계의 교육기관인 대한불교교사대학의 교무처장 제의를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내민 손을 덥석 잡았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절에 가곤 했습니다. 스님들이 예뻐해 주시며 사탕을 주시는 게 좋아서 자주 왕래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불자로 성장했지요.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지만 오래 전 경북 상주의 한 포교당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가르쳐 준 비구니스님인 정현 스님의 덕분에 불교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평생의 은사로 존경하고 꼭 찾아뵙고 싶은 마음에 전국방방곡곡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만 어렵네요."

그녀가 인생의 은사스님을 그리워하듯, 수 많은 청년불자들과 그 어머니들이 김상희 교무처장을 그리워하고 있다. 수년 전 김 교무처장이 지도한 어린이들이 훌쩍 자라 대학에 가고, 입영한다며 소식을 전해온다.

최근 김상희 교무처장은 어린이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마술교육 전문자격증'을 취득해 마술 공연 뿐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술교육으로 인성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중국 가면극인 '변검'을 배우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또 3월 20일 대한불교교사대학 부설 '여여선원 어린이청소년불교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추대돼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어린이불교회관'을 건립해, 천진불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받은 부처님의 은혜를 어린이와 청소년불자들을 양성하는 일로 회향하고 싶습니다." 박지원 기자

"일이 잘 안 풀리시죠?"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 구요?"
"평소엔 잘 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이유 없이 자꾸 아프시다 구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질 않는다 구요?"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 구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다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 구요?"


유남 탁대영 원장


창천 백구빈 원장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학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다.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성명학 교실 제자모집
<상담·문의전화>
1600-0063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토요일
11시 ~ 13시

자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 석가모니 부처님 /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킴이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미취학 및 초등학생 대상 학습 지도

광주 불교계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학습 지원사업을 펼친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4월부터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자녀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습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다문화가정아동 한글학습지원서

다문화가정 부모 부담 경감 위해 추진
차별없는 우리사회 구성원 성장 목표

비스는 한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1년간 1대 1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도 눈높이 교사들이 1년간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학습지원을 돕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부족해 아이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기 힘들어 취학 후에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번 학습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들의 한글 활용능력 향상을 도와 자신감 형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좋은세상(대표 김진희)과 함께 다문화가정 20가구를 선정해 1년간 1200만원을 후원한다.

2007년 설립된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불교외국인 단체로 다문화아카데미, 외국근로자 한국어, 문화교실, 체육대회, 우리음악페스티발, 법률상담, 한방무료진료, 불교문화체험, 템플스테이 등을 진행했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또 외국인근로자들의 편안한 쉼터를 지향한다. 광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제나 센터를 방문해 국내 생활에서 겪는 각 종 어려움을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 풀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 7월에는 형편이 어려워 고향을 찾지 못하는 광주 지역의 결혼 이주 여성과 남편 등 세 가족의 고향 방문을 추진했다. 이 행사는 50여 가족이 신청하는 등 결혼 이주 여성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광주 무각사 대웅전에서 스리랑카의 가장 큰 종파인 아스기리야 종의 종정 붓다라끼따 큰스님을 초청해 대법회를 갖는 등 광주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습지도를 지원한다.

불교 인프라가 전혀 없는 광산구에 설립된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이주성 센터장이 이끌어 가고 있다. 이 센터장은 광주지역 불교청년회의 대들보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도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했다.

이주성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장은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기회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다"라며, "이번 사업은 다문화자녀들이 큰 차별 없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으며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062)962-339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연에서 배우는 부처님 가르침

광주전남환경연대, 어린이생태학교 개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부설 광주전남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대표 무등)에서는 제6회 어린이생태학교를 개최한다.

전남 진도에서 4월 23일부터 열리는 이번 생태학교에서는 진돗개사업소 견학, 쌍계사 저녁공양, 108배, 진도아리랑 등 민요배우기, 등산로 트레킹, 진도해양생태관 관람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생태학교에서는 웰빙 간식이 제공되며, 아이들은 게임기나 음료수, 과자 등을 가져올 수 없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4월 9일에도 부안 월명암으로 제6회 생태문화기행을 다녀왔다. 전북 부안 내변산 일대의 월명암과 변산해수욕장을 찾은 이번 기행에는 법일 스님, 정범도 공동대표를 비롯해 3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월명암은 한국의 유마거사로 알려진 부설거사의 유훈이 서린 유서 깊은 고찰이다. 이 날 기행에 참가한 아이들은 월명암 정상에서 바라본 산자락의 멋스러움에 도시 생활에 지친 마음을 씻어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임수연 사무처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사찰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사찰에서 지내면서 불교와의 인연도 심어주고, 도심에서 벗어나 사찰 주변의 훌륭하고 다양한 자연생태환경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호국 장영사 수계 법회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가 임실 제6탄약창(창장 강재구 대령) 호국 장영사 불자장병에게 미륵십선계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4월 10일 이원일 사무국장의 사회로 금산사 방등계단에서 진행된 수계법회는 황병구 소령외 장교 10명과 김대환 상병(2중대)등 사병 160명 등 총 170명이 미륵십선계를 수지했다.

원행 스님은 장병들에게 미륵십선계를 설한 후 법문에서 "사회에 복귀해서도 항상 계를 염두에 두고 수행 정진하는 참 불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생명나눔, 환우 돕기 음악회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는 4월 9일 무등산 입구 문빈정사 앞에서 홍보가수 주권기씨를 비롯한 무등 예술단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길거리 음악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길거리 음악회에는 방송통신대 학생 20여 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헌혈은행, 백혈병 환우 모금을 진행했다.

한편, 광주생명나눔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 무등산 입구에서 시민을 위한 길거리 음악회와 생명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지역민과 화합하며 회향할 것"

마을 내 어려운 이웃 보살피는 정읍 보림사 보림불공회

예로부터 칠보영산으로 불리워 온 칠보산 중턱에 위치한 보림사는 서기 864년 (통일신라 경문왕4년)에 신라 구산선문의 하나인 장흥 가지산 보림사의 개산조 도의 국사의 법손 보조체증 선사(普照體澄 禪師)의 上足(수제자)인 청환법사(淸奐法師)에게 명해 창건됐다.

보림사에서는 신도들과 함께 '보림불공회'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어 마을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있다. 때마침 봉사준비로 바쁜 지성 스님과 석우 스님이 반갑게 맞이 했다.

"산골 마을 주민들은 도시보다도 의료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부족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은 절이지만 지역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회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보림불공회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2003년 11월 보림불공회를 처음 조직한 지성 스님의 회고다. 당시 주지였던 지성 스님은 1989년 부임 후 수행과 포교에 전념해오다 지역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겠다는 원력으로 운영위원 4명과 함께 1구좌당 1만원 정도의 작은 금액으로 보림공불회를 시작했다.

보림불공회와 보림사는 마을이장의 추천을 받아 14개 마을을 돌아가며 독거노인들에게 생활비 10만원과 생활필수품, 쌀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활동은 어느 새 9년째다.

현재는 현주지인 석우 스님과 지성 스님이 공동으로 불공회를 이끌고 있으며 회원들도 그 사이 70명으로 늘어났다. 매년 1500만원 이상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지 석우 스님(사진 좌)과 지성 스님

회향하고 있으며 그동안 집행한 금액만 해도 1억2000만원이 넘는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중고등학생 10명을 선정해 아무도 모르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2년경에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어르신들이 상당수 되는 것을 확인하고 한글학교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보림불공회기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로 석우 스님은 재정공개 등 투명한 운영을 꼽았다. 후원회 임원을 맡고 있는 시현보살, 보리행보살, 감로행 보살 등은 매년 6월과 12월 결산보고를 통해 재정 상태를 우편으로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끝으로 불자들에게 전해줄 말이 없냐고 묻자 지성·석우 두 스님은 이구동성으로 동체대비 사상의 실천을 강조했다.

"보림불공회의 정신은 부처님의 동체대비 사상 실천입니다. 신도들에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보살정신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조동종 종조 동산 양개 선사 다례제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도선사 총무원에서 조동종 종조 동산 양개 선사 다례재를 4월 10일 열었다. 이 날 행사에는 종정 지명 스님과 총무원장 덕우 스님 및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한편 조동종은 3월 26일~ 4월 1일까지 선상 용왕 고혼 천도 수륙재 및 성지순례를 봉행 했다. 이날 조동종은 천안함 사태와 일본 지진 피해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을 모금단체에 전달했다.

경남남부지사장 청운 스님

대구 봉축위원회, 동자승 단기출가

대구불교총연합회는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동자승 단기출가 행사를 4월 8일 팔공산 동화사에서 가졌다. 이 날 대구시내 5개 불교유치원 원아 8명이 삭발식과 수계식을 갖고 한 달 단기출가에 들어갔다. 동자승들은 봉축기간에 부처님오신 뜻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제20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역경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크신 분을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20회 행원문화상 수상신청을 받고자 공모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시 상 내 용	인원	상금
역경상	대장경을 비롯해 중요한 불교문헌을 현대어로 번역 하신 분	2명	각 5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신 분 (서화 부문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2. 시 상 일
2011년 9월 22일 목요일

3. 후보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본인신청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 1부
이 력 서(명함판사진 2매) ····· 1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최근 2년 이내 실적물) ····· 1부

4. 접수처 및 접수 방법
①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 사무국 (우 137-877)
② 접수 마감 : 2011년 6월 30일
③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 E-mail접수 : runner333kr@naver.com

5. 수상자 발표
2011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 ☎ 02)586-6521~2, fax 02)521-994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한국구술인물사 / 여 익 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③

춥고 배고팠던 불교계 운동권 대표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여익구는 당시 봉은사 부지 헐값 매각에 대한 불교계의 분노와 분규를 이용했다고 구술했다. 단순히 유신반대를 내걸고 학생운동 조직을 구성하기가 어려웠다. 불교계의 분노를 이용해 동국대 조직을 구성했고, 이 때 다수의 불교권 학생들이 참여했던 것이다.

여익구는 여러 라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고 학생들을 의식화시키기 위한 교재를 준비했다. 대학본부 쪽에서 등사기를 마련했다. 당시 불교학과 목정배 교수는 "뭘 하느냐"고 다그쳤지만, 그들은 층계 밑에 등사기와 유인물들을 감춰뒀다. 여익구와 이춘섭, 조명희, 이영희, 김태숙 등이 1974년 4월 3일 유신반대 데모 날짜를 잡고 준비했다. 드디어 D-DAY가 찾아왔다.

"그 인저 그걸 어차피 내가 그 뿌리기로 한 거니까 들고 인저 나왔어. 들고 나와 가지고 서울역에 나는 서울역에 가서 뿌리는 걸로 했던 거니까 응 근데 서울역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하하하]. 어떻게 용케 하여간 가가지고 있는데 그걸 도저히 어디다 뿌릴 데가 없더라구요. 화장실에 갖다가 처넣고 [하하하]. 알리고 뭐뭐 저거 할려고 그랬었는데 건 못하고, 인저 비겁하지만 그건 버렸어. 그러고 그 자리를 튀었지 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줄은 몰랐던 거야, 사실은. 그렇게 뭐 민청학련이라는 것을 들어 가다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조직해 놓은 거고 응. 그래가지고 뭐 이철이랑 녀석은 뭐 어마어마한 현상금 걸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수배를 해놓고, 그러다가 일주일인가 도망 다니다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당시 여익구는 이철을 만났어도 그가 주동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여익구는 1주일을 도망 다니다 검거됐다. 그는 자신이 검거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이태숙 학생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이것이 수사관들의 함정이었음을 유쾌하게 회고했다.

"좋아했던 거니깐 그 후에도 가끔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공무원이야. 공무원이었던 거 같애. 그 엄마가 그 딸이 그랬다는 걸 알고 완전히 새파랗게 질린 거여요. 그래가지고 딸을 족친거야. 딸을 족쳐서 "만나는 놈 대"라고 말이지. 그 딸이 얘길 안 한 거여요. 얘길 안하니까 뭔가 인저 "집안 망할 년" 어쩌고 그랬겠지 협박을 해가지고 이… 나중에 인저 만나는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나왔어. 나왔는데, 그냥 앉자마자 얼굴이 하얘지더니 저거 하는 거야. 눈물을 콱 쏟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잘못했어요" 그러더니 무너지더라고. 딱 보니까 경찰들이 딱 들어온 거지 [하하하]."

그 자리에서 여익구는 바로 검거돼 재판을 받는 과정과 함께 10개월 복역 후 이듬해 풀려난다. '민청학련' 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사 당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그는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출소했다. 졸지에 여익구는 운동권의 불교계 대표가 된 것이다. 유명인사가 됐다.

복역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것은 불교계의 관심이었다. 그것은 기독교계에서 관련 수감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과 비교됐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 및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조직적인 지원을 목격했다. 그에 비해 자신은 불교계의 대표라는 신념으로 무장한다. 이미 춥고 배고프며 고독한 투사의 여정을 시작되었다. 출소된 그 해 가을, 그는 또다시 민중불교회 사건으로 검거된다.

'화엄경문답' 저자는 지통

김 상 현 교수, 국제학술대회에서 밝혀



"〈화엄경문답〉은 의상의 강의를 제자 지통이 정리 한 것이 확실하다."

동국대 김상현 교수는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가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을 둘러싼 제(諸) 문제' 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현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서 〈화엄경문답〉은 〈추동기〉의 이본(異本)이며 저자가 법장이 아닌 의상의 제자 지통임을 확실한 근거를 들어 밝히고 〈화엄경문답〉이 중국이 아닌 신라의 문언임을 못 박았다.

금강대학교(총장 정병조)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 HK연구센터는 3월 25~26일 서울 관문사에서 '〈화엄경문답〉을 둘러싼 제(諸) 문제' 를 주제로 제5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중국 화엄종 제3조 법장 스님의 저술로 알려진 〈화엄경문답〉의 사상사적 · 문헌학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상헌 교수는 균여 저서 등에 인용돼있는 〈추동기〉일문과 〈화엄경문답〉을 대조함으로써 〈화엄경문답〉은 일서로 알고 있던 추동기의 이본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신이 대조한 바에 의하면 "〈추동기〉의 일문(逸文)은 〈화엄경문답〉과 거의 일치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6년 〈화엄경문답〉의 저자가 법장이 아닌 의상의 문답을 제자가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는 일본 고마자와 대학의 이시이코세이 교수는 〈화엄경문답〉의 '배자체불설' 에 대해 주목했다. 배자체불설이란, 단순히 자신 속에 존재하는 불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설이 아니라, 장래 자신이 이루게 되는 부처가 현재의 자기를 교화한다는 주장이다.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소 장진영 박사는 의상의 강의록으로 여겨지는 〈화엄경문답〉을 통해서 의상의 정토사상이 화엄사상에 바탕한 일승정토사상임을 밝혔다.

김천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은 의상계 문헌이 일본 화엄학 문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화엄경문답〉이라고 밝히고 이는 법장의 권위를 빌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술대회 첫날 △김상현 동국대 교수가 '〈화엄경문답〉의 연구현황과 과제' 를 주제로 기조발표 △이시이 코우세이 일본 고마자와대 교수가 '〈화엄경문답〉의 배자체불(拜自體佛)론' 을 주제 발표 △장진영 원불교사상연구소 연구원의 '〈화엄경문답〉에 나타난 일승정토사상(一乘淨土思想) 연구'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둘째 날 △김천학 불교문화연구소장이 '일본 화엄문헌에서의 〈화엄경문답〉 인용경향' 에 대해, △천용꺼(陳永革) 중국 절강성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부소장이 '〈화엄경문답〉과 법장의 했다. 이어 △요시저 요시히데 일본 고마자와대 교수가 '〈화엄경문답〉에서의 성기와 연기의 비교에 대하여' 를, △최연식 목포대 교수가 '〈화엄경문답〉의 삼승극과회심의 사상사적 의의' 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편,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관계자는 "한 · 중 · 일 3국이 모인 이번 학술대회는 〈화엄경문답〉에 그동안 제기된 저자 문제를 확정짓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법장의 저서 논란서 벗어나
의상의 제자 의통 저술로 확정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③

온 국민의 지지를 받던 불교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지 1700여 년이 흘렀다. 이 세월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행복을 찾고 안심입명(安心立命) 해 왔다. 불교가 탄압 받는 시기를 지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온 국민들의 귀의처로서 그 역할도 했다.

요즘은 어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한다고 하기에는 답이 망설여지는 현실이다. 지난 역사의 흐름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시대의 과제를 등진 종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문제에 사부대중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을 할 수 있어 희망을 조심스레 가져본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 372년에 불교가 국가적으로 공인돼 우리나라에 전래됐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보면374년에 아도(阿道)스님이 진(晋)나라에서 왔다. 375년 초문사(肖門寺)를 지어 머물게 하고,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지어 아도 스님을 머물게 했는데, 이것이 고구려불교의 시작이다.

백제는 침류왕 원년, 384년에 남중국 동진(東晋)에서 서역 출신 마라난타(摩羅難陀) 스님에 의해 다음해 수도 근처 한산(漢山)에 절을 건립하고 열 명을 출가시켜 거주하게 하여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해동고승전〉에는 인도 출신인 마라난타가 포교를 위해 중국을 거쳐 백제에 왔다는 고기(古記)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신라는 5세기 초부터 고구려를 통해 불교가 전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6세기 전반인 법흥왕15년(528)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차돈의 순교' 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용됐다.

불교가 수용된 이후 삼국에서는 불교의 사상이나 이론을 정치이념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또 삼국시대 각 나라에서는 많은 스님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다녀와 대중들을 교화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불교가 삼국시대에 정착되면서 부처님과 보살님에 대한 신앙도 널리 퍼졌고, 특히 미륵보살반가사유상에서 알 수 있듯이 미륵보살에 대한 신앙이 활발했다.

삼국시대의 불교가 왕실이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의 신앙이었다면, 통일신라에서는 지배층과 하층민까지 포함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신앙으로 발전됐다.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아미타신앙과 현세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기원하는 관음신앙이 형성되었다.

신라 후기 중국에 유학했던 법랑(法朗)스님이 중국 선종의 제4조인 도신(道信, 583~654)스님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선법을 최초로 전한다. 신수계통의 북종선으로 후대 중국선종의 주류가 된 남종선 이전의 선사상이었다. 신라에 남종선을 처음으로 전한 스님은 40여 년 중국 유학하고 헌덕왕 13년인 821년 귀국한 조계종의 종조(宗祖)인 도의선사였다.

고려를 개창한 왕건은 건국초부터 적극적인 숭불정책을 시행하였다. 왕건에서부터 시작된 숭불정책은 역대의 국왕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불교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발전할 수 있었다. 고려왕실의 불교에 대한 귀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역대 국왕들의 원찰과 진전(眞殿)사원들이다. 고려의 일년 행사중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가 불교적 의례인 연등회와 팔관회였는데, 이것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불교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2009년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된 대작 불화인 일본 경신사(가가미진사) 소장 고려 수월관음도(표구보함 전체높이 약 5.3m)가 생각난다.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고려 수월관음도는 전세계에 160여 점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10여 점뿐이며, 일본에 100여 점이상이 있다. 2010년 G20세계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예술품으로 고려불화가 선정되기도 했듯이, 고려불화는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귀중함을 확인시키기에 충분하다.



정도 스님(통도사 포교국장)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대 구 053-566-1116 울 산 052-260-1037
부 산 051-441-0111 경 남 055-932-5877 제 주 064-755-7588 전북익산 063-854-1060
지리산 063-635-5112 해운대 051-757-999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바른정법.바른인연 Ⅲ

아직도 말을 붙들고, 화두 붙들고 앉아 있습니까?
언제쯤 세상에 몸을 나투실겁니까?

우리는 얼마전 모방송사에서 방송되었던 이태석 신부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감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감동과 감응의 배경은 육적 (여섯 도적)을 가시밭길과 불구덩이에 머무는 바 없이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직자로써 실천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종교는 달라도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믿음도 가르침도 꼭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나 가르침은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실천하는 그 선봉에 성직자가 당연히 실천 수행하는 모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한답시고, 어려운 문자나 난해한 용어를 쓰는 것이 불교인양 비쳐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임을 불교를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절집은 세계 최대 부처님 조성에 경쟁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고,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절집을 키우고, 납골당을 짓고, 부처님 몸속 법당이니, 00신통도량이니, 00영험도량이니, 00쌀바위 도량이니 등등..... 불교의 주인공은 바로 '나' 라는 것에서 부터 닦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영험 신통 도량이라니..... 또, 법당안을 들여다 보면 큰 등은 무엇이며, 작은 등은 무엇인지..... 법당이라 함은 '법이 있는 집' 이란 뜻인데, 법에도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인등을 비롯해서 각종 등을 켜는 비용과 산으로, 바다로 방생을 한답시고 쓰이는 비용과 성지순례 한다고 국내외로 부처님을 찾아 여기저기 쫓아 다니지 말고, 그러한 막대한 비용으로 지금 우리 주위에 수술비가 없어서 병고로 사경을 헤매는 이들을 찾아 **'인간방생' 을 하심이 어떨는지.....** 그 베품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 절대 사찰 이름이나 얼굴을 알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타인이 알아주기 위해 하는 짓은 성인들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이러한 가르침의 바탕에는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직자가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중생을 이끌어야 합니다.**

백장회해 선사와 같이..... 그는 실천수행자로써의 삶을 사신 분이지, 앉아서 말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미 말에 빠져진 오래고, 말로는 불.조사를 뛰어 넘고 있지 않는가?

이 도리를 찾고, 저 도리를 찾고, 이 뭣고? (이 무엇인고?) 말고 무엇이 있는가?

요즈음 어느 개그 프로에 나오는 유행어를 인용하자면 '그럼, 쇠는 누가 키우나?'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 명호를 불철주야 불러보니 부처님 말씀이 들립디까? ..... 아니면, 보입디까? ..... **우리는 불보살님의 권능을 갖기 위해 실천적인 수행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도덕.바른생활을, 또 국민윤리를 공부한 기억이 다 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 이와 다른 바가 있던가? 다만 실천하지 않기에 어려웠을 뿐이다. 그럼, 왜 말로는 실천을 얘기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불합시다'. 다들 성불하셨나요?
성불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웃을 이익되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 바로 중생제도입니다. 성불은 중생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과정일 뿐이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 못하는 -- 그것은 방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가시밭길을 걸으신지 6년만에 성불하셨다고 하지요.
세상의 이치를 다 아심은 물론, 육신통을 얻고 나서 중생의 곁에서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다 가셨는데.....

자, 부처님은 6년 수도 끝에 여섯가지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납이, 법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몇통이나 얻었나요? 부처님과 조사가 남기고 가신 지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부처님 보다는 성불하는 시간이 빨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 제자들도 각각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함은 무엇인지.....

모든 가르침은 식, 답이 없다..... 앉아서 식, 답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행원보살로써..... 실천수행자로써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실천(행)에서 얻어지는 결과(증)인 것입니다.**

불.법.승.정법.실천도량
주 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 화 : 055)633-6555

연 등 사 (선재불교대학)
대 중 일 동

부처는 마음속에 있거늘 어찌하여 허송세월 하는가?

구국의 외침 역력한 해인사 홍제암

지금처럼 꽃이 만발한 봄날이었나 봅니다. 밤사이 폭우가 내려 뜰 앞에 피었던 꽃들이 모두 떨어진 것을 본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 1544~1610) 스님은 제자들을 모이게 하고 무상의 그림자를 타파하라고 이릅니다. 그리고 각자 인연을 따라 흩어져 공부 하라고 한 뒤 홀로 참선에 몰두합니다. 선실(禪室)에 들어가 가부좌를 맺고 묵언으로 정진하는 그 모습이 흙으로 빚은 인형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밀양에서 태어난 사명당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흙장난을 할 때도 불상과 탑을 조성했고 또래들과 밤을 주을 때는 아이들이 주은 밤을 모두 모았다가 다시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렵하는 사람이 자라를 잡은 것을 보고 주은 밤과 바꾸었는데, 그 거북을 물에 다시 놓아 주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뭔가 다른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살 때부터 글공부를 시작했고 열세 살 때 〈맹자〉를 배우다가 세속의 학문이 유한한 것임을 깨닫고 '무루학설(無漏學說)'을 배우고 출가를 결심합니다. 김천 황악산 직지사로 출가하여 신묵(信默) 스님의 제자가 된 사명당은 〈경덕전등록〉을 열람하다가 깊은 종지를 깨닫는 기연을 만납니다. 1561년(명종16)에 서울로 올라와 봉은사에서 열린 승과에 응하여 선과(禪科)에 합격한 스님은 당대의 쟁쟁한 유학자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해인사 홍제암 뒤 언덕에 자리잡은 사명당 부도


홍제암 부도밭 전경

사명당의 대기대용과 구국충절 소담한 부도에 응축
석장비 일본인이 파손 환경 스님 원력으로 다시 세워

고 남쪽으로 발길을 돌려 팔공산 청량산 태백산 등의 명산을 두루 순례했습니다.그렇게 멈춤이 없던 구도자의 행로는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구국의 횃불을 든 사명당의 활약상은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해인사 큰절 경내로 들어가기 전, 계곡 안쪽으로 100여 미터만 더 가면 왼쪽은 원당암 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용탑선원 가는 길입니다. 다리를 건너 곧장 가면 홍제암입니다. 홍제암에 당도하면, 가장 먼저 고즈넉이 서 있는 부도와 탑비가 보입니다. 왼쪽부터 석종형 부도 2기와 팔각당형 부도 1기, 탑형 부도 1기가 도열해 있고 몸돌이 열십(十)자로 깨진 것을 다시 이어 붙인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이 바로 사명 대사의 행장을 기록한 '사명 대사 석장비(石藏碑)'입니다. 행적을 돌에 새겨 저장해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옆에는 깨진 석장비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 세운 신비(新碑)가 있고 다시 3기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먼저 안내판을 읽어 봅니다.

해인사 사명 대사 부도 및 석장비
보물 제1301호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임진왜란 때 승장으로 나라를 지킨 사명 대사의 일대기를 기록한 비석과 사리를 봉안한 부도이다. 해인사의 부속암자인 홍제암 경내에 있다. 홍제암은 사명 대사가 1608년에 선조의 하사로 창건하여 말년까지 수도하다가 입적한 곳이다. 부도는 사명 대사가 입적한 1610년에 만들어졌고, 비석은 1612년에 건립되었다가 1943년에 일본인이 깨뜨린 것을 1958년에 복원한 것이다. 부도는 고려의 승탑(僧塔) 형식을 계승하여 3단의 연화대좌와 종모양의 탑신, 둔중한 지붕돌을 갖추고 있다.

간략한 설명이지만, 사명당의 부도와 비가 오늘까지 전해진 내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석장비는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허균(許筠 1569~1618)이 지었습니다. 비문의 뒷부분에 보면 허균 자신이 비문을 지은 인연에 대해 "비록 유가에 속하는 무리지만, 서로 형님 아우라고 호칭하는 친한 사이로 누구보다 스님을 깊이 알고 있다"고 적고 있으니 두 분의 친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균이 굳이 '누구보다 스님을 깊이 알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당이 왜란을 맞아 승군을 지휘하여 구국의 선봉에 선 일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과도 같은 나라의 현실을 외면하고 수행만 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중생이 있고 난 뒤에 부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문에서 혀균은 이렇게 밝힙니다.

"스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명 스님이 중생으로 하여금 미진(迷津)인 차안에서 피안으로 건네주는 일을 등한히 하고 구구(區區)하게 나라를 위하는 일에만 급급하였다고 비판하지만, 그들이 어찌 나라를 침범한 악마를 죽이고 국난을 구제하는 것이 곧 불교의 한량없는 공덕을 짓는 일임을 알 수 있겠는가? 유마 거사의 무언(無言)이 바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거늘, 어찌 요란스럽게 말로 훈도할 필요가 있으랴!"

고봉 스님(高峰 1900~1969)이 스승인 환경(幻鏡 1887~1983) 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새로 세운 '합천해인사 사명대사신건비문'에 당초의 석장비가 파손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미년(癸未年 1943)에 왜의 앞잡이가 사내(寺內)에 있는 한국인 벌레들과 함께 날뛰는 자와 통모하고 협력하여 비석을 때려 두 동강으로 파괴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묵은 한을 씻었다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곧바로 항복하고 물러갈 징조를 나타낸 것일 뿐, 진실로 우리들에게 무슨 손상을 끼쳤겠는가!"

1943년에 일본인들과 그 앞잡이들이 비석을 파손했고 2년 뒤 일본은 항복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2년 뒤 깨진 비를 대신하여 새로운 비를 세운 것이니 사명당이 몸소 보인 대기대용의 법력과 애국충절은 세월과 상관없이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홍제암 부도밭 위쪽 능선에 사명당의 부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소담스러운 석종형 부도에는 오직 중생의 도탄을 구하고 위기의 나라를 구하는데 일생을 바친 스님의 가풍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해인사 큰절과 용탑선원 원당암과 홍제암이 한 눈에 보이는 언덕에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명당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글=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18



수험도와 엔노 오즈노



일본 특유의 종교인 수험도는 대자연 속에서 한 무리를 이루며 우주의 기운을 받아 초월적 힘을 체득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런 수험도가 최근 일본 대중들에게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 수험도는 일종의 산악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 유교, 도교를 비롯한 외래 신앙과 전통적인 일본 신앙이 혼합된 형태를 보인다. 출가 교단의 형태보다는 재가자로 구성된 수행집단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수험도의 연원은 8세기 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림에 들어가 경문이나 다라니를 외어 기억력을 증진시키거나 주술 종교적인 활동을 한 재가 종교자들의 수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9세기 헤이안 시대에 정착하고, 천태와 진언의 밀교 승려 가운데에 가지기도(加持祈禱)에 능한 자를 수험자(修驗者)로 부르기도 했다. 이처럼 양대 종단의 성립과 함께 수험도는 종교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험도의 지도자는 야마부시(山伏)로 산에 숨어 수행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야마부시는 초자연적 힘을 체득해 주술을 행하기도 한다. 이들은 일종 일파에 매이지 않고 여러 산을 역방하므로 객승(客僧)이라고도 불린다. 한자의 산을 풀어서 세로의 삼획과 가로의 일획을 법신 · 보신 · 화신의 삼위일체로 풀이하고, 복자의 인(人)과 견(犬)의 두 자를 합쳐 무명법성불이(無明法性不二)를 뜻한다고 한다. 이 두 자에 의해 이들은 성불가능한 대일여래의 성품을 지녔다고 보고 있다.

수험도는 전형적인 일본의 신불습합 신앙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불교의 여래 · 보살 · 명왕을 신으로 모시고 있다. 그러나 신도가 행하는 제사나 축문 등은 이용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일본 '신불습합' 신앙
자연 귀소본능 불교적 심성 부활

야마부시는 복장의 착용이 특이하다. 삼베옷 위에 가사를 걸쳐 입고 머리에는 두건을 두르고 허리에는 소라, 다리에는 각반을 차는 등 12가지 도구를 몸에 걸친다. 이 도구들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야마부시는 석장을 짚고 짚신을 신은 채 바위산을 자유자재로 건너뛰며, 위험을 무릅쓰고 천애의 암벽등반을 하기도 한다. 전국의 영산으로 알려진 곳, 특히 나라현의 요시노산, 와카야마현의 쿠마노산, 이시카와현의 하쿠산, 후쿠오카의 히코산 등은 이들의 주무대이다. 산을 우주 전체로 보고 밀교의 만다라에 비유하기도 하며,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영축산에 비유하기도 한다. 〈다음에 계속〉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자성(自省)과 쇄신(刷新)의 나눔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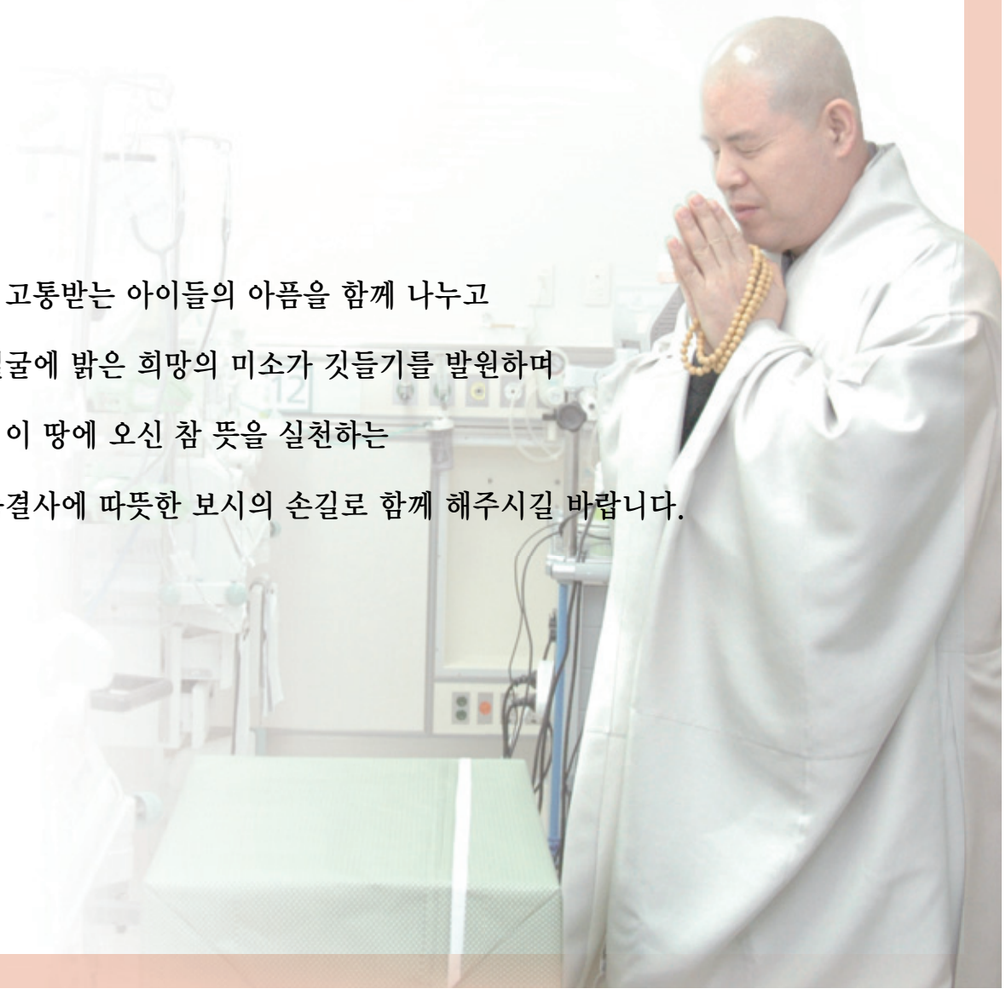
제11회 난치병 어린이지원
3000배 철야정진

일 시 | 불기 2555(2011). 4. 23(토) 오후 6:50 ~ 4. 24(일) 오전 4:00
장 소 | 서울 조계사, 고창 선운사, 부산 홍법사 외

108배_10,800원 / 1500배_ 15,000원 / 3000배_ 30,000원 / 자유기금
후원계좌 | 국민 006001-04-229831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당일현장모금진행

문 의 | 02-723-5101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단법인 이름다운동행 불교방송 불교TV
후 원 | 조계사, 마곡사, 선운사, 중앙승가대, 부산 전법도량, 다음카페 수미산, 종무원조합 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의 얼굴에 밝은 희망의 미소가 깃들기를 발원하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실천하는
거룩한 나눔결사에 따뜻한 보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끼는 수제자 위빠사나 한다해도 격려해 주겠다

고우 스님





간화선 수행자 고우 스님과 위빠사나 수행자 파욱 스님이 만났다. 간화선과 위빠사나 국제연찬회가 4월 8~10일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전통불교문화원(본부장 혜오)과 조계사 선림원(원장 토진)이 개최한 연찬회에서는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연찬회는 8일 파욱 스님과 9일 고우 스님의 법문과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에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깨달음의 사회화'에 대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찬회는 두 수행자를 통해 북방불교와 남방불교,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다.

고우 스님은 〈금강경〉 〈서장〉 등의 대승경전과 선어록, 중국 조사의 일화 중심으로 법문을 펼쳤다. 스님은 또 수행에 대해서도 "복잡하게 공부할 것 없다"며 화두참구에 매달릴 것을 주문하고, 견성의 지름길은 간화선임을 강조했다. 고우 스님은 첫 날 진행된 파욱 스님의 법문은 물론, 참가자들의 질문과 응답 시간에도 끝까지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위빠사나 수행도 여러 수행 중에 하나이고 수승한 법이다. 간화선 유일주의를 표방하거나 위빠사나 수행이 부처님 원음에 가깝다는 우월감을 갖는다면 진정한 불교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아끼던 제자가 위빠사나 수행을 하겠다며 떠난다고 해도 스님은 "방법은 다르고 지향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격려해 줄 것"이라며 위빠사나 수행을 100% 인정하는 통 큰 자세를 보여줬다. 법문 중에는 자살 · 정치인의 비리 · 전쟁 · 가정생활 · 개인 사업 등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모습에서 대승불교의 특징을 엿볼 수 있었다.

#"간화선 진리에 도달하는 길 가운데 하나일 뿐"

부처님 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간화선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간화선은 그 방법 중에 하나이고 전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생활 속에 선을 수용해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나와 너라는 상대적이고 한정된 생각과 사고를 합니다. 한정된 세계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면 싸우기도 하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 모두 상대적이고 한정된 사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고 속에서는 절대 행복해 질 수 없음을 인정해야 부처님 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이고 유한한 세계에서 사고하면서 행복해지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복을 위해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이고 한정된 사고 속에서는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변해야 합니다.

밖으로 행복을 찾고 조건을 구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행복해진다면 왜 부처님이 출가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밖에서 행복을 찾았지만 역기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추구는 하되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로 마음을 바꾸면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역기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에 우열을 따지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발견한 사회이고 공정한 사회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상대적이고 유한한 세계에서 절대적이고 무한한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생활 떠난 불교는 없다

생활을 떠나서 무슨 불교가 있겠습니까. 선종(禪宗)에서는 일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평상심(平常心)이라고 합니다. 평상심이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개인의 고뇌에서 벗어나 카스트 제도에 의해 핍박받는 중생들을 보고 제도의 모순된 점을 봤습니다. 출가한 동기 자체가 중생들의 생활에 있습니다.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개인은 물론, 사회, 국가 간에도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합니다. 특히 스님들은 사회와 중생의 행복을 위해 평생 목숨을 바쳐 수행해야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출가한 것입니다.

불교를 전 세계에 포교하는 것도 불교의 사회화입니다. 지혜의 눈을 뜨게 해서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삶은 살도록 하고, 사회도 그렇게 되도록 할 때 전쟁 갈등 없이 평화적인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대상이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그들이 지혜의 눈으로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물론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고위공직의 자리가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도 사회화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러할 때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의 발전도 역기능 없이 이뤄집니다.

고위 공직자가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공직자 개인에 의해 사회가 잘못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직업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고,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지혜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불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세속적으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반성해야합니다.

#위빠사나와 간화선 목표점은 같다

초기불교가 서쪽에서 오르는 것이라면 대승불교는 동쪽에서 오르는 것입니다. 목표점은 같습니다. 서쪽은 평탄하면서 길이 길고, 동쪽 길은 짧지만 굉장히 경사진 길입니다. 서쪽 길은 손 붙일 때도, 발 붙일 때도 있습니다. 짧은 길 힘들게 가는 것과 평탄한 길을 안전하게 가는 차이입니다. 짧은 길을 힘들게 가는 것과 평탄한 길을 안전하게 가는 차이입니다. 동쪽 길은 돌아설 수도 없고, 발을 옮길 수 없는 공간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는 너와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다른 생각과 피부, 이데올로기, 종교가 융합합니다.

위빠사나 수행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간화선이 절대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이고 유한한 세계에 갇힌 것입니다. 입으로는 선(禪)을 이야기 하면서 마음은 갇힌 깨달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과 위빠사나 모두 평등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듯 좋아하는 수행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선이라는 음식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음식을 열심히 먹을 뿐이에요. 염불, 봉사 보살행도 그것이 맞는 분은 하면 됩니다. 위빠사나라는 음식이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것을 먹으면 됩니다.

우열을 따지면 선도 모르고 위빠사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우열이나 차별 없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세계로 바꾸고, 소통 하고 갈등 대립 전쟁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본뜻을 또 모르고 비난하고 차별한다면 부처님의 겉만 보고 내용물을 보지도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사고로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사고의 전환을 이루길 바랍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여래를 본다고 했습니다. 본래 존재하기를 다 완성된 존재입니다. 너 안에 있는 보물창고는 놔두고 왜 밖으로 찾아다니느냐 하는 것,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이 대승불교의 특징입니다. 본래 부처인지 모르는 것은 상대적이고 분별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기(緣起)와 법(法), 여래(如來)는 하나입니다.

#화두는 수수께끼가 아니다

화두공안은 수수께끼와는 다릅니다. 수수께끼는 상대적이고 유한한 세계에서도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두는 유한하고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절대 해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화두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세계에 가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화두는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으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못 깨달으니 차선책으로 의심해서 풀어가는 것을 간화선이라고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두 타파가 안 되더라도 중간 중간 많은 변화가 옵니다. 가슴으로 느낌으로 오든 어떤 형태로든 사람마다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이상언 기자

고우 스님은…

1937년 성주에서 탄생, 1961년 청암사 수도암 법희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관응 스님으로부터 〈기신론〉을, 고봉 스님으로부터 〈금강경〉을, 흔해 스님으로부터 〈원각경〉을 수학했다. 묘관음사 선원에서 첫 안거를 한 이후 봉암사, 축서사, 김용사, 용주사 등의 제방선원에서 평생을 참선수행으로 일관했다. 1968년 구산선문과 봉암사 결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선원을 재건해 조계종 종립특별선원의 기틀을 다졌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봉화 각화사 태백선원 선원장을 역임했다.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했다. 지금은 봉화 문수산 금봉암에 주석하며 간화선의 대중화와 생활화에 힘쓰고 있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자동차 운적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수행자는 다투지 않는다





파욱 스님

파욱 스님은 "간화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며 간화선과 위빠사나에 대한 비교는 하지 않았다. 대신 "빨리 경전에 따르면 지혜를 꿰뚫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인 수행이 요구된다고 했다. 부처님은 개구리가 깡충 뛰는 것처럼 깨달음을 한꺼번에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깨달음은 점진적인 수행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파욱 스님은 법문을 시작 할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해 말하겠다"고 밝히고 빨리경전의 내용을 설명했다. 〈아함경〉 등 초기 경전에 나온 부처님 당시 제자들과의 대화나 부처님 전생담 등을 인용하고, 단계별 수행의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했다. 단순하고 역설적이거나 직설적인 한국 선불교에 익숙한 몇몇 참가자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수행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도 필요하다면 정치운동까지 해야한다는 고우 스님과는 달리 "수행자는 다툼에 끼어 들 수 없기 때문에 자비희사하는 길 밖에 없다. 잘못된 생계나 사회와의 부적절한 연관에도 참여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세상을 위해 부처님의 길, 곧은 길, 옳은 길, 적합한 길을 수행하고, 비구는 재가자에게 계정혜 삼학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불식의 계를 엄격히 지키고 있는 파욱 스님을 위해서 10일 고우 스님과 만남의 자리는 서둘러 마무리 됐다.

#고통의 소멸

"비구여, 이전에도 지금도 나는 지금 오직 고통과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만 설하였노라."

이것이 부처님이 명상을 가르치신 까닭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빨리 경전에 따르면 고통을 물질, 느낌, 인식, 행, 식으로 오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고통의 소멸은 오온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오온이 무상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것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 사라집니다. 그것이 고통의 소멸입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다음 생에 새로운 오온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소멸은 오온이 일어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오온이 일어나지 않음은 오직 깨달음에 의해서, 열반을 성취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깨달음은 4가지의 단계 예류(豫流), 일래(一來), 불환(不還), 아라한(阿羅漢) 도와 과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위빠사나가 없으면 깨달음도 열반도 없습니다. 수시마 비구에게 이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수시마여 , 먼저 현상의 지속에 대한 지혜가 있고, 다음 열반의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는 통찰지입니다. 현상의 지속은 세간 현상의 지속성을 뜻합니다. 어떤 현상이 세간의 현상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형성된 것, 유위법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열반은 유일한 무위법입니다. 다른 모든 현상은 형성된 것이며 유위법입니다. 현상이 형성됐다는 것은 그것이 무상하며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원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현상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의 본래적인 사라짐의 성질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라집니다.

모든 다른 현상은 세간의 것이며 형성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현상의 지속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오직 세간에 형성된 현상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통찰지, 즉 위빠사나 지혜의 대상입니다. 현상의 지속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원인 때문입니다. 남김없는 사라짐에 대한 지혜는 그것들의 지속적인 일어남이 사라지는 것을 알 때 일어납니다. 지속적인 사라짐은 그것들의 본질적인 무상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지혜를 기반으로 우리는 무상의 본성, 고통의 본성, 무아의 3가지 특성을 관(觀)해야 합니다.

세간의 현상에 대한 위빠사나를 수행함으로써 출세간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것을 대상으로 취합니다. 그 대상은 열반이 형성되지 않은 유위법입니다.

부처님은 "비구여, 번뇌의 소멸은 오직 아는 자, 보는 자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번뇌의 소멸은 알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상의 지속에 대한 지혜 즉 물질 · 느낌 · 인식 · 행 · 식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번뇌의 소멸은 아라한과의 지혜에 해당합니다. 아라한의 도의 지혜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오온을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합니다. 아라한이 죽을 때에는 더 이상 오온의 생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고통의 소멸입니다.

'아는 자, 보는 자'

'아는 자' 는 수행자의 지혜를 말합니다. '보는 자' 는 지혜의 눈으로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직접적이고 스스로에 의해서 일어나야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知)와 견(見)은 통찰지, 위빠사나 지입니다. 현상의 지속성으로 오온의 원인과 그것의 사라짐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몸과 물질이고 4대 요소임을 이해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온 것으로 이해하고, 쌀밥과 푸딩과 카레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것은 또한 무상하며 분해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나의 식(識)이 달려있습니다.

통찰지는 궁극적인 실재를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몸, 어버지, 어머니, 쌀밥 푸딩 카레 등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용어들은 개념들일 뿐입니다.

개념은 위빠사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을 구성하는 물질의 원인과 소멸을 직접적인 지혜로 알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손을 보고 물질이 무상하며 연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손을 바라보는 것은 개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개념은 궁극적인 실재가 아니라 인식적인 실재입니다. 우리는 인식적인 실재를 대상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보아야 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빠사나 명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초월해, 물질적이지 않은 지혜의 눈으로 궁극적인 실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통찰지를 이해하기 위해 위빠사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오온, 12처, 12연기, 18계 등으로 나눠 위빠사나를 설명했습니다. 위빠사나는 수많은 분류를 물질과 정신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무더기(色蘊)는 지수화풍 4대 요소와 24가지의 파생물질로 구성 돼 있습니다. 세간의 정신은 욕계, 색계, 무색계 마음이 81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 마음 하나에 마음의 작용인 52가지의 심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위빠사나는 2가지의 명상의 주제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명상의 주제는 물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 명상의 주제는 물질이 아닌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명상의 주제를 개발하게 되면 물질과 정신을 식별하는 지혜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빨리 경전에 의하면 물질은 원자보다 작은 입자로 이뤄져 있습니다. 빨리어로 루파 칼라빠, 짧게 줄여 깔라빠라고 불립니다. 루빠는 물질을 의미하고 깔라빠는 더미로 이뤄져 있습니다. 깔라빠는 지혜의 눈, 지혜의 빛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깔라빠는 궁극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깔라빠는 궁극적인 물질로 이뤄져 있습니다. 궁극적인 실재는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4대 요소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24가지의 파생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생물질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것들이 오직 4대 요소에 의존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4가지 요소는 지수화풍 입니다. 모든 깔라빠는 4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고통과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의 몸을 자아로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자아, 영혼, 영원한 마음, 원래적인 마음과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모두 똑같은 무명입니다. 모든 현상이 무아라는 사실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만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궁극적인 물질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4대 명상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까시나 수행을 통해서든 4대 명상을 통해서든 아나빠나 사티를 통해서든 4대 명상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수행한다면, 원자보다 작은 깔라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깔라빠 안의 궁극적인 물질을 볼 수 있습니다.

4대 요소는 그것들의 특징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빨리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12가지 특성에 따라서 묘사했습니다. 12가지 특성은 △땅의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물의 유동성, 응집성 △불의 따뜻함, 차가움 △바람의 지탱함, 움직임입니다. 12가지의 특성을 몸 전체에서 아주 빠르게 볼 수 있게 되면,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대에 집중하다보면 자신의 몸이 반투명으로 얼음덩어리처럼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얼음덩어리처럼 빛나는 몸 안에서 공간의 요소를 찾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공간의 요소는 깔라빠의 경계입니다. 깔라빠의 경계를 보면 깔라빠도 볼 수 있습니다. 깔라빠를 보게 되면 깔라빠 각각을 분석해서 식별해서 봐야 합니다. 각각의 깔라빠를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최소한 8가지의 요소 지 · 수 · 화 · 풍 · 색 · 향 · 미 ·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궁극적인 물질입니다. 이와 같이 궁극적 물질을 식별하게 된 이후에는 궁극적 정신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자가 물질과 정신에 궁극적 물질과 정신을 안팎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다음에는 그 원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연기입니다. 무위법인 열반을 제외한 삼계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상카라의 특징은 일어나고 사라지며 그것들의 곧 무상의 본성입니다. 상카라는 유위법이며 그것이 위빠사나의 대상입니다. 상카라는 언제나 일어남과 사라짐에 의해 압박을 받고 곧 고통의 본성을 갖습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것이나 실체가 있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무아의 본성을 갖습니다. 무상 · 고 · 무아의 본성을 보는 것을 위빠사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체계적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해서 그것이 성숙해 지면 도와 과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도와 과의 지혜는 열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궁극적 물질과 정신을 고성제라고 말합니다. 그것의 원인을 집성제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열반입니다. 도성제는 열반에 이르게 하는 고귀한 진리입니다. 4가지의 도와 과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라한과를 증득하면 사성제를 꿰뚫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라한 도의 지혜를 얻게 되면 모든 번뇌와 오염원을 소멸합니다. 번뇌가 모두 소멸했기 때문에 어떤 선한 업이나 불선한 업도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을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오온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고통의 끝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소멸을 위해서 사마따 위빠사나 수행을 합니다. **이상언 기자**

파욱 스님은…

1934년 미얀마에서 탄생, 1944년 출가 후 10년 동안 여러 스승 밑에서 빨리어 경전을 공부, 1954년 비구계 수지, 1956년 다마차리야 시험(불교 빨리 연구의 학사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이 시험에 통과하면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주어짐) 통과, 8년 동안 미얀마 전역에서 스승들로부터 불법을 배움, 1964년부터 20여 년간 숲속 안거, 1981년 파욱 선원 선원장이 됐으며 현재는 파욱 선원 조실로 있다.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ION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혜은 부회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대표전화번호 : 733-5665, 011-229-6061

헛것인 줄 알았으면 곧 떠나라 ✎ 헛것을 떠나면 그것이 곧 해탈이다 ✎

– 원각경 –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 래 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순일 금강경 교실

부처님께서 금강경, 반야심경 및 초기불교경전을 통해 전해 주고자 하셨던 심오한 가르침의 정수를 한역본과 빨리어, 산스끄리뜨어 원문을 비교 분석하여 쉽고 상세하게 풀어 펼쳐주시는 순일 스님의 깨달음 교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포교당 4월 23일 오전 11시 개강

매주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1~12시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4 더샵 스타파크 A-309

부산순일선원 5월 6일 저녁 8시 개강

매주 첫째, 셋째 금요일 저녁 8~9시 30분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47-2 2층
문의 070-4129-4127

*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은 수강료 5만원(산스끄리뜨어 교재비포함)을 농협:351-0184-5321-83(순일선원)으로 입금하신 후 070-7779-77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모집]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oonil.org]를 참조하세요'

사단법인 soonil.org
순일선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166-3 T. 070-7779-7711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 선문염송 17권 〉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 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불조정맥 중,영,한 3개국어판 ! 절찬 판매중
* 화 두 영,중,한 3개국어판 !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 원 선 원 사**

☎ 0502-337-0108/ 0502-338-0108 www.seonwonsa.kr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주)현대에너텍 2011년 최신형

농협융자지정업체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瑩普珥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 · 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쐬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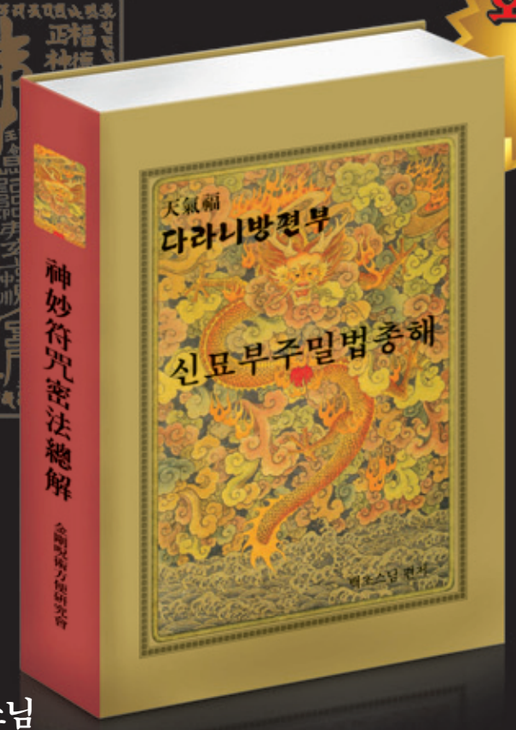
• 판매원 : **마 하 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 www.다영보이.kr

天氣福

화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0〉

눈 뜬 장님으로 헤매겠는가

질문을 했다.
"외국의 사신들이 속속 조정에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사람을 만나도 부르면 안 되네."

問 萬國來朝時如何
師云 逢人不得喚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명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재물을 재물이라고 부르지 말고 직위를 직위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다. 재물이라는 명자에 집착하지 말고 직위라는 명자에도 집착하지 말고 미인을 보아도 미인에 집착하지 말고, 이 외에 갖가지 명칭들이 다가 와도 그것을 입에 올려 부르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허상에 집착하면서 정치를 하고 중생을 교화한다면 큰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재물과 명예, 그리고 여색, 이 세 가지를 평소에 습관적으로 자주 입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결국 낭패를 보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하루 종일 어떻게 도태(淘汰: 씻어냄)하면 좋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하(奈河)의 물은 흐리고 서쪽의 물은 급히 흘러간다."
학승 말했다.
"문수보살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 눈 뜬 장님아! 어디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問 十二時中如何淘汰
師云 柰河水濁西水流急
云 還得見文殊也無
師云 者矇瞳漢 什麼處去來

나하(奈河)는 지옥에 있는 강을 말한다. 지옥으로 가는 도중에 빠르고 느리고 중간 정도 되는 삼도천(三途川)이 있다. 삼도천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강물이고 이 강을 따라 가다가 강물이 모이는 곳이 바로 나하이고 지옥이다. 지옥은 죄를 진 중생이 가는 곳이니까 당연히 물도 탁수이다.

서쪽은 죽음을 상징한다. 서쪽으로 흐르는 물이 급하다고 말한 것은 죽음은 순식간에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지옥에 가면 결국 탁해지고, 죽음은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인데 어찌 그런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보내는가하고 나무라고 있는 것이다.

성공한 지위를 지키고 싶거든
재물·명예 등 입에 올리지 말라

그렇다. 그런 헛된 것에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대 자신은 본래 청정이요, 본래 구족(具足)이고 본래 부처이고 본래 보살이다. 이것을 깨달으라. 이것을 안다면 어찌 눈 뜬 장님으로 헤매고 있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도량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는 도량에서 와서 도량으로 가는 거야. 이 도량을 벗어나서 다시 어디가 도량인가."

問 如何是道場
師云 你從道場來 你從道場去 脫體是道場 何處更不是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정(定)하지 말라 했다. '나는 스님이다' '나는 선객이다' '이렇게 산 속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 진짜 도량이다' '도시에서 사는 중생은 때 묻고 더럽다' '바람피운 사람은 불결하다' '나는 비구(比丘)이므로 청결하다' '너는 가난하고 천한 자이다' '나는 부하고 귀한 자이다' '너는 중생이고 나는 부처이다' 등 이렇게 생각을 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정하는 것이 중생의 가장 큰 병이라 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우주가 이미 빈 허공중에서 허망하게 생겨난 것인데, 허망한 마음이 세운 가치가 어찌 헛되지 않을까 보냐. 정함이 없으면 현재 이곳이 곧 불국토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선어록 해제 40 한국선과 선어록 11 나옹화상어록(懶翁和尙語錄)

생사 해탈했다면 가는 곳 알아야

나옹혜근(1320~1376)은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던 1320년 정월 보름에 태어났다. 속성은 아(牙) 씨로 아버지는 아서구(牙瑞具)이고 어머니는 정(鄭) 씨이다. 휘는 혜근(惠勤)이고, 호는 나옹(懶翁)이며, 본래 이름은 원혜(元惠)이다. 20세 요연(了然) 스님에게 출가했다. 25세 때 양주 회암사에서 깨쳤다. 28세 때 원나라에 가서 지공대사를 참문하고, 31세에 평산처림을 참문하고 깨침을 인가받았다. 39세에 귀국하고, 지공대사의 영골을 회암사에 모셨다. 광명사에서 공부선(工夫選)을 주관하고, 이후 왕사가 되어 수선사 및 회암사에 주석했다. 1376년에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했다. 나옹혜근과 관련한 책으로는 〈나옹화상어록〉 및 〈나옹화상가송〉 등이 전한다.

〈나옹화상어록〉은 나옹혜근의 법어로서 한국불교전서의 저본은 각련(覺璉)이 집록한 서울대 소장본(홍무 10년)인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창룡(蒼龍) 기미년(1379) 8월 16일에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의 서문.
● 지정(至正) 23년(1363) 가을 7월에 백문보 화보(白文寶 和父)의 서문
● 문인 각굉(覺宏)이 쓴 행장
● 이색이 찬술한 탑명
● 법어 및 기타

나옹혜근의 소참·상당·해제·결제 법어 등 수록
공부십절목(工夫十節目) 통해 10가지 수행관문 제시

〈나옹어록〉에 수록된 글은 상당법어를 비롯해 소참법어, 결제 및 해제법문, 보설, 삼구법문, 수어, 서간, 영가착어, 대어, 감변 등 다양하다.

법어 가운데 [입문삼구(入門三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입문삼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 당문삼구(當門三句)는 무엇인가, 또 문리삼구(門裏三句)는 무엇인가." 입문삼구는 이미 부모를 인연해 세상에 태어났고, 스승을 의지해 불문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자신의 정진으로 깨침을 터득하기 위한 화두를 참구하고 있는 등 갖가지 자신에게 부여된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그와 같은 가르침을 터득해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고, 문리삼구는 순수한 제일구에 속하는 것들로서 불향상사(佛向上事)를 가리킨다. 가령 아직 본래지(本來地)에 도달하지 못해 갖가지로 분별하는 모습, 이미 본래지에 도착해 거기에 주착하는 모습, 본래지에 도달했지만 거기에 초연한 모습 등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삼전어(三轉語)는 다음과 같다. "산은 끝없이 이어지다가 어째서 봉우리 끝에서 그치는가. 물은 가없이 흐르다가 어째서 개울이 되어 멈추는가. 밥은 어째서 흰 쌀로 지어야 하는가." 제일전어의 산은 영원한 깨침의 속성을 지칭한 것으로 법신을 가리키고, 제이전어의 물은 끝없는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는 지혜를 해명하는 반야이며, 제삼전어의 밥은 각자 생사를 초월하는 반야의 체험과 그 해탈이다. 때문에 이 도리를 묻고 있는 나옹은 자신의 경지를 빗대어 그것으로 일상의 납자를 제접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공부선에서 시험문제로 제시한 열 가지 항목은 [공부십절목(工夫十節目)]에 잘 드러나 있다. [공부십절목]은 화두공부에서 참구해야 할 대상을 선리를 동원해 제시한 것으로 나옹의 간화선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참구하는 사람들은 [공부십절목]에 제시된 열 가지 화두를 반드시 해결해야 시험에 통과한다는 것이다. 그 열 가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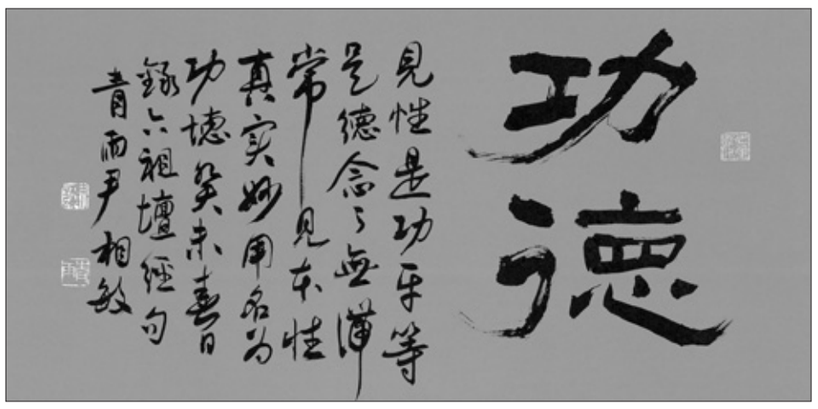
첫째는 시방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색을 보고도 색을 초월하지 못하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소리를 초월하지 못하는데 그 도리를 알아차리라는 것이다. 둘째는 이미 색과 소리를 초월했다면 공능을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공능을 보여야 하는가. 셋째는 이미 공능을 보였다면 공능에 익숙해야 하는데 어떻게 익숙해야 하는가. 넷째는 이미 공능에 익숙해졌다면 그 공능마저 잊어야 하는데 어떻게 공능을 잊어야 하는가. 다섯째는 이미 공능을 잊었다면 감정이 냉담해 마치 목석과 같고 온전히 몰자미하고 기력이 없어져서 분별의식이 미치지 못한다. 그리하여 심의식이 작용하지 못하고 또한 허깨비의 몸으로 인간세계에 살고 있는 줄도 모르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하는 때는 과연 어떤 시절이던가. 여섯째는 이미 공부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해서는 동정(動靜)에도 따로 분별이 없고 오매(寤寐)에도 늘 똑같으며 온갖 경계를 대하더라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일체를 놓쳐버려도 전혀 상실한 것이 없다. 그래서 마치 어리석은 강아지가 뜨거운 기름 사탕을 함부로 집어삼킨 것처럼 핥아먹을래야 핥아먹을 수도 없고 또 내뱉을래야 내뱉을 수도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일곱째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의 온 몸뚱아리를 완전히 탈락한 것처럼 졸지에 의단을 해결했을 경우에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자성인가. 여덟째는 이미 본래자성을 깨우쳤다면 모름지기 자성의 본래작용과 수연의 응연작용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자성의 본래작용이고 수연의 응연작용인가. 아홉째는 이미 자성의 본래작용과 수연의 응연작용을 알아차렸다면 반드시 생사를 해탈해야 한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러서 어떻게 생사를 해탈할 것인가. 열째는 이미 생사를 해탈했다면 모름지기 가는 곳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몸뚱아리는 각자 흩어져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⑧ 육조단경

생각 생각에 막힘 없어야



功德 見性是功平等 是德念念無滯 常見本性 眞實妙用名爲 功德 (공덕 견성시공평등 시덕염염무체 상견본성 진실묘용명위 공덕)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이 덕이니 생각 생각에 막힘이 없어서 항상 본성의 진실한 묘용을 보는 것을 이름하여 공덕이라 하느니라.

功: 공 공
等: 무리 등
滯: 막힐 체
妙: 묘할 묘
德: 덕 덕

청	록	공	진	상
우	육	덕	실	견
윤	조	계	묘	본
상	단	미	용	성
민	경	춘	명	무
	구	일	위	체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 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1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상운 스님

2.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승려, 전법사, 포교사, 재가불자등 종단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함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소에서 교부)
7. 접 수 처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18-2546, 팩스 054)97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여자가 성불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성불하지 못한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해 주 스님



종교와 젠더연구소(소장 옥복연)는 매월 비구니 스님을 만나 현대 여성들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를 듣는다. 불교여성리더의 역할모델을 찾아 비구니로서 교단에 최초로 선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해주 스님과 첫 만남을 가졌다. 만남에는 종교와젠더연구소 옥복연 소장, 연구원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전나미 불교상담대학원 교수, 이희숙 서울여대 강사가 함께했다. 인터뷰는 4월 2일 동국대 교수회관 해주(海住)스님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Q 불교여성학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다니면서 승가학과(선학과 전신) 조교를 했을 때 학과장 스님이 새로운 과목 개설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죠. 여성학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불교여성학을 건의 드렸는데, 아무튼 2년 후 불교여성학이 승가학과 2학년 과목으로 개설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불교여성학은 생소한 과목이었습니다. 학과에서 담당자를 물색했는데 쉽게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과장 스님이 막 박사과정을 수료한 저에게 제안하셔서 불교여성학 강의를 처음 맡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1986년 이었는데 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그때까지 비구니 스님이 동국대학 강단에 한 번도 선 적이 없었다) 사부대중 학생들은 진지하고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도 아닌 과목에 스님이 뛰어들게 된 것은 스님의 전공인 화엄학과의 관계가 깊다. 〈화엄경(華嚴經)〉에는 남녀 차별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을뿐더러 여성에게 자비와 청정, 중생을 수순(隨順)하는 덕이 수승해 생불(生佛)하는 특징적인 장점까지 부각시키고 있음을 해주 스님은 주목해 왔다. 무엇보다 〈화엄경〉에는 선재(善財) 동자가 만난 선지식을 통해 부처님의 평등세계를 보살행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 보살행을 추구하는 선재가 역참한 53선지식중 21명이 여성 선지식이다. 스님은 여성 선지식의 비율은 물론 해탈 경계로도 남녀 불평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음에 주목했다.

Q 불교가 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셨는지요.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만인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떠나라" 라고 전도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만인의 안락 속에 여성이 절반입니다.

부처님은 카스트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태어날 때 종성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귀하고 천함은 그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業)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층민인 수드라(sudra,首陀羅)도 법 앞에서 바라문과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교단에 여성을 출가시켜서 비구니가 되도록 함으로써 평등세계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자도 출가해서 수행을 하면 깨달아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Q 불교전래 이후 여성성불 불가론을 내세워 깨침을 얻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가 하면, 비구니팔경계(比丘尼八敬戒)로 비구니와 여성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기도 했습니다. 비구니팔경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리사적으로는 그 문제가 2000년 전에 이미 해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여성 남성 출가자들의 목표는 성불이 아니라 아라한과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라한과는 비구 · 비구니 모두 증득한 기록이 있습니다. 석존의 어머니 마야부인(摩耶夫人)의 동생인 마하파사파제 비구니만 해도 아라한과를 증득했거든요.

수행자가 성불한다는 것은 대승불교의 구경과입니다. 만약 여성이 성불하지 못한다고 전제한다면 부파교단에서는 모든 스님들이 성불을 못합니다. 성불할 뜻이 없기 때문이죠.

대승불교 흥기 전후로 여성의 지위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경전을 살펴보면 2600년 불교사 중 약 100~200년 정도 여성불성불의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승불교 경전에 그 문제는 이미 해결돼 있습니다. 물론 〈화엄경〉에도 그 답이 다 있습니다. 〈화엄경〉을 일불승(一佛乘) 즉 일승경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든 수행이 성불로 가는 길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성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성불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성불하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공(空)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보이는 천녀와 사리불의 대화 속에서도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대승불교가 시작될 때 이미 이런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몸은 남녀가 있지만 불성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어지이다(一切衆生皆共成佛道)" 라고 발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몸은 남녀가 있지만 불성에는 남녀가 없다
> 남녀 구분 없이 자기 일에 당당한 '프로' 돼야
> 재가여성운동 제안 '우리모두 다 함께'

Q 현실적으로 남녀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자 몸으로는 안 되고 다음 생에 남자 몸을 받아 출가를 하고, 성불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여성의 성불불가론이나 깨달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교단이나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남녀가 더불어 어디까지 역할분담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Q 1999년도 종단에 비구니원, 비구니 총림에 대한 요구를 했다. 그 주장이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교단내 차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림을 세우고 비구니원으로 종단의 4원 체제를 이루는 방안은 비구니의 수행과 교육, 포교에 효율화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제안했습니다.

Q 종헌종법상의 비구니의 위치 등을 비롯해 교단 안팎으로 성차별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원리적이거나 부처님의 교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문제해결은 우리들 스스로 자기가 맡은 일을 프로답게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비구니 후배 스님들에게도 사자후를 하는 사자새끼가 되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스님은 수행을 프로답게, 전업주부는 살림을 프로답게 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힘을 키우지 않고 뛰어들었을 때는 이웃은 물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하다가 장애물이 생기거나 지치면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여자다' 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면 여자로서 주어진 일 외에는 하나도 하기 힘듭니다. 당당해지세요. 보살로서 자리이타행을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저는 모든 여성들에게 제3의 눈, 정안(正眼)을 가지라고 합니다. 제3의 눈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눈이고, 활동분야에서 전문적인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Q 최근 조계종단은 자성 쇄신 결사가 진행 중인 5대 결사 중에 여성과 관련한 주제, 성 평등, 교육에 대한 주제가 많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개인적으로건 조직적으로건 이런 목소리를 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뜻을 모아 모두를 위해 진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라는 보살정신의 실천에 다함께 힘을 합해야겠습니다. 조계종은 비구 · 비구니가 똑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또 교육하는 사람도 교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교육조건에서 역할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자세의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은
법화경 사경 및 독송!



행복을 부르는 법화경 사경 (한글·한문)
혜조 역 | 사륙배판 | 전7권 | 전체 1,760쪽 | 65,000원

우리말 법화경 사경
혜조 역 | 사륙배판 | 전5권 | 전체 940쪽 | 40,000원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혜조 역 | 국판양장 | 630쪽 | 18,000원

INDIA
한권으로 만나는 인도

불교가 탄생한 나라,
한권으로 정리된 인도 이해의 길잡이!
인류 정신문명의 요람, 종교와 신화의 보물창고,
방대하고 복잡한 역사를 가진 인도 사회에 대한
간결하고 핵심적인 안내서!



이병욱 지음 | 신국판 | 310쪽 | 값 13,000원

지관좌선법을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힌
모든 수행자들의 교과서!

천태대사의 『수습지관좌선법요』를 알기
쉬운 현대어로 번역하고, 상세한 주를
덧붙여 원문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천태소지관



"불교는 수행을 통해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방법이며, 그 방법은 지와 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를 닦으려는 자는 반드시 지관을 수행해야 한다!"

천태 지자대사 저 | 윤현로 역주 | 국판양장 | 276쪽 | 값 1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사자후를 하는 사자새끼 돼라


(왼쪽부터) 전나미 불교상담대학원 교수, 이희숙 서울여대 강사,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문제이거나, 해결해야 할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만약 여러 면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일의 진행이 어렵다면 동기와 방편에 문제가 없는지 부처님의 근본정신에 비춰봐야 겠지요.

Q 스님의 자리와 역할이 크게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의 역할과 비구니 스님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비구니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활동영역이 꽤 넓어졌다고 봅니다.

(해주 스님은 1999년 '한국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쓴 종교교육학연구 제8권 논문에서 종헌종법상에 나타나는 권리제한이나 차등적 조항을 지적했다. 비구니의 참정권이나 교단 내 비구니의 지위가 거의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며 비구니 역할론을 대두시켰다.)

Q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세계 빈곤인구, 인권침해 등 여전히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입니다. 소외계층에 밝은 빛이 가지 않고는 '우리 모두 다함께'라는 불교정신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큰 틀로 이야기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세밀한 부분에서 부딪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교방편을 찾는데 더 한층 노력해야 되겠지요.

Q 기복적이고 성차별적인 모습이 불교계에 여전합니다. 일반 사회 도덕보다 뒤떨어진 모습을 볼 때 실망스럽습니다.

출·재가나 종교적, 여성학적인 것을 떠나 생각해 보십시오. 틀에 가두거나 나누지 않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품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장점,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으로 끌어안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Q 여성 불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주의와 불교신앙이 부딪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일이라면 같이 가야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보살로서 당당해지세요. 불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불교신행의 기반이 튼튼한 재가여성운동이 필요합니다.

대승보살운동도 부처님의 평등정신을 공으로 펼쳐 보인 것입니다. 불교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방편을 개발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살도를 펼쳐야 불국토가 이뤄집니다.

바꿔 말씀드린다면,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님과 다르지 않음을 철저히 믿고 그 본래모습대로 살기 위해 발보리심한 여성보살이 돼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몸으로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심고 나누는 여성선지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해 주 스님은...

1972년 호거산 운문사 입산 성관 스님을 은사로 반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 수지. 1977년 동학사승가대학 대교과 졸업. 1978년 통도사에서 월하희중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 수지. 1982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1984년 동국대학교 문학석사 취득. 1987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과정 수료

1990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학위 취득. 1994~1996년 동국대학교 비구니 수행원(혜광사) 사감(겸 주지). 1994~2002년 대한불교조계종 제11대 제12대 중앙종회 종회의원 역임.

1994~2001년 대한불교 조계종 교재편찬위원회 위원. 1997년 Center for of World Religions, Harvard University, U.S.A Senior Fellow. 1997~2002년 대한불교조계종 기초교육개혁 위원. 2000~2004년 불교학연구회 초대. 제2대 회장. 2003~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감사. 2005~2008년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역경위원회 위원 역임.

1990~2011년 현재 수미정사 주지 및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중앙승가학원 법인이사 맡고 있다. 저서로는 〈화엄의 세계〉 〈의상화엄사상사연구〉 〈불교교리 강좌〉 등 다수 있다.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상락아정

삶의 진미 고섶에 두고 헤매고 있는가
안락… 우주·자연·생명의 소리안에

지난 주말 오랜만에 지방에 갈 일이 있었다. 상춘(常春)의 의미를 맘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느 결에 생명 있는 것들은 이제 차렵저고리를 고이 접어두고 대지 위에 아금받아 자리 잡고 각기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봄은 눈을 즐겁게 하는 계절인가 보다. 산천에는 물감을 뿌려 놓은 듯 꽃이 만개했다. 아니 눈만 즐겁게 하느냐고 섭섭해 할 까봐 귀를 즐겁게 하기도 한다. 새들의 노래 소리다. 저 소리는 가히 천상의 소리요,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화음이기도 하다. 도회지에서 길을 걷거나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맞는 문뱃내는 더욱 아니다. 그렇다고 값비싼 화장품의 코를 찌르는 듯한 향수도 아니다. 자연의 향기, 이는 분명 코를 즐겁게 한다. 또한 육신의 근육을 단련하고자 훠이훠이 산을 오르는 숨결에서 신체의 강건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즐거움을 느낄까. 절기 때라 유행 따라 갈아입는 새 옷에서 순간의 즐거움을 느끼듯이 느끼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해답을 제시한 부처님 말씀이 있다.

부처님이 입멸에 즈음해 설한 경전이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이다. 경 권2에서 상락아정이란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상(常)이란 상주불변 한다는 뜻이다. 열반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멸이나 변화가 없는 덕을 구비함을 나타낸 것이다. nitya라 하여 '본래적'이고 '영속적'이란 말이다.

낙(樂)은 안락이란 말이다. 생멸이나 변화가 없는 세계에는 생사를 만나는 고도 없고 적정무위한 안락의 덕을 구비한 것이다. Sukha라 하여 '행복하고 순조롭다'는 말이다.

아(我)란 진아를 말한다. 진아는 망집의 나를 떠난 무애자재한 본성의 덕을 구비하고 있다. aham 이라하며 ah '말하다', '표현하다'이고 aha는 '확실하게', '분명하게'라는 뜻이 된다. ah와 am을 합해보면 '내가 말하는데 있어서 …'의 의미를 지닌다. '자아'이고 '우주적인 대아'를 말한다.

정(淨)은 청정하다는 뜻이다. 즉 번뇌망상의 더러움을 멸각한 청정무구의 덕을 구비한 것이다. subha라 하여 상서로운 성수(星宿)를 말한다. 우리말로 미리내이다. 아마 은하계에는 작은 티끌하나 없는 모양이다.

다수의 독자들은 〈대반열반경〉을 '대반 열반경'이라고 떼어 읽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 반열반경'이라고 읽어야 바르게 읽는 게 된다. 왜냐하면 반열반이란 말이 있기 때문이다. 반열반을 pari-nirvāṇa라고 한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완전히 끄다'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윤회의 완전한 정지'를 나타낸 말이기도 하다.

인도의 전통 바라문에서는 절대적인 실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영혼아'라고 하고 있다. 이 영혼아가 천지우주를 만들었으며 자기 마음 가운데 있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모두 인간이 제 멋대로 추정하여 생각한 존재이다. 이러한 고정된 사고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부처님은 삼법인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제행무상 · 제법무아 · 일체개고이다.

안이비설신의가 각각의 대상을 만나면 뿔뿔이 자기 장단에 맞추어 놀아난다. 대상은 사물일 수도 있고 절기일 수도 있고 사유작용에서 나타나는 가지가지의 형상일 수도 있다. 마음이 쉴 수 있는 곳, 마음이 안락을 얻을 수 있는 절묘한 방안은 상락아정의 바른 증득에서 이다. 항상 꽃피는 봄이 있고 열락(悅樂)의 새들이 노래하는 곳은 바로 발밑에도 있고 손끝에도 있다. 혹시 우리는 삶의 진미를 바로 고섶에 두고 힘겹게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자신을 외경(外境)의 경매시장에 내놓고 헐값에 팔아넘기고 살지 않는가. 외경에 지배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없는가. 마음작용은 무한대로 방심을 허용한다. 아마 마음같이 방대한 작용도 드문 듯하다. 항상 챙기고 추스르는 작용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내 망심의 노예가 되고 만다. 아침 햇살이 좁은 꿰방 사이를 헤집고 들듯이 망심을 투과시켜야 한다.

꽃망울이 터지는 소리를 들어 본다. 태고의 소리도 아니요 나의 숨결도 아닌 그렇다고 당신의 숨결도 아니다. 우주의 소리다. 자연의 소리다. 엄마 품을 나온 햇병아리가 낯선 햇살을 쪼아대고 있는 소리 또한 우주의 소리다. 생명의 소리다.

자연은 절대로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불변의 법칙을 확인한 주말의 여정이었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WORLD BUDDHIST SANGHA COUNCIL
CERTIFICATE OF
ORGANIZATIONAL MEMBERSHIP
世界佛教僧伽會團體會員證
大韓佛教曹溪宗 淨山法師
大韓民國慶尚南道梁山市周津洞656
2010/08/20 OM-0119
PRESIDENT

종 정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정사서 : 석윤오, 박선혜화)

원로회회장 석홍섭 대종사
승 정 원 장 석원정 대종사
총무원장직대 석혜오
사 정 원 장 석현종 대종사

원로부회장 석무공 대종사
종 회 의 장 석법일 대종사
호 법 원 장 석원명 대종사
포 교 원 장 석혜운 대종사

총 무 부 장 석능현
포 교 부 장 석혜통

호 법 부 장 석대연
부 원 장 석운오

교 무 부 장 석성오
행 사 부 장 석명오

부 원 장 석대명
1 국 장 석대덕

원로부회장 석만월 대종사
기 획 원 장 석법상 종사
감 찰 원 장 석다우 종사
범패교육원장 석무겸 대종사

감 찰 국 장 석법진

재 무 부 장 석도현
의 전 부 장 석근홍

호 계 원 장 석월오 대종사
문 화 원 장 석지명 대종사

문 화 부 장 석혜주

부 원 장 석법오
2 국 장 석해인

〈교구종무원〉
부산종무원 석정은
창원종무원 석범일
김해종무원 석청해
진주종무원 석덕오
거제종무원 석덕운
전북종무원 석설산
대구종무원 석청명
마산종무원 석법경

〈비 구 니 원〉
원로회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혜안 석혜문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중앙위원회〉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심행)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전국신도회총무 김나연(혜정화)
종립예술위원장 조영선(무혜심)

◈ 입 종 안 내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범음범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사오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찰이미지 200% UP! 法果 법과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



법과활용(Application)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한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문의
TEL 02)2004-8216
FAX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제3회 한국·대만 불교문화교류 현장 ①

"한국불교 미래, 대만불교에서 찾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4월 1~6일 대만 타이페이와 가오슝, 화이렌에서 제3회 한국 · 대만 불교문화교류를 실시했다.

이번 한국 · 대만 불교문화교류는 삼륜종 총무원장 진봉 스님이 단장을, 천태종 감사원 용문 스님이 부단장을 맡았다. 행사에는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지종 산하기관 실무자들을 비롯해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 LOTUSCOOP, 반갑다연우야 등 교계 활동가 29명이 참가했다.

불교문화교류단은 1일 타이페이 시내의 자제공덕회 환경보호센터, 2일 타이페이 근교 진산(金山)의 법고산사(法鼓山寺), 3일 화이렌(華蓮)의 자제공덕회(慈濟供德會), 4·5일 대만 남부 까오슝(高雄)의 불광산사(佛光山寺) 등을 견학하고 대만불교문화를 체험했다.

본지는 불교문화교류 동행취재를 통해 대만불교의 특징을 찾아보고,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짚는다. 대만불교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제공덕회 △법고산사 △불광산사의 각 특색을 연재한다. **노덕현 기자**



불광산사에서 불교문화교류단과 불광산사 교육생들이 함께 연등을 만들며 우애를 다졌다.

대만은 중국 남쪽에 담배입사귀 모양으로 자리해 있다. 국토면적은 3만 6000㎢로 한국의 경상도 크기와 비슷하지만 인구는 2200여 만명에 달한다. 대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지배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식민시대 이후 한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다. 이에 한국과 대만은 경제발전 정도와 기술력이 비슷해 세계 선진국들은 한국과 대만을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밖에 유교와 불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인 요소도 비슷하다. 하지만 한국은 광복 후 기독교가 자리하면서 기독교가 인구와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지만 대만에서 기독교인은 약 소수에 불과하다.

대만도 국민당 정부 초기에는 기독교의 활동이 왕성하지만 현재는 약 5% 정도만이 기독교인이며 불교 · 유교 · 도교의 혼합이 93%에 이른다. 불교계의 노력으로 기독교인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은 매우 흥미롭다.

현재 대만 인구 중 불자는 75%이며 그 중 오계(五戒)를 받은 불자가 800만 명에 이른다. 전국에 사찰이 4000여 곳이 있으며, 스님은 9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대만 국민 대부분이 불자라 볼 수 있다.

대만불교 종파보다 각 사찰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불광산사, 자제공덕회, 법고산사 중태선사, 법고산사 등은 대만 각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또 해외 각지에 분원을 설치해 불법홍포하는 식으로 사찰 중심 불교의 특징을 갖는다.

대만은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과 인구의 절반도 미치지 않지만 불교계 활동영역과 영향력 측면에서는 대국이다. 불교방송이 5개 채널에 이르며 불교 행사에는 정부수반을 비롯한 불자 수백만 명이 운집할 정도로 사회에서 불교의 영향력은 날로 확장 · 발전되고 있다.

#승속 떠난 능력 위주 활동

대만불교에서 한국불교는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 첫째는 사부대중의 고른 역량 발휘다. 특히 비구니 스님들이 수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에

> 지계 의식 생활화
>
> 출재가 상호 견제 보안

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불교계에서 비구와 비구니의 비율은 2:3 정도다. 자제공덕회는 비구니 증엄(證嚴) 스님이 창건했으며, 불광산사는 각 별원의 주지를 비롯해 본사의 예불집전 및 각종 지도 등을 비구니 스님들이 맡고 있다.



불광산사 심정 스님과의 좌담회

대표성을 갖는 직책은 비구 스님들이 맡지만 사찰 주지 등 실무직은 대부분 비구니 스님들이 맡고 있다. 이는 법랍 위주가 아닌 능력에 따라 직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또 출 · 재가자가 상호 보완하는 구조로 재가자의 활발한 참여가 눈에 띈다. 대만불교는 중국불교가 대만에 자리 잡으며 출가자와 재가자들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다. 단 출가자는 재정 관리에 일체 개입하지 않으며 재가자가 모두 담당함으로써 재정의 투명화와 철저한 계행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광산사 종정인 성운(星雲)스님의 최초 제자 5명도 재가자로 스님의 일을 돕다가 출가한 경우다. 초대 제자 중 한 명은 현재도 유발 상좌에 해당하는 사고(師姑)라는 직책으로 사찰 재정관리를 맡고 있다. 이처럼 대만불교에서는 재가자의 위상이 전반적으로 높다.

증엄 스님의 자제공덕회도 30명 주부와 함께 시작됐다. 지금도 자제공덕회에서는 시설 안내, 손님 접대 등은 재가자의 자원봉사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자원봉사가 자제공덕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원동력이 된다. 또 재가자들의 활동력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가자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특징이다.



타이페이 자제공덕회 환경보호센터

#철저한 지계, 불교를 사회리더로

둘째는 계율을 철저히 지킨다는 점이다. 출가자는 물론이고, 재가자의 육식 금지 등 불자라면 누구나 계

> '선 교육 후 득도'
>
> 함께 공부하며 발심 출가

율을 지켜야 한다는 엄격한 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지계(持戒) 의식은 먹는데서 쉽게 느낄 수 있다. 스님들은 오신채 등을 먹지 않으며, 스님들이 육류와 술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찰로 시민들이 신고를 하는 등 재가자와 출가자가 견제의 역할을 한다.



타이페이 불광산사 법당의 참선체험

오계를 수계한 불자들은 육식과 음주를 철저하게 금하는 것을 사회적 덕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치인과 같은 공인들은 공식 자리에서 수계를 받아 육식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한다.

이런 지계의식은 대만의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채식 뷔페에서 드러난다. 일반 식당에서도 채식을 메뉴를 넣고 있을 정도의 수요가 있다. 또 굳이 육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채식 식단이 발달해 있으며 자연스럽게 채식이 선호되고 있다. 이처럼 불자들의 철저한 지계 청정정신으로 대만에서 불교도에 대한 신뢰는 자연히 높다.

불교문화교류에 동참한 용문 스님은 "대만불교에서 불자들이 계율을 꼭 지켜야 할 덕목으로 여기고 실천하는 부분을 한국불교가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문화 사업으로 사회영향력 배가

셋째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문화사업 등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의 출가는 '선 교육, 후 득도' 체제 하에 이뤄진다. 불학원 혹은 불학총림, 불학연구소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출가 희망자는 출가에 앞서 재가자와 함께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2~6년 과정으로 졸업생은 출가자가 되거나, 재가수행자로서 사회에 나가게 된다. 불광산사 관계자는 "출가자를 앞둔 이들과 재가자 사이에 배움의 과정에서 미묘한 선의의 경쟁관계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출가를 전제조건으로 입학해 공부하는 법고산사 외에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재가자 신분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이가 많다. 그리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출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가를 앞둔 이들과 함께 공부하다 출가하는 비율이 높다. 불광산사 불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출가하는 재가불자가 80~90%에 달한다. 또 불교계에 종사하고 싶은 재가불자들은 방송이나 신문 발행, 통번역, 포교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관은 전 세계에 퍼져 있다. 불광산사는 16개국에서 불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 교육시설도 마련하고 있다.

일반인을 위한 사회교육 사업도 활발해 대만불교계는 초 · 중 · 고는 물론 일반대학을 설립해 사회 교육사업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자제공덕회가 운영하는 의과대학은 세계 4대 골수수술 병원인 자제병원의 의료진을 배출하며 대만을 대표하는 의과대학으로 손꼽힌다.

방송과 문서를 통한 교육에도 앞장서 대만의 언론을 선도하고 있다. 불광산사, 자제공덕회를 비롯한 5개 사찰은 각 케이블TV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언론 매체에서는 24시간 스님들의 법문, 불교관련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또 일간지를 비롯한 각종 정기간행물과 수 백 종의 불교 서적을 발행하고 있다. 이런 불교기관의 전문요원은 불학원 졸업자들이 맡아 재가자들의 불교학교 입학열기는 대만에서 높은 편이다.





사랑과 연민으로 세상을 보는 법

보 경 스님, '한 권으로 읽는 법화경' 출간



〈법화경〉 '방편품'에는 "최고의 법을 설할 때가 됐다. 그것을 위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 지금 여기서 최고의 깨달음을 설해야 겠다"는 부처님 말씀이 담겨있을 만큼, 〈법화경〉은 경전의 왕으로 불리며 많은 불자들에게 독송돼 왔다.

〈법화경〉이 최근 글 잘 쓰는 스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보경 스님(서울 법련사 주지)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됐다. 〈법화경〉은 신앙적인 내용과 더불어 수려한 문장으로 유명하다. 어려운 교리도 별반 없고, 종교문헌으로 지니는 관념적인 내용도 적다. 대중적이다. 여기에 보경 스님의 유쾌하면서도 술술 넘어가는 글이 더해져 초보 불자들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법화경〉이 출간됐다.

중생은 구하는 바가 많기에 항상 고통스럽고 괴로워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생들은 종교의 힘에 의지하는데, 보편적으로 타력신앙이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법화경〉은 일체의 모든 만물을 부처로 보기 때문에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세상 보는 법을 알려준다.

〈법화경〉은 중생을 성불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다양한 근기에 맞춰 방편을 이용해 설한다. 여러 방편으로 설하다보니 설법에 논리가 결여된 듯 보이지만 결국 '중생을 부처로 이끈다'는 목표를 둔다. 보경 스님 역시 경전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명했다. 이슬람의 성자인 알 하지 만수르가 돌에 맞아 죽은 이야기, 지진으로 탄광이 무너져 땅속에서 8년을 버티고 구조된 중국의 할아버지 이야기, 성경, 공자, 노자 등 다양한 예화들을 바탕으로 〈법화경〉의 여러 방편들이 독자들의 마음 속 깊이 파고들게 한다.

이런 책의 구성은 누구나 쉽게 한눈에 이해할 수 있어, 〈법화경〉 경전읽기를 지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전강의 컨닝페이퍼'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보경 스님이 경전을 강의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각 품의 구성을 꼼꼼히 정리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현재 포교당으로 있는 절에서 신도들을 위해 경전강의 준비로 여러 책을 뒤적였지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찾는 게 힘들어, 직접 경전강의를 위한 강의 노트를 만들었다. 이를 시발점으로 자신만의 '법화경 강의 노하우'를 그대로 책을 통해 옮겨 놓았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마음을 깨닫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참선, 간경(看經), 염불을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전의 제목을 외우면 경전 전체를 한 번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이 생긴다는 믿음이 있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경전이다. 보경 스님은 책을 통해 "〈법화경〉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법화경〉과의 만남은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수많은 공덕을 쌓았기에 가능한 귀한 인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어려운 한자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때문에 경전공부를 미뤄왔다면, 보경 스님의 〈한 권으로 읽는 법화경〉을 통해 〈법화경〉을 쉽게 마스터할 수 있다.

한 권으로 읽는 법화경 | 보경 지음 | 민족사 | 2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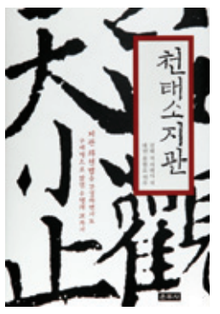
이은정 기자



묘경 스님

불교 수행의 핵심 일목요연하게 기술

천태지의의 불교수행의 교과서 '천태소지관'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교에 관한 수행을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한다. 예로부터 불교수행은 '지관(止觀)'이란 두 글자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불교수행은 선정과 지혜의 증득에 달렸는데, 그 증득하는 법이 바로 지관이기 때문이다.

책은 불교수행의 핵심인 지관수행법에 대해 천태지의가 자신의 지관수행 체험에 근거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밝혀놓은 책이다.

천태지의는 원효 대사가 "선정과 지혜에 모두 통달해 범부는 물론 성인조차도 알 수 없는 분"이라고 칭찬했을 정도로 수행이 깊은 스님이다. 〈천태소지관〉은 저술된 지 1400여 년이나 흘렀지만 불교수행의 기본 원리를 말하고 있다. 비록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불교수행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다.

'수습지관좌선법요' '동몽지관' 등 〈천태소지관〉은 선종에서 중시해 온 좌선수행 방법들을 자세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오랫동안 선종에서 좌선수행의 길잡이 역할을 해오며 불교수행의 기본 교과서가 됐다.

책은 모두 10장으로 구성돼있고, 좌선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준비과정과 좌선 시에 지관을 닦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지관을 닦는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불교의 핵심 교리들을 수행과 연관지어 수행과 교리가 둘이 아닌 불가분의 관계를 함께 밝히고 있다.

천태소지관 | 천태지자 대사 지음 | 윤현로 역주 | 운주사 | 1만30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 6~4. 12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3	붓다의 치명적 농담	한형조	문학동네
4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5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6	초기불교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7	한권으로 만나는 인도	이병욱	너울북
8	붓도, 위빠싸나	아잔차	솔바람
9	백일법문(상)	성철	장경각
10	왕초보 반야심경박사 되다	김명우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마음챙김은 셀프 심리치료다"

덕성여대 심리학과 김정호 교수의 '마음챙김 명상 멘토링'



최근 KBS·MBC 등을 통해 명상이 우리 몸과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는지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면서 명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명상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저자인 덕성여대 심리학과 김정호 교수는 "마음의 병이 곧 몸의 병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이 의학계에 증명되면서, 마음챙김이 의료현장에서도 질병 치료의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연유로 최근에 명상이 사람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주대 병원, 서울성모병원 같은 주요 대형병원에서는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의 질병을 다스리는 치료역할을 하고 있다. 가톨릭 의과대학 외래교수이자 영남대 명예교수인 장현갑 씨는 2007년 '한국형 마음챙김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그는 마음챙김 명상을 8주 이상 수련해 두통, 요통 등의 만성 통증의 개선과 우울증, 공황 장애, 전립선암, 유방암 등에 면역수치가 높아지고 심리적 우울증세가 호전됐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명상은 마치 특정인들만 할 법한 신비주의적 행위거나 이는 명상 중에서도 '집중명상'에 해당된다. 책에서 다루는 '마음챙김 명상'은 집중명상을 하듯 대상에 주의를 주고 마음을 내려놓으면서도 5%든, 10%든 약간의 주의를 남겨 그 명상을 하고 있는 나를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예로 호흡을 할 때, 숨을 들고 나는 감각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호흡명상을 하고 있음을 바라본다.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호흡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가슴이 쿵쾅거리면 '가슴이 쿵쾅 거리는구나'라고 알아채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된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이러면 안돼!' '얼굴이 빨개지면 창피한데' 등의 평가를 하면 마음챙김 명상이 아니다. 즉, 마음챙김이란 '나를 경청하기'다.

김정호 교수는 "우리들이 평소 마음의 잣대를 들이대며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보통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는 경청을 통해 마음의 잣대를 걷어내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김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밖에서 온다고 믿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스트레스도 밖의 조건과 내 안의 마음이 서로 만나야 생긴다"며 "나를 경청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의 병이 해결된다. 마음챙김은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셀프 심리치료다"라고 말했다.



2005년 마곡사 템플스테이

김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명상을 지도해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책은 그간의 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쉽고 체계적인 마음챙김 명상 수행법을 소개하고 있다.

김정호 교수는 "마음챙김 명상은 영화 '매트릭스'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진짜 나'라고 믿으며 살기 때문이다"라며 "마음챙김 명상은 마음의 매트릭스 밖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영화 속 '네오'가 매트릭스 밖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듯, 마음 바깥에서 마음을 바라볼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마음챙김 명상 멘토링 | 김정호 지음 | 불광출판사 | 1만5000원 **이은정 기자**

〈기획 PR〉

휘림건강의 건강제안

가정에서 언제나 물 없는 휘나핫 반신욕 온열로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신욕이 일상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 OK!!



환절기 알레르기성 만성질환인 비염은 흔히들 불치병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주)휘림건강의 강봉대 대표는 '휘나핫 단식 온열경영'으로 비염도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유인즉, 사람은 몸의 냉기로 인하여 병이 생긴다고 한다. 그 병이 생기는 원인을 먼저 알고 식습관을 바꾸면서 휘나핫 단식 온열경영으로 몸의 온도를 올려준다면 면역력이 증진되어 혈액이 따뜻해지고 어혈이 풀리며 혈액순환이 잘되어 만성질환도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만성질환은 재발하기 때문에 매일 하루 40분 정도 땀을 빼고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물을 먹어야 하고, 탄산음료, 인스탄트, 유제품을 먹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DNA가 3~4대에 걸쳐 우리 후손에게 영향을 준다. 좋은 것만 먹고 현재 먹는량에서 3분의2 정도 줄인다면 후성유전학이 많은 발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다.

후성유전학이란.. 유전은 DNA상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해 지배되는데 유전자는 염색체에 있는 DNA가 복제되어 전달된다. 그런데 DNA의 염기 서열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유전자의 조절에 변화가 생기고, 이것이 대물림 되기도 한다.



△ 휘나핫 반신욕기

강봉대 대표는 먼저 만성질환이 생기는 원인을 차단하고 치료를 해야 하며 우리 인체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자가 면역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발병하는 만성질환은 많이 먹고, 몸이 차서 냉증으로 발생되는 것이며, 이를 차단하고 휘나핫 단식 온열경영과 삼백초발효효소 복용을 병행하면 만성질환과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휘나핫에서는 온열 단식요법을 권장하고 있는데, 방법으로는 매일 저녁 8시에 식사 내지 과일 등을 먹으면 다음날 8시까지 따뜻한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휘나핫 단식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휘나핫 단식경영으로 하루한번씩 40분정도 각자 체질에 맞게 따뜻한 삼백초차를 마시면서 땀을 쏙빼고, 단식을 할 때는 하루 동안 음식물을 먹지말고 삼백초발효효소와 따뜻한 삼백초차만 마신다. 시장기가 있을 때마다 따뜻한 삼백초차를 마시면 시장기가 없어진다. 단식 후에는 바로 식사를 해도 따뜻한 온열단식이기 때문에 아무런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강대표는 "휘나핫 단식 온열요법을 약 4개월정도 하게 되면 몸속 독소와 냉기를 몰아내기를 시작하며 몸속독소와 냉기를 쏙빼내고 체온을 상승시키면 면역력이 각자 체질에 따라서 8~12배 정도 증강되어 만성질환, 스트레스, 체중감량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수 있다"고 설명한다.

휘나핫은 '나를 따뜻하게 나를 빛나게'라는 뜻을 바탕으로 내가 빛나고, 따뜻해야 남을 밝혀주고 남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인다.

강대표는 이 '휘나핫'의 좋은 점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누림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며 2020년까지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꼭 보급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주)휘림건강 ☎ 02)875-0600 www.hkshop.co.kr

문화소식

제17회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림그리기 대회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은 어린이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제17회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처님'을 주제로 한 그림을 4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만 5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 및 기념품이 증정되며 우뚝 으뜸상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 100점은 한·중·일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 출품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목아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수상자는 5월 4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5월 5일 개최된다. (031)885-9952~4 www.moka.or.kr

죽이는 수녀들 이야기

웰빙을 넘어 웰다잉(well-dying)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호스피스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연극 '죽이는 수녀들 이야기'는 호스피스 활동을 주력해온 마리아의 작은자매회 수녀들이 죽음을 삶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2010년 12월부터 공연에 나섰던 '죽이는 수녀들 이야기'는 앙콜 공연으로 6월 12일까지 대학로 세우아트센터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다. (02)318-4148

제11회 불교꽃예술전

한국전통불교꽃예술회(회장 선오)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제11회 불교꽃예술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관불화와 공화를 주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4월 21일까지 연다. 15일까지 접수된 작품들 중 수상작인 대작은 30만원, 중작 20만원, 소작 10만원의 부상이 수여된다. 불교꽃예술회는 지난 1988년 한국불교비구니꽃꽃이회로 결성된 이후 불교꽃꽃이와 만행화(萬行花)를 통한 육법공양의 전통보존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



선불교 계간지 탄생

발행인 수불 스님, 영문버전 해외에 보급할 계획



한국의 간화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불교 문화를 싣는 계간지 '젠 앤 컬처(선과문화·ZEN and Culture)'가 창간됐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발행을 맡은 〈선과문화〉는 선불교의 문화를 주요 내용으로 △세계선의 문명사적 흐름 △선수행의 현황 △선수행의 학술적 흐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선학자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싣는 선불교 문화 전문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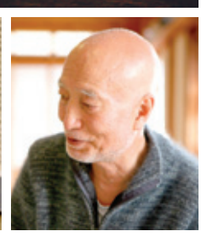
〈선과문화〉는 각정 스님(안국선원)이 주간을 맡았으며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일선 스님(금천선원장), 천휴 스님(광덕사 주지), 김흥근(간화선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편집기획위원으로, 이상균 씨가 편집장을 맡고 있다.

주요 콘텐츠는 △스페셜 에세이 △포토 에세이 △젠 라이프 △젠 에세이 △연중캠페인 △문화 등으로 구성됐다.

〈선과문화〉 2011년 봄호에서는 △연중캠페인 -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하루 30분 참선 △창간 특집기획 특별좌담회 - 한국간화선 수행의 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조용헌의 영지기행 - 한국선의 어머니 경허선사의 천장사 △나는 이렇게 수행했다 - 일본 임제종 수행기 △수덕사 방장 송원 설정 스님의 선어록강좌 △종림 스님의 대장경 산책 등이 실렸다.







수불 스님은 "지금 세계인들은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정신문화 사적 문명을 갈망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불교와 선이 있다. 선 수행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힘을 지녔다고 할 수가 있다"며 "모든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무한한 가치와 창조적인 힘을 지닌 불조의 가르침과 선 수행의 인연을 모든 인류에게 희망으로 나눠 줄 〈선과문화〉는 한국선불교의 알림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수불 스님은 이어 "〈선과문화〉를 통해 선의 다양한 모습을 싣는 기획코너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일반대중들과 불교 초·중급자, 선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과문화〉는 선의 문명사적 접근을 위한 다양한 선불교학자들의 논문 및 글을 게재하고 국내외 선문화를 주도하기 위해 '선' 국제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에이전시를 통해 외국출판사에서 〈선과문화〉를 출간해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로 보급할 예정이며 한글과 영어로된 선뉴스 전문 홈페이지 구축해 한국선의 다양한 모습을 전세계로 송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수불 스님은 "선문화가 현재와 미래의 인류에게 탁월한 대안과 희망이 되리라는 전망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 모두 진정한 행복을 위해 선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선과문화〉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선과문화〉는 봄·여름·가을·겨울 발행하며 1년 구독은 6만원, 각권 1만6000원이다. (070)4179-7208 이나은 기자

젊은 불자 가수 영입에 힘쓰겠습니다

가수 나 운 하, 제12대 대한불자가수협회 회장



"제가 이미테이션 가수란 이유로 불자가수회장직을 잘 못해낼 거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단점은 강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불자가수협회가 창단된 지도 21년째다. 그러나 불교계 안에서는 협회에 대한 존재와 활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불자가수들이 개신교로 개종을 하는 가하면, 젊은 불자가수 영입에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불자가수협회는 창단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월 12일 불자가수협회 12대 회장 취임식을 앞둔 가수 나운하 씨를 만났다. 가수활동을 해 온지 37년이 된 그는 최근에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주로 공연활동을 펼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나운하 씨는 "일본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일어난 대지진에 의해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고 말았다"며 "아무래도 회장일 열심히 하라는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장직을 새롭게 맡으면서 나운하 씨의 각오는 남달랐다.

"불교가 활성화 되려면 젊은 불자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젊은 불자들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젊은 불자가수 확보가 시급합니다. 젊은 가수들 중에도 불자들이 많지만 스케줄이 바쁘다는 이유로 다들 협회에 영입하지를 않았죠. 앞으로 그런 친구들과 계속 접촉을 해서 협회에 영입하도록 권유할 생각입니다."

현재 그는 다양한 인맥을 동원해 젊은 불자가수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불자가수는 봉사와 포교가 함께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에 영입한 후에도 불교 포교를 위한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매년 마다 전국사찰에서 산사음악회를 여는데, 스님들이 불자가수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군요. 그만큼 스님들과 가수들이 소통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전국 사찰을 찾아다니며 노래자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법회 등에 참가해서 음성공양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넓혀 나갈 방침입니다."

나운하 씨는 젊은 불자가수 영입과 더불어, 위기를 맞은 협회의 재건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운하 씨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협회가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조계사 근처에 사무실과 노래 연습실, 포교당 등의 건립을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 필드를 뛰며,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나운하 씨의 불자가수협회장 취임식은 4월 29일 종로구청 대강당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한편 나운하 씨의 정규 앨범이 5월 말에 발매될 예정이다. (02)742-0200 이은정 기자

이은정 기자의 뻔뻔(Fun Fun)한 레시피⑥

두부 김밥

퇴근길에 우연히 가로등에 비친 벚꽃을 발견했다. 훤한 대낮에는 보이지도 않던 꽃들이 밤에는 왜 그리도 눈에 잘 띄는지…. '내가 오늘 뭘 했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꽃이 아니었으면 봄이란 사실도 까맣게 잊고 한 계절을 또 지나칠 뻔 했다. 괜히 마음이 울적해졌다.

핸드폰을 들어 집에 전화를 걸었다. 얼마 전에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는 엄마가 걱정이 돼 겸사겸사 안부전화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도 신세한탄이시다. "늙는 게 싫어. 거리에는 꽃들이 천지인데, 무릎이 아프니 꽃구경도 못가잖아. 세월엔 장사 없다더니, 난 늙을 줄 몰랐는데 나이드니 별수 없네."

나도 우리 엄마가 늙을 줄 몰랐다. 평생 내 옆에서 나를 돌봐줄 줄 알았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든 꽃을 보니 주말에는 만개일 것 같았다. 아마도 거리에는 꽃잎 수만큼 사람들이 많을 거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또 내년을 기약해야 꽃을 볼 수 있다. 엄마도 '얼마나 내가 더 꽃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다.

사람들에게 밟히더라도, 올해는 엄마랑 꼭 소풍을 가야겠다. 엄마가 항상 소풍갈 때 싸주시던 엄마표 김밥은 이번엔 내가 싸서 갈 작정이다. 아마도 엄마처럼 김밥을 싸려면 꽃이 다 떨어질지 모르지만, 엄마한테 내가 직접 싼 김밥을 언제 또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른다. 옆구리가 터진 김밥이라도 내년보단 올해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고가기 두부는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적합한 식품이다. 리놀산을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올리고당이 많아 장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킨다. 동맥경화예방에 탁월하며, 소화흡수를 돕는다. 두부는 식이섬유과 비타민이 풍부한 김치와 궁합이 잘 맞는다. 두부는 오래 보관할 때는 물에 담가두는 게 좋다. 이때 물에 소금을 조금 뿌려놓으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두부2모, 김8장, 오이1개, 당근1개, 무순, 적배추 300g, 단무지 8개, 깻잎, 쌀, 참기름, 소금, 식용유, 간장, 물엿, 통깨

음식 만들기

① 두부는 김밥 길이로 사방2cm 로 썰어 소금을 약간 뿌려놓은 후 물기를 뺀다.
② 팬에 기름을 두르고 끓는 기름에 두부가 부서지지 않게 노릇노릇하게 튀긴다.
③ 간장 2컵에 물엿 2분의1컵을 넣고 끓인 후, 튀긴 두부를 넣고 조린다.
④ 오이는 굵게 썰어 소금에 살짝 절인 후 물기를 없앤다.
⑤ 당근은 채 썰어 팬에 기름을 두르고 살짝 볶아낸다.
⑥ 된밥을 지어 참깨, 참기름, 소금을 넣어 간을 한다.
⑦ 김 위에 밥을 얇게 펴고 깻잎과 두부, 당근, 단무지, 무순, 적배추, 오이 등을 넣고 말아준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 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김상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m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지혜의 샘 자타카 이야기 3

-원숭이 왕과 물귀신-

구성-김흥인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 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교무실)
(054) 751-3721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 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우유 대신 두유를 먹는다던데

우유를 대신할 고칼슘 두유

우유가 비싸졌다. 구제역 여파로 원유공급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서울우유는 4월 8일 우유 값을 최대 10%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유 1L 판매가격은 1980~3900원까지(4월13일 이마트몰 기준) 회사별, 브랜드별로 다양하다. 고칼슘, 저지방, 유기농, 초유성분 함유 등 특별한 조건이 더해질수록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간다.

이런 와중에 우유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미국 정부는 3월 28일 캘리포니아 주 우유에서 요오드 131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 미국까지 날아간 방사능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염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비싸진 우유 값과 불안 심리로 최근 두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11년 두유시장의 규모는 전년대비 20% 성장한 4000억 원이 예상된다고 한다.

두유로 우유를 대신 할 수 있다

우유는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게다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한다. 우유의 장점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우유, 과연 두유로 대신 할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병원 김원경 임상영양파트장은 "칼슘이 강화된 두유는 우유를 대신하기에 충분하다. 두유는 우유에 비해 칼슘이 조금 부족하지만 칼슘을 공급하는 식품군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다. 100g당 칼슘의 양만을 비교하면 두유의 원료인 콩이 우유보다 높다. 특히, 검은콩의 칼슘 함량은 우유의 2배이다. 검은콩, 고칼슘, 검은깨 등 유독 칼슘이 강화된 두유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두유는 모유와 가장 가까운 음료로 칼슘 흡수율이 높다. 특히 두유에 풍부한 마그네슘, 철, 망간 등이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므로 임신과 수유기간 중에 섭취하면 좋다. 식이섬유도 다량으로 함유해 대장을 건강하게 해준다. 동물성 지방에서 얻을 수 없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해 몸에서 DHA로 합성되는 오메가6와 오메가3도 섭취 할 수 있다.

우유를 대신할 식품들

우유는 칼슘이 많은 대표적인 식품이다. 그러나 우유는 칼슘만큼이나 중요한 단백질, 비타민B_6(리보플래빈), B_{12} 등 다른 영양소도 다량으로 함유 하고 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은 대표적인 칼슘 공급원이며 멸치 등 뼈째 먹는 생선과 배추, 케일, 샐러리 등 잎이 푸른 채소로도 칼슘을 섭취할 수 있다.

우유 200ml 1잔의 칼슘 함량은 210mg 정도이다. 다른 식품의 100g당 칼슘 함량을 살펴보면 말린새우 2045mg, 뱅어포 982mg, 말린미역 920mg, 검은콩 224mg 두부 100mg등 뼈째먹는 생선, 해조류, 콩도 칼슘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이 53%이고 어류의 흡수율이 38%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말린새우, 뱅어포의 칼슘함량은 월등하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품

비타민B군은 한국인의 식단에서 항상 부족한 비타민 중 하나다. 특히 비타민 B_2는 우유와 유제품, 어육류에 풍부하지만 계란, 시금치, 버섯 등에도 함유 돼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단백질은 단연 생선과 고기에 많다. 어육류를 제외하면 달걀, 콩, 두부, 두유에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 콩의 단백질은 소화율이 높으며 성장에 필요한 리신, 트립토판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

완전식품은 없다

우유, 두유 모두 완전식품은 아니다. 어떤 식품도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품은 없다. 서울대학병원 김원경 임상영양파트장은 "우유는 완전식품이 아니다.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식품만 많이 먹는 것은 성장에도,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지 않다. 적당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유에 대한 궁금증 Q&A

① 라면에 우유 넣어먹으면 맛있던데 건강에도 좋은가요?

얼마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라면에 우유를 넣어 조리해 화제다. 우유가 고소한 맛을 더해 맛도 좋다고 하는데 건강에도 좋은지 궁금해 하는 분이 많다. 우유에 있는 다른 영양소는 열에 의해 파괴 되기도 하지만 칼슘은 열에 날아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칼슘은 라면과 함께 온전히 섭취할 수 있다.

② 커피를 마시면 칼슘이 빠져 나간다던데 우유와 섞어먹는 라떼는 어떤가요?

커피 뿐 아니라 초콜릿, 녹차, 홍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모든 제품이 칼슘을 배출한다. 카페인이 배출시킨 칼슘의 양만큼 보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우유를 마시는 만큼 칼슘이 보충 되는 것은 사실이다.

③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몇 살 때부터 우유를 마셔야 하나요?

뼈세포의 성장이 둔화되는 30대 이후에 마시는 우유는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골밀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골다공증예방은 어릴 때부터 성장이 멈추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칼슘을 섭취 했는지가 더 중요 한다.

④ 우유보다 칼슘이 높은 식품도 칼슘이 많은데 왜 우유가 가장 주목받나요?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높은 식품은 많이 있다. 그러나 우유가 모든 학교의 급식으로 보급될 만큼 권장되는 이유는 우유 200ml 1잔에는 칼슘 외에도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을 뿐 아니라 음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마른 미역, 마른 새우, 뱅어포 두부, 콩 등 모두 100g당 칼슘함량이 우유보다 높다. 그러나 홍어 100g을 먹는 것보다 우유 1잔 마시는 일이 훨씬 쉽다. 식품을 비교할 때 100g당 칼슘 함유량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우유는 인체 흡수율이 어류나 야채류보다 높다.

⑤ 우유만 마시면 설사를 합니다. 우유를 마시지 않아 키가 안 클까봐 걱정됩니다.

본인이 불편하다면 두유를 마시는 등 우유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해조류나 어류, 야채 등 다른 식품군을 통해서 칼슘, 단백질, 비타민B_6(리보플래빈), B_{12}를 꼼꼼히 챙기면 된다.

어려서 우유를 많이 마시지 않아 유당을 분해 하는 기능이 퇴화한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요구르트나 치즈, 등 다른 유제품을 섭취 했을 때는 설사를 하지 않는 편이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사라지기도 한다.

도움말 서울대학병원 임상영양파트장 김원경

천진영 기자

건강칼럼

왕세자의 두뇌 건강식과 총명탕



정지천 내과 교수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요즘 학생들을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선시대의 왕세자들도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서연(書筵)'이라고 하는 엄격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세자시강원의 신하들로부터 학습을 받아야만 했다. 아침에 일어나 웃어른들께 인사드린 후부터 조강, 주강, 석강 등으로 하루 종일 쉼 없이 공부해야 했고, 가끔 성균관의 학자들로부터 특강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공부에 지친 왕자들을 위한 보양식(保養食)과 보약(補藥)은 물론이고 두뇌 발달을 촉진하는 식품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조청'이다. 쌀(찹쌀)과 보리길금을 넣고 고아서 만든 물엿으로 포도당 덩어리인 셈인데, 영양가도 높고 뇌의 활동력을 높여 두뇌를 총명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조청은 폐에 윤기를 주고 기를 보충해 기침과 천식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비위장을 돕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성장을 돕는 한약 처방인 '소건중탕(小建中湯)'에도 들어간다. 중은 우리 몸의 가운데에 위치한 '비위장'을 의미하므로 '건중(建中)'은 비위장을 건실하게 한다는 뜻이다. 소건중탕은 비위장이 허약한 체질의 어린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배가 아픈 경우에 좋은 약이 되고, 아울러 두뇌를 총명하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그렇지만 조청을 많이 먹으면 습기와 담이 몸속에 쌓일 수 있으므로 몸이 퉁퉁하거나 열이 많은 사람은 적게 먹어야 한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 머리를 좋게 하는 최고의 약은 '총명탕(聰明湯)'일 것이다.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치료하며 오래 먹으면 하루에 1000단어를 외울 수 있다고 〈동의보감〉에 기재되어 있는데, 귀와 눈이 밝아지므로 지력을 얻게 된다는 처방이다. 백복신(白茯神), 원지(遠志), 석창포(石菖蒲), 감초(甘草)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뇌의 활동에 장애를 주는 '담(痰)'을 없애주고 뇌와 심장을 맑게 하므로 정신을 편안하게 하며 뜻을 굳건하게 한다.

그렇지만 뇌를 좋게 하려면 신장(腎臟)을 보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뇌에 정기를 공급해 주는 곳이 신장이기 때문인데, 한의학에서 신장은 비뇨기, 생식기, 호르몬 등을 포괄한 개념이다. 그래서 뇌, 허리, 뼈, 치아, 귀, 머리카락 등은 신장의 정기를 받아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장 계통에 속한다. 신장의 정기가 충실하면 성장 발육이 왕성하면서 면역기능, 성기능, 두뇌가 발달하지만 부족하면 기력과 정력이 감퇴하고 성인병 및 노화가 촉진된다. 그러니 실질적인 총명탕은 보신제(補腎劑)라고 할 수 있다. 따뜻한 성질로서 신장의 양기를 보충하는 보양제(補陽劑)로는 인삼(人蔘), 녹용(鹿茸), 두충(杜冲), 호두(胡桃) 등이 있고, 서늘한 성질로서 신장의 음기를 보충하는 보음제(補陰劑)로는 숙지황(熟地黃), 구기자(枸杞子), 거북등껍질(龜板), 더덕(沙蔘), 검은깨(胡麻子) 등이 있다. 구기자는 음기를 보충하여 허약하고 어지러운데 좋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눈을 밝게 한다. 인삼은 뇌의 활동을 촉진하여 지력과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눈과 귀를 밝게 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효과와 추위, 더위, 과로에 대한 회복 효과도 탁월하다.

뇌와 심장 맑게 해 학습 돕는 총명탕의 실체는 양기보충 보약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보약과 보양식도 체질에 맞지 않거나 소화에 부담을 주어서는 소용이 없다. 특히 열이 많거나 얼굴에 열이 잘 달아오르는 청소년에게 양기를 보강하는 인삼(홍삼)을 단독으로 먹일 경우 열이 올라 머리가 맑지 못하고 눈도 충혈 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 체질에 맞는 것을 먹여야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처방으로 복용시켜야 한다. 그리고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강요가 정신적인 피로를 가중시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설법을 잘할 수 있다 ???

교육내용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등 이론 및 실습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40년 노하우, 전문가인 원장 직접 지도

교육일정
❖종 합 반 : 10인 이내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연수안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종 합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직접 상담후 결정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우불 철학박사 김 철 회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韓 國 說 法 硏 修 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 3. 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신뢰 받고 있습니다"

저 '고복자 효사'가 지난 10년에 걸쳐 임상실기용으로 써낸 아래 '육임활용서' 및 '육임CD프로그램'들은 매서운 그 '정확도'와 탁월한 그 '효과성'과 놀라운 그 '귀신 · 사숭 · 산소탈등의 적시'는 이미 검증 되어있습니다.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입하신 분이 원하시면 '효과성'을 위해 방문 드리겠습니다.

1.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인증 없이 여러곳에 장착됨)
아래 육임활용서 및 각종 오행술의 종합 장착품 – 인증기능을 없애고 여러곳에 장착 시키게끔 되어 있으며 방문자의 속사정들이 순서적으로 화면에 미리 떠 있습니다. 정가 : 450만원

2. 고귀명수 (좌정용 / 휴대용 순별 10일치씩 전6권)
육임 법칙에 의한 내방자의 당면 핵심사는 물론 그의 일생사를 정형화시켜 구구한 해석 없이 즉시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도록 한면 한눈으로 명시 해 놓았습니다. 정가 : 350만원

3. 효사육임산책 (휴대용 / 순별 10일치씩 전6권)
방문자의 당면사들을 고차원단계로 적시해 놓은 2011 개정 증보판 휴대용입니다. 정가 : 2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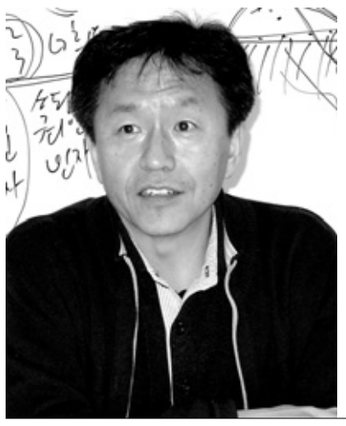
4. 효사육인복변집 (좌정용 / 순별10일치씩 전6권)
위' 육임산책'을 좌정용으로 제본 되어 있습니다. 정가 : 250만원

5. 효사오행제례의식집
방문자의 해당 재액별로 독자적 수법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매우 탁월한 수법서 입니다. 정가 : 5만원

6. 위 외 다수의 육임 학습서, 활용서, CD프로그램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문 : 대표전화 02)783-868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주식회사 www.taotemple.net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자리③ 강남대 이 찬 수 교수 (종교문화연구원 원장)



이찬수 교수의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자리' 4번째 강좌가 4월 11일 진행됐다. 공사상과 보살사상과 예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찬수 교수는 "보살과 예수의 공통점은 자유에 있다. 보살은 집착으로부터 자유, 예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모두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살아가는 열린 존재"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보살은 공의 진리를 깨달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예수는 하느님의 절대무상의 은총을 깨달아 자신에 대한 염려와 아집으로부터 해방돼 이웃을 향해 자신을 활짝 여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강의는 △불성과 하느님의 모상 △보신불과 그리스도의 몸 △〈대승기신론〉과 〈요한복음〉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업 방식은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강의는 서울 서교동 서교빌딩 대안연구공동체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다. www.paideia21.org (02)777-0616

정리=이상언 기자



자비의 기본은 포용, 신의 자비는 죄인을 버리지 않음

#보살예수

보살은 '보리살타(菩提薩陀, bodhisattva)'의 약칭으로서, 깨달음(보리, bodhi)을 구하는 존재(살타, 유정, sattva)라는 뜻입니다. 보살은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형입니다.

보살은 자신만의 해탈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로움과 타인의 이로움을 동시에 구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를 행하는 자입니다. 생사의 세계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이 단 하나라도 있는 한, 스스로 열반에 드는 것을 포기하고 자비로서 중생과 함께 합니다. 보살은 열반에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 구제의 서원(誓願)에 따라 의도적으로 중생계에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살에게는 지혜(智慧)가 필요합니다.

보살을 보살이게 하는 것은 보리심에 근거해 닦은 '혜와 자비'의 힘입니다. 지혜는 보살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나 열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보리심에 자비의 마음을 더해줍니다.

보살의 지혜는 불이지(不二智)입니다. 자와 타, 여자와 남자, 보살과 중생, 번뇌와 깨달음, 생사와 열반, 차안과 피안, 진과 속, 성과 속이 둘이 아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보살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는 평등지입니다. 만물은 공이라는 근원을 통찰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별과 집착을 떠난 무분별지입니다. 곧 공의 진리를 깨닫는 반야지(般若智)를 필요로 합니다. 보살은 이렇게 일단 모든 차별을 부정하고 초월한 평등지 위에서 다시 일상적 차별의 세계를 긍정하는 차별지를 발휘함으로써 중생 구제에 임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이러한 지혜로 무장하고서 보살 노릇을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수행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기적 수행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해 올바른 지혜를 깨닫도록 이끄는 수행을 하는 자입니다. 부처에 해당하는 지혜, 깨달음이 보살에게 적용되면서 보살이 인간이라면 따라야 할 이상적인 존재가 됩니다.

전형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 깨달음에 기반해 깨달음을 유보하는 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필연적인 존재였습니다. 중생은 부처가 열반에 들어 괴로움을 떠나 현실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자 위로를 받을 곳을 찾게 됩니다. 부처의 기능을 대신할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깨달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현실에 남아 중생을 제도하는 이에 대한 필요에 의해 다양한 불보살이 등장하게 됩니다. 민중적 요청이었습니다.

이러한 보살의 모습은 예수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일상적인 삶에 휘둘려 집착하고 주체성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의 본성을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며, 신의 은총을 철저히 체현한 분입니다. 적극적,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예수의 삶은 보살과 같은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보살과 예수의 공통점은 자유입니다. 보살은 집착으로부터 자유, 예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입니다. 여기서 자유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자유입니다. 보살은 생사의 세계에 살아도 생사의 세계에 있거나 종속되지 않는 초월적 자유의 존재입니다.

예수에 의하면 절대무상인 은총의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우리의 모든 현실적 계획은 필요도 없고 부질없는 짓이며,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모든 정신적 노력도 헛된 일입니다. 하느님의 절대적 긍정 앞에서 인간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얽매여 살 존재가 아님을 그는 가르쳤습니다. 보살과 같이 현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보살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의 고통을 제거해줍니다.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은 나를 관통하는 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고 무집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 보살은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고
> 예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예수도 유대교의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당시 사회를 지배하는 질서 '법'은 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신적인 것을 어기는 자는 죄인이 되고 신성의 상징인 성전에 발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당시의 지배체제를 거부합니다.

구약성서에는 "하느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전의 질서를 뒷받침해온 명제입니다. 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본래 통합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인간에 적용되는 거룩(聖)은 속됨(俗)과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속된 것과 분리하는 행위를 '거룩'이라고 하게 됩니다. 거룩한 이는 의인이고, 이에 대응하는 이는 죄인입니다. 부자와 빈자 등 이분법적 도식을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 시켜온 것이 예수 당시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거룩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금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예수는 성과 속, 경건과 불경, 의인과 죄인, 정과 부정의 대립적 구도로 사람을 판단하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을 과감히 타파했습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 앞에서 인간의 모든 독선과 편견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자유는 보살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종교로부터 해방이고 자유였습니다.

예수는 신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신과 하나 됨, 신을 닮았음이라는 자의식이 예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워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신의 속성을 자비에서 찾습니다. 자비나 관용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하밈(rachamim)은 자궁을 뜻하는 레헴(rechem)에서 왔습니다. 자비의 기본정신은 포용입니다. 신이 자비롭다는 것은 불평등한 구조의 사회에서 죄인을 버리지 않고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일반적인 질서가 아닌 반대 가치를 추구합니다. 반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는 기존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신의 은총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예수가 최초로 외친 메시지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은 자비의 신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근원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합니다. 신은 평등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 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 종교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신의 다스림 정신에 투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러한 행위는 하느님의 은총·나라·다스림에 대한 깨달음에 기반한 것입니다. 인식의 전환,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람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말이죠. 신의 보편적 은총과 사랑에서는 소외되고 억압받고 고통 받는 이들과의 관계를 남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누려야할 근원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타자와의 관계성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율법의 자유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관계성과의 통찰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보살의 자유가 일체의 상과 분별을 용납하지 않는 공의 지혜에 근거한다면, 예수의 자유는 인간의 모든 부질없는 노력과 집착, 편견과 독선이 발붙일 곳 없는 하느님 아버지의 절대부상의 은총에 근거합니다. 보살과 예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아적 존재입니다. 보살이 아공과 법공을 깨닫는 지혜로 인해 아집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라면, 예수는 절대무상의 은총의 하느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느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놓아버린 무아적 존재입니다.

#공과 하느님 '절대유와 절대무'

공은 하느님에 대한 깊은 이해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공사상에 의하면 유한한 사물과 연기적 존재의 중심에는 무(無) 혹은 공(空)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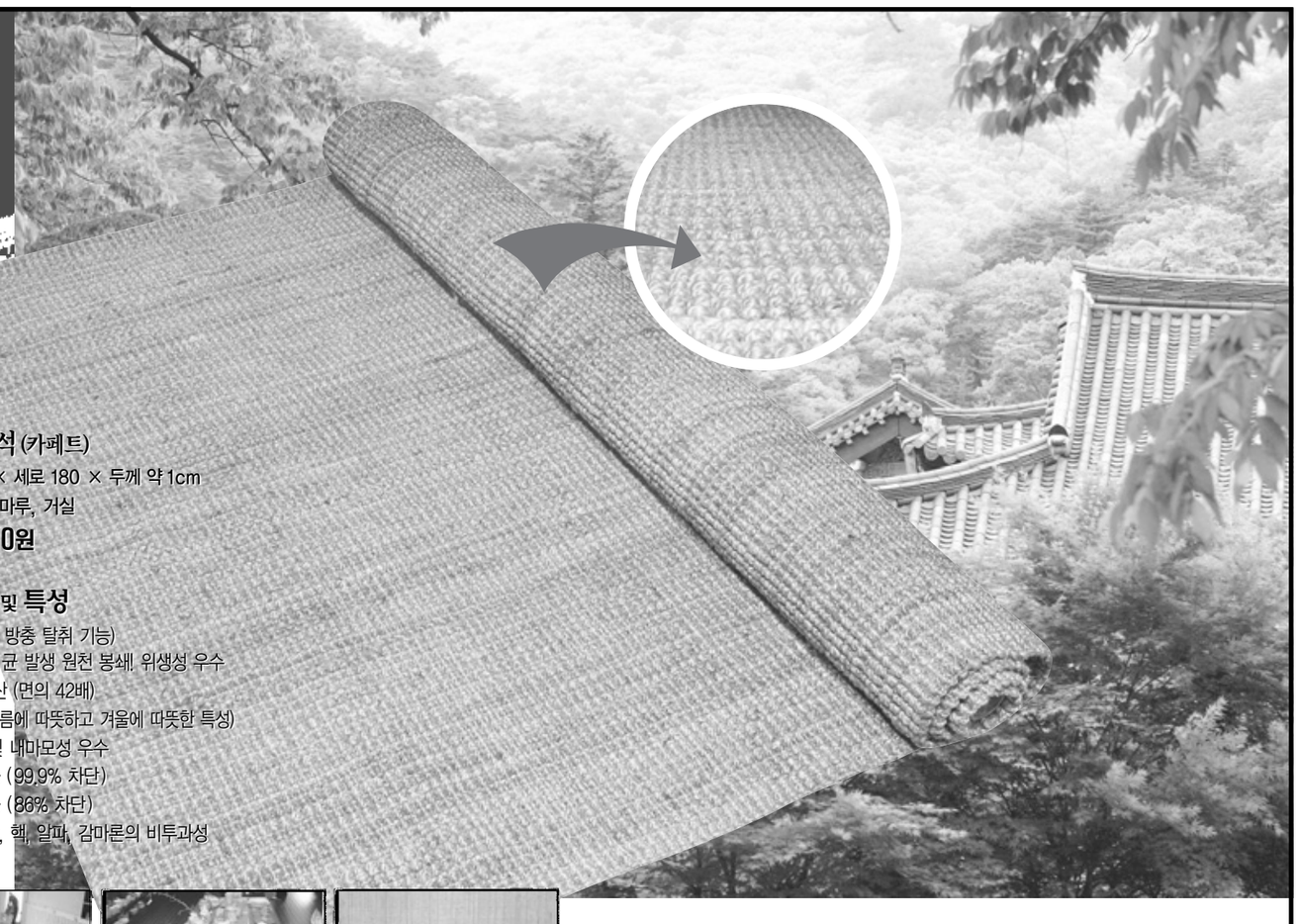
기독교 신학은 무나 공 너머에 모든 존재자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궁극적 실재, 어떤 절대유(絶代有)가 있다고 믿습니다. 절대유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무와 같습니다. 절대(絶代)는 '마주보는 것을 끊었다'는 뜻입니다. 언어에서도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세계를 말합니다. 절대무는 마주보는 것을 끊는데서 오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무집착과 같은 말입니다. 무를 강조하고 유를 강조하는 것 같아도 둘은 대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과 절대유의 세계는 자유와 무집착이라는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절대유로서 하느님은 무 아닌 무, 유 아닌 유로 나타납니다. 우연적 존재자의 존재를 떠받쳐주는 필연적 유(必然有)가 있다는 것이지요. 유 아닌 유, 무한한 유, 절대유, 혹은 유 자체라고 해야 하는 유입니다. 무 아닌 무이므로 모든 유한한 것의 유를 가능하게 하고, 유 아닌 유이므로 어떤 유한한 사물에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허무나 비존재의 위협에 처하지 않는 유, 그야말로 존재 자체입니다. 이러한 절대적 유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종교가 나뉩니다.

절대무로서의 공과 절대유로서의 하느님은 결국 동일한 실재의 두 얼굴과 같습니다.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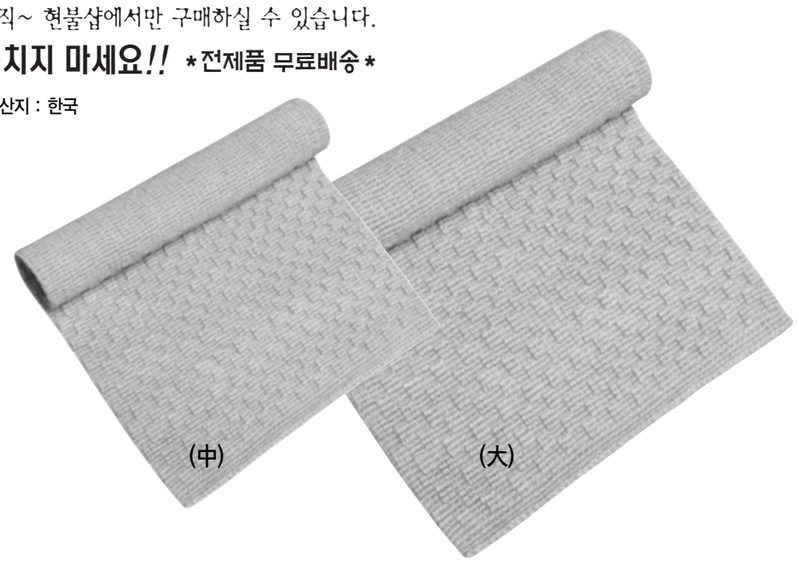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매트(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매트(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수제 멍석(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간경화, 치매, 사업성취
각종 난치병 치료보장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빙의 퇴마 전문
정신질환, 영가장애,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들, 상담 치료 전문
일주사 주지 일주 합장
061)337-9989
017-624-9989

영가 찾는 법 특강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법.
매주 수요일 오후 공개 강좌
백암역리원 (동작구청옆)
02)597-1101
011-9150-2284
초보반 별도모집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찰행사(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자녀교육 상담기도
가정방문 • 사업성공
상담 기도해 드림
능엄신주 가족들이 열심히 독송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변비
가족갈등, 결혼인연

승려 공부하시고 사주, 역학공부 하실 분 기초부터 책임지도 함
(인천 제물포)
010-2235-1717

조상영가천도와 축혼제(畜魂祭)
• 일시 : 2011년 4월 27일
부산국제신문사대강당
조상영가천도와 구제역으로 희생된
가축들의 원혼을 해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강문홍,조갑연,강병국,강병철,진현주
010-3871-2398
후원 : 동양당한약방(경남 산청군)

수강생 모집
사주,궁합,택일, 성명학
사주학 초보에서 실전개업까지
최단기간 비법특강.
자격증 수여. 수강료 저렴.
수시접수
30년 전통 대한역학교육원
02)763-4566

대체의학 비법
악성 오십견, 병명없는
허리통증, 통풍, 대상포진
(1~3회 완치)
비 법 전 수
010-7703-3825

수강생 모집
철학반 • 무속반
승도반 • 치유반
도건명리학당(불당사)
042)526-1123
010-3452-1123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태안
041)673-987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구례 대화엄사
010-3639-966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이하, 서울 금호동
02)2234-3310
010-6260-3310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전국서점에서 구입(주문 예주세요!!)
010-5105-5000

불사용 달마보급
청암(靑巖)친필 달마도를
불사용으로 저렴하게 드립니다.
인터넷 : www.달마.kr
전화 : 051)202-8770
H.P : 010-2953-8770
청암 달마원 드림

염 불 역 학
1달 속성완성
승려가 개인지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716-3811

각종 불사 상담 (단청,탱화,개금,신축)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문화재청 화공 기능 보유자
011-9387-1518

절에서 공부, 기도하며 지내실 부부 (남녀 행자) 모십니다
010-5027-889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청주
011-396-586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010-8907-6378

부전스님 모십니다
▷전남 순천 무량사
061)722-9114
011-611-5839

조용한 암자에서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과
처사님을 모십니다
▷처사님은 1종 면허소지자
055)863-4143
011-392-6885

산골 유학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행복한 아이,
쉽게 절망하지 않는 아이,
가슴이 따뜻한 아이로
키워 보세요.
지리산 삼심봉 묵계
보민 010-3591-2837

주지 초빙
무보시로 시봉하는 보살,
대동 가능한 비구스님 또는 비구니.
▷위치 : 충북 읍내 외곽,
도심 포교에 적합
조건 상호협의
010-3221-0839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종단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분 환영)
부산 사하구 감천동 567-2 (성불사)
법화종 051)204-8494
총무원 011-885-8989

아주 특수한 기도비법
•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청도 한재 미나리 진액
흰 민들레, 강화약쑥
복부비만해소, 고혈압, 수족냉증, 노화방지, 숙취제거,
간질환, 위암, 폐암, 유방암, 항암효과, 변비, 만성피로
60개 1박스 6만원 (스님,부모님께 최고의 선물)
농협 356-0150-1551-73 정승열
지 장 암 010-2367-0200
010-5251-4196 (대명화보살)

행자모집 3명, 공양주 1명 모집합니다
▷미암사
010-7262-2959

LA에서 부전하실 스님, 사무실 직원, 공양주 모십니다
042)272-1223
010-5792-3000

지리산 청정도량에서 같이 살 인연 찾습니다
(스님, 보살)
몸이 불편하신 분도 좋습니다
011-315-3041

건강이상으로 더이상 법당을 운영할 수 없어 무료로 보시하려 합니다.
(위치 : 대구 비산동)
010-5625-8622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철곡, 구미, 포항, 서울 동대문, 미국뉴욕,
중국 칭다오 , 호주 시드니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화, 금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 주 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문의 : 전화 053)474-8228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전화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창종 20년 韓國佛祖臨濟般若宗은 대승불교(大乘佛敎) 선(禪) 수행(修行)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불교중흥과 국제화로 본 종단의 도약을 위해 덕망있고 시주 재산능력을 갖추신 宗正 및 總務院長, 각 임원진, 말사 사암소유자, 남녀출가 및 재가 수행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 응모요령 -
1. 이력서 1통 (상반신 명함판 컬러사진 첨부) 2. 이력서 내용에 수행이력과 재산시주능력 필히 기재
3. 모집기간 : 수시 (fax도 접수함) 4. 제출처 : 160-022 日本 東京都 新宿區 新宿 6-27-48 201號室
佛敎法人 韓國佛敎臨濟般若宗
宗正代行 兼 在日本 宗務院長 釋法眼
H. P 090-5734-8954 (001-81-90-5734-8954)
FAX 03) 6233-9874 (001-81-3-6233-9874)

승복 · 전통복식 30년
www.kyksb.co.kr
김윤경승복 · 우리 옷
- 30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 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기획상품
(이중직)적삼 바지 ~~150,000원~~ → 80,000원
— 겨울신상품 —
(목화솜누비)적삼 바지 ~~300,000원~~ →180,000원
(목화솜누비)동방 바지 ~~350,000원~~ →22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승복관련 기술자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역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간단한 원리로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4월 20일 (수) 오후 2시
4월 27일 (수) 오후 2시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치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 초보반 별도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 597-1101. 011-9150-2284
노량진역(1.9호선) 5번출구 동작구청 옆

탈 종 공 고
• 법 명 : 승암 (이두찬)
• 주 소 : 서울 서초구 방배 3동 395-58
법무빌라 301호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출퇴근 가능하신 분
▷ 55세 이하
▷ 서울 상계역 근처
011-9002-8523

4대 항암약초 꾸지 뽕나무 (神이 내린 보약나무)
산뽕나무(꾸지뽕) 효능 (소변이 잘 나오고 변비치료에 탁월한 꾸지뽕)
고혈압,관절염,당뇨병,지혈,수족냉증,구갈,각기,수기,태기,산기,해열,
기관지염,이뇨,무좀,중풍,토혈,식은땀,해수기침,흰머리검어진다,
눈병,비증,팔다리 쑤시는 사지경련,각기,부종,사지마비,류마티스,관절염
054)383-8553 / 011-9585-4908 혜봉스님 직접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 농협 703088-51-013554 지장선원
스님들께는 3만원에 올리겠습니다 (1박스*50개)

통증 제거 기술 무료교육
스님들 요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원심수기요법을 배워 활용하신다면,
사찰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심수기는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배우는데도 쉽고 간단한 기술입니다. 원심수기는 침이나 지압도 아니며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도 아닌 우리전통기술입니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연락처 : 한 의 원 019-305-9138
* 또한 불자님 중에 한의사 선생님을 초빙합니다. (숙식제공 가능)

불자정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진구
- 법당 : 20평
-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 가액: 2억 7천만원

010-7157-161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
  지하철100M이며 즉시법회 가능함

- 위치 : 부산
- 법당 : 35평
- 요사 : 30평
- 부지 : 공유지분
- 가액 : 3억
  시내 APT단지 상가임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100평
- 가액 : 7억 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한 국 불 사

- 위치 : 경기지역
- 가액 : 2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10-3154-3535

토굴터안내

- 위치: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중감마을에서 500M
- 현재 묵은 논, 2필지, 1017평
- 남향, 해인사 뒷산
- 깊은 산속 시원한 계곡물
- 가액: 2천 5백만원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충남공주시유구읍연종리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 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토 굴 안 내

- 위치 :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 면적: 총 93평
- 건평 20평, 창고 5평(별도)
- 가액 : 5,400만원

011-583-4204
055)944-4256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10평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3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1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1억 7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및 토 굴 안 내

금정산 대사찰(천년고찰)

- 총대지 : 약 5700평
- 법당 약80평, 요사채 및 기타 5동
- 부산 금정산 자락
- 가액: 18억

진주 아름다운 사찰(100년)

- 대지:600평
- 법당 20평, 요사 및 기타 5동
- 진주 인터체인지 5분거리
- 주차장 120평
- 총금액: 4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합천호 주변
- 경관수려하고,건축허가 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있음
- 임야 . 논 총 954평
- 가액 : 6천 7백만원

011-848-2452

경관좋은사찰터안내

- 위치 :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 부지 : 총 2만 2천평
- 도로 39호 지방도로 접, 전면 170M
- 옆 계곡 있음
- 청정한 계곡과 수려한 명당터
- 가액: 평당 4천 5백원
  몽땅 9900만원

010-7246-010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 2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0-8993-3596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남동구 구월동
- 모래내 시장옆(아파트밀집)
- 실평수 108평
- 법당1, 방4, 창고방1, 공양간, 창고, 화장실 2개
- 입실부엌, 재래식부엌, 도시가스
- 보증금 2000만원 월 12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32)467-031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법당, 방 1개(친견실), 주방
- 평수 : 40평
- 전세금 : 1,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는 답사 후 결정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

010-7533-4488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중학교앞)
- 3층 37평중, 법당 20평,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영단, 침실, 직무실, 거실겸 주방
- 계단 실내해우소, 뒤에 마당공간2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739-7788
010-9282-5885

선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 3동 75-27(2층)
- 평수 : 38평
- 아미타불 삼존불
- 대통 왕 쑥찜질방 영업중
- 살림가능
- 전세 1,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1-859-5550

사찰터, 전원주택

- 위치: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경관수려, 건축허가 가능
- 진입로 확보 가능 (지방도 인접)
- 전2필지 720평 평당 30만원
- (절충가능)

031)531-1300
011-722-1305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근교
- 법당 25평, 요사채, 방3개, 외부 화장실, 공양간, 상태 좋은 돌
- 대지 277평 외 사용가능 터 320평, 절 30년 됨
- 가액:1억 3천 5백만원

010-9290-59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의정부역에서 8분거리 대한생명옆 현재 운영중
- 약 80평, 5층건물의 5층
- 법당, 삼존불, 탱화, 집기일절, 방 2
- 거실1, 입식부엌1, 도시가스, 살림가능
- 화장실 남,녀 각 1개씩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인연이 되면 스님이나 보살님께 양도가능

011-588-823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금호
- 대지 108평, 건물 60평
- 법당 15평, 거실(大)1, 공양간(大)1 방3, 보일러실, 창고
- 식수: 지하수
- 주변여건: 뒤에는 작은 산, 앞에는 큰 저수지 위치
- 가액: 집기포함 9천만원

010-4504-124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광명. 서울권
- 45평, 삼존불
- 보증금 2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A급 . 3천만원중
- 1천 만원만 받습니다
- 목조석불,본존탱화,신중탱화 산신탱화는 무료보시

02)2618-090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 CCTV. 대용량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4억 3천만원(대출 1억 3천만원)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87-6666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창원 39사단, 부근
- 3층 대형상가내, 2층 45평
- 법당 약 30평
- 모든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1억 8천만원

010-8675-863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심곡2동 (부천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부천 자유시장에서 3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40평)
- 삼존불 봉안(미타, 지장, 관음)
- 보증금 일천만원(월 60만원)
- 시설비 1,700만원 (즉시 법회 가능)

010-6227-59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미아삼거리 (버스정류장앞) 위치 최상
- 2층건물의 2층 전관
- 평수 약 25평
- 법당, 상담실, 방, 거실 겸 주방, 욕실
- 가액: 합 1천 6백만원 (보증금 500만원에 월35만원)

010-8675-131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의정부역에서 8분거리 대한생명옆 현재 운영중
- 약 80평, 5층건물의 5층
- 법당, 삼존불, 탱화, 집기일절, 방 2
- 거실1, 입식부엌1, 도시가스, 살림가능
- 화장실 남,녀 각 1개씩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인연이 되면 스님이나 보살님께 양도가능

011-588-823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우포늪
- 대지 총 320평
- 법당. 조립식 24평
- 화실 24평(탱화제작)
- 요사,적벽돌기와 27평,황토방 4평,석탑1기
- 가액: 1억 8천만원(절충가)

010-6582-284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000만원

011-742-8458

포교원,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치악골
- 포교당, 별장, 사무실, 작업실, 전통찻집 갤러리샵으로사용가능한집
- 3층건물
- 가액: 3억(절충가능)

011-9917-7039

사 찰 안 내

- 위치: 김천과 구미 중간, 김천시 남면
- 평수 532평
- 시설완벽
- 요사채 20평, 법당 20평, 공양간 20평
- 가액: 1억 6천만원

016-540-3313/054)733-7881
011-540-0027/054)453-1117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 부지: 2,500평
- 별도부지 230평(심야보일러) 사용가능
- 신축임법당 30평 외 3동
- 천연 약수 있음
- 가액: 3억(절충)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373-0697
011-9901-3530

토 굴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 블록법당 10평, 방 7칸
- 종중땅, 텃밭있음
- 가액: 3천 8백만원

043)745-301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1동
- 1층건물 3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2억 5천만원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바닷가 기도처 안내

- 전망좋은 바다와 도로 접
- 위치 : 포항 북구 슬라브 집
- 대지 65평, 건평 23평
- 가액: 7500만원

010-6474-5903
011-825-3181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 바로 뒤 산
- 1급 주거지역
- 가액: 평당 90만원 (절충가능)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포교원,토굴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7분거리)
- 대지 171평,건물단청, 수미단, 영단
- 법당, 종무소: 1,2층 각 20평씩 1동
- 요사채:1,2층 각 30평씩, 방6개, 1동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주차공간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1억 9천만원(융자1억포함)
- 새로 불사점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사 찰 안 내

- 위치 : 봉화시내 부근야산
- 법당 10평
- 산신각 1평반
- 전답 1,000평
- 요사채(2동)20평
- 가액: 1억 5천만원

010-5317-7736

포교원 안 내

- 위치 : 양재역에서 2분거리 (지하철3호선)
- 3층 건물중 2층 (약 15평)
- 보증금 9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강남에 이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 현재 포교원 및 철학

010-2090-4490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 20평, 황토집
- 가액 2500만원

055)884-1491
010-2363-6914

터 안 내

스님 신도님께 양도하고 싶습니다
서북풍을 막아주고 정남향터인
수도권 한시간 내에 들어갑니다
가평 북면

010-4847-7436

경관좋은 사찰, 토굴터

- 위치: 경남 합천읍 용계리 읍내에서 차로 10~15분 거리
- 토목 완료한 전 793평 남동향, 시멘트 포장도로 접
- 청정한 계곡과 수려한 경관
- 만대산 7부능선, 도로와 장래성
- 가액: 3,900만원

010-9367-1010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고흥군
- 산세 수려하고 물 좋은 천년고찰터
- 고흥 초입 4차선 도로에서 저수지끼고 2km에 있는 아주 고요하고 청정한 도량
- 선방, 기도처, 복지시설 최적지
- 종교용지 200평, 임야 11,500평
- 법당, 전통목조토기와 5칸 27평
- 요사채 50평
- 가액: 7억 5천만원(가격조절가능)

010-6778-191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장
- 평수 약 40평
- 방2개, 창고2개, 주방, 욕실
- 2층건물에 2층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1-9317-66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 3 방 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
- 고속도로 IC 근접, 교통편리
- 평수 23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3억 5천만원

011-687-6276
031)672-1150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울산 북구 천곡동
- 대지 : 총평수 4800평
- 대웅전 법당(목기와)
- 부대시설 : 문화 및 집회대형건물시설(6층)
- 건물 총평수 : 약 1400평
- 가액 : 60억(은행융자20억)

017-511-007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장 시장 부근
- 평수 2층, 60평 옥상 外 다락방 5평 정도
- 법당 (아미타삼존불, 약사여래불, 칠성여래불)
- 방3칸, 공양간, 에어컨 3대
- 시설 완벽함,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51)556-145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면소재지 독점
- 자기땅에 자기건물 20평 주차공간 넓음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원목불단
- 집기 몽땅 넘겨줌, 몸만 오시면 법회함
- 가액 : 4000만원(융자 1200만원 별도)
- 전화 후 방문(절충가능)

055)582-3397
017-722-7757

된장공장 인수할 분

- 위치 : 영월근교
- 산좋고 물좋고 경치 좋은 곳
- 땅 500평, 고급주택 1동, 공장1동
- 완벽한시설, 장독, 된장 포함
- 인수금액: 2억 5천만원

011-792-8969

사 찰 (급) 전 세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 대지 110평
- 법당, 산신각, 공양간 방 大3, 용왕각
- 마을 뒤편 산세 수려 계곡 접
- 전세 4천만원

010-3193-3689
010-6540-258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수유동 화계사거리 대로변
- 4층건물 중 3층 약 40평
- 시설 A급, 삼존불, 신중
- 산신탱화 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9354-989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도청면 송진2구
- 평수 : 총 600평
- 법당, 삼존불, 소불, 108불, 25평
- 산신각3평 , 방사 2개 요사채2개(대10평, 소3평)
- 화장실 및 샤워실 각각 1개
- 가액: 1억5천만원(절충가능)

스님직통 : 011-571-8961

세상에 해야할 일이 어디 있냐? 보리 추수 말고

수리아의 검-Ⅱ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이야기의 시작 – 운명과 예언 (7)

그로부터 며칠 후, 난다의 생일이었다. 무니는 친구의 집을 찾았다. 털장갑과 지난 가을에 자신이 주운 밤송이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였다. 장갑은 쎄라가 난다에게 선물한 목도리와 색을 맞춰 엄마가 직접 뜬 것이었고, 밤송이는 집에 보관해둔 것 중에서 가장 크고 알찬 것이었다. 함께 화로에 구워먹으면 맛있을 거라는 생각에 침이 절로 꼴깍 넘어갔다. 무니는 손이 찔리지 않도록 종이에 잘 싼 밤송이를 흐뭇하게 바라봤다. 그러나 정작 난다는 집에 없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오두막에 있단다. 방금 쎄라도 왔다가 선물만 두고 갔는데, 못 봤니?"

"못 봤는데."

"하여간 며칠 째, 거기서 나오시질 않는구나. 한 몇 년은 거길 자주 안 가시더니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어. 난다까지 데리고 말이야. 너도 알겠지만, 걔는 정말 책 읽기를 싫어하잖니? 아무튼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도 그냥 걱정만 하는 중이야. 그나저나 어머, 그거 난다 줄 거니?"

아이가 손에 든 걸 보고 아베레가 말했다. "응." 하며 무니는 일단 장갑만을 건넸다. "정말 예쁘구나. 역시 마야는 손재주가 좋다니까. 쎄라가 가지고 온 목도리랑 하면 아주 잘 어울리겠는걸. 그런데 나머지 손에 든 건?"

"아, 이건…"

무니는 망설였다. 지금 선물이라고 건네면 난다 혼자 밤송이를 까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함께 못 먹을 수도 있다! '아, 어쩌지?' 무니는 엄마와 유리 영감을 제외하고는 어른을 대하는 일이 늘 곤혹스러웠다. 그러나 그때 다행히도 유리 영감과 난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지금 돌아오시나 보구나."

문 쪽으로 종종 걸어가는 난다네 엄마를 보며 무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잠시 후, 무니와 난다는 지금 막, 깐 밤을 화로에 집어넣는 중이었다. 껍질 안에는 밤이 여섯 개나 들어있었다.

"맛있겠다."

난다가 화로 안에서 타기 시작하는 밤을 기분 좋게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유리 영감이랑 오두막에서 뭐했어?"

"책 읽었어."

무니가 '으악!' 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너희 할아버진 너를 자기처럼 만들고 싶은 거 같아. 이제 이 마을에서 영감 다음으로 제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너일껄. 네가 하기 싫다고도 안 하니까 더 그러는 거야."

난다는 "글쎄…."라고 말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무니는 어쩐지 친구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 소년은 밤 껍질이 타면서 내는 탁! 탁! 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잠시 말없이 앉아있었다. 그리고 그 후로 난다는 정말 달라져 갔다. 같이 웃고 떠들고, 노는 건 같았지만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언제나 할아버지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난다는 단지 공부 시간이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무니는 이웃들에게 부탁 받고 끌고 나온 소, 염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풀을 뜯고 있었다. 잘은 모르지만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고 있는 연두색 풀은 겨울 내내 먹었던 마른 여물이나 여름의 짙은 풀보다 맛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칸타카처럼 마음이 통하는 건 아니었지만, 무니는 가축들의 표정을 보면 그 기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이 일은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하는 농사일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가축을 돌보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에겐 사람이 동물보다 훨씬 편했기 때문이다. 가축들은 뒤에서 무니를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거나 하지 않았다. 풀을 뜯거나 그늘에 누워 잠을 자거나 할 뿐이었다. 무니는 길게 기지개를 폈다. 칸타카도 주인을 따라 목을 길게 내빼는 시늉을 했다. 그런 칸타카의 모습에 웃던 무니는 문득 이제 곧 자신이 태어난 지 이 년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염소 다 도망간다!"

누군가 갑자기 외쳤다. 순간 무니가 깜짝 놀라 눈으로 염소를 찾기 시작하는데, "히히"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난다였다. 친구를 놀래주기 위해 살금살금 다가오다 그렇게 소리를 친 것이다.

"뭐야!"

난다가 혀를 내밀며 소리내 웃었다. 그런 모습에 눈을 흘기던 무니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오두막에서 몰래 나왔구나?"

그 말에 난다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응. 점점 할게 늘어나. 머리에 갑자기 너무 많은 걸 넣었더니 아주 난리야."

무니는 그런 친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런 걸 왜 하고 있냐.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 하라니까."

"그럴 수 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어디 있냐? 보리 추수 말고."

"있어, 있더라고." 라며 난다는 또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다 "아!"하며 무니를 쳐다봤다.

"너도 같이 공부하면 되겠다! 왜 할아버지는 너는 가만 두시지? 공부야 같이 해도 되는데."

무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뭔 소리야? 괜히 영감한테 그런 말 꺼내지 마. 만약에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난다에게 이미 무니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정말 왜 자신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도 물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애초에 무니에게도 글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요즘 들어 통 무니를 부르시지 않는 게 의아했다.

한편, 오두막에 들어온 유리 영감은 손자가 펼쳐놓은 책들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난다가 책을 팽개치고 뛰쳐나간 지 한참 된 모양이었다. 하긴 갑자기 많은 걸 보고 읽어야 했으니, 아직 어린 난다가 힘들어하는 건 당연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견디고 있는 셈이었다. 다만 시간이 문제였다. 난다는 아직 고대어도 완전히 익히지 못했고, 약초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건 불과 어제부터였다. '처음부터 잘 따라주었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생겼다. 그는 난다가 공부한 흔적들을 읽어 봤다. 손자는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이해력이 좋고, 암기력도 뛰어났다. 무엇보다 그 아이는 그 밤, 그믐달 아래서 그 광경을 한 번에 들여다봤었다. 다시 예언서를 꺼냈을 때 어쩌면 난다가 무니와 마찬가지로 예언의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충분히 시간만 주어진다면.' 아쉬움은 한층 더 짙어졌다. 난다의 운명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어리석음에 관한 탄식이라기보다는 깊은 슬픔이 실려 나오는 소리였다. 아이가 운명의 문 앞까지 다가가기 위해 헤쳐 나가야 할 길이 얼마나 고될 지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이라도 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 이제 서서히 그믐날에 난다가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알려주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뭔가를 결심한 것처럼 닫혀있던 책장을 열었다. 그리고 안에서 무척 오래돼 보이는 커다란 책을 꺼내 펼쳤다. 그러나 그것은 책이 아니라 보관 상자로, 그 안에는 언뜻 봤을 때 회중시계하고도 비슷하게 생긴 물건이 들어있었다. 유리 영감은 그걸 꺼내 들었다. 하나의 원 안에 각각 금, 은, 동, 나무로 되어있는 작은 수레바퀴가 빈틈없이 맞물려 있는 게 보였다. 어떻게 보면 나침반 같기도 했다. 그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표정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 수레바퀴를 응시했다. 뭔가를 묻는 시선이었고, 나무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결과는 저번과 같았다. 유리 영감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삽화 · 김홍인

이른 아침부터 마을은 활기를 띠었다. 보리 수확기가 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함께 추수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그늘에 모두 모여 앉아 다 함께 식사를 했다. 무니와 마야 역시 마찬가지였다.

"난다가 없네. 영감도 없고."

옥수수를 먹던 무니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난다네 부모들은 분명히 보이는데, 그 두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눈이 마주친 건 촌장이었다. 촌장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찾는 건 자신과 엄마 마야가 분명했다. 무니는 얼른 눈을 피했다.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때 누군가 두 모자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은 무니도 꼼짝없이 여기 있네?"

아베레가 어느 새 무니 앞에 와서 아는 척을 하더니 마야와도 반갑게 눈인사를 나누었다.

"난다는 안 왔어?"

무니는 촌장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지만, 모른 척하며 물었다.

"아이구. 그게, 또 사흘 전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오두막에서 나오지 않고 있단다. 분명히 오늘부터 공동 작업일이라는 걸 아실 텐데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촌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했어."

아베레는 갑자기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무니야, 요즘 난다가 좀 달라진 거 같지 않니? 말 수도 부쩍 줄고 말이야."

확실히 난다는 달라졌다. 며칠 전 난다와 풀밭에서 만난 것 말고는 같이 놀아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정말 공부 때문일까.

"응. 확실히 이상해졌어."

832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용성리
- 대지 200평, 바로 뒤에 산
- 임법당 1동, 산신각 1동
- 방4, 창고1, 공양간, 보일러실, 샤워실
- 가액 : 7천 5백만원

010-7377-35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1동
- 부산 진여 지하철 5분거리
- 총평수 70여평
- 법당 40평, 요사채(별채)30평
- 가액 : 2억 7천만원

010-2326-21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생림면
- 대지 220평
- 텃밭 40평, 법당 15평, 산신각 4평
- 지장전 25평, 요사채 37평, 심야 및 기름 보일러
- 가액 1억 7천만원

010-8327-3808
055)338-388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
- 3층건물 전체
- 3층 : 요사채
- 2층 : 법당, 삼졸불, 신중, 칠성, 산신, 영단 , 원불 500분
- 1층 : 친견실 및 공양간
- 시설비 절충
- 가액: 2억 5천만원

010-8678-052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바다가 보이는 곳
- 300평
- 법당 25평, 목조건물 , 동북간 요사채 1동
- 주차장확보
- 가액: 8억

영주불사
010-9798-109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서부시장옆)
- 평수 : 50평(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최고시설(시설비는 답사후결정)

010-4668-7380

전원주택 토굴안내
- 위치 : 인제원통 터미널에서 15분거리.산중턱
- 전원주택겸 토굴로 사용가능
-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이중 흑벽돌, 심야보일러
- 총 1,400평, 대지 300평
- 건평 25평, 밭 잘가꾸어져 있음
- 앞에는 큰강 산세 수려
- 가액: 3억 3천만원

010-3337-9736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임야 10,000평, 대지 200평

010-4876-5535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거리)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슴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약 250년),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 위주 전시) 일시관 외벽 만다라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바 있음.
- 임야 10,500평은 대형저수지로서 2011년 2차선 공사가 완공되면 어떠한 명목으로 허가 가능함.
- 임야 제외 34억, 사찰만 할 경우 32억
- 상기 면적중 성취관 (240평)의 불상 및 전시관에 조성자금 소요 자금만 받고 있음. (기타 일체 무료)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010-4504-0174

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널리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대성공을 확신합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❸**

서로 지극히 사랑해 한 몸으로 태어나



동화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아미타구품화생도(1841)'의 좌비익(左比翼).

국어사전에서 비익조(比翼鳥)를 찾아보면 '1. 암컷과 수컷의 눈과 날개가 하나씩이어서 짝을 짓지 아니하면 날지 못한다는 전설상의 새. ≒비익1(比翼). 2. 남녀나 부부 사이의 두터운 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돼 있다.

사전상으로 봤을 때 비익조는 눈이 하나 밖에 없는 동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익조는 눈이 2개인 동물이다.

비익조는 노래, 영화 등 문화·예술작품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된다.

"눈물이 눈물을 자꾸 훔쳐내도 슬픔이 슬픔을 힘껏 등 떠 밀어내봐도 하나의 눈과 반쪽 날개론 날 수도 없는 가슴앓이 새처럼…"

남성그룹 SG워너비가 부른 '비익조'라는 제목의 노래에서도 비익조를 눈이 하나인 동물로 보고 있다.

홍콩에서 제작된 세계적인 영화시리즈 '천장지구'는 당나라 시인 백낙천 선생이 쓴 '장한가'(長恨歌)라는 시집에 나오는 글귀다. 이 시에서도 비익조가 나온다.

이쯤 되면 비익조라는 동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진다. 그러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비익조의 원형이 나온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사실 비익조는 극락세계 서방 아미타불 부처님 현전에 사는 새이다. 이러한 비익조가 1648년 순조 26년 순천 송광사에서 만든 〈불설아미타경〉에 나온다.

〈불설아미타경〉의 편집 형식은 만화책처럼 한 페이지를 상하로 나누어 위쪽은 도판 변상도로, 아래쪽은 〈아미타경〉의 원문으로 구성했다. 이 〈불설아미타경〉은 불교를 모르고 한문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보고 호기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판본형태다. 이 경전에서 비익조는 분명히 눈이 2개인 정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대구 팔공산 동화사(桐華寺)에는 염불암이라는 산내 암자가 있다. 1841년 염불암에서 지금은 동화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아미타구품화생도'라는 탱화가 제작됐다.

이 탱화는 아미타불이 있는 극락세계의 연지(蓮池)에서 구품의 단계에 따라 화생하는 천인중생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탱화 상단에는 관음세지양대보살과 함께 아미타불이 좌정하고 있다. 아미타불의 머리 좌·우에는 공작새와 비익조가 공중을 나르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비익조 역시 두 눈을 각각 아름답게 뜨고 극락세계에 화생(化生)하는 천인(天人)들을 바라다보고 있다.

탱화의 비익조를 보면 서로 지극히 사랑했던 두 사람이 내생에 태어나서도 함께 살기를 꿈꿔 몸을 불편한 요철처럼 붙여 환생해 함께 사는 존재처럼 여겨진다.

어찌했든 간에, 비익조는 지극한 사랑이나 우정을 몸으로 대변하는 너무나 낭만적인, 세대를 초월한 사랑의 상징이다. 비익조가 왜 극락세계에서만 살아 존재하는가는 지금도 의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극락세계가 되면, 비익조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 〈아미타경〉에 나오는 전설의 새
> 백낙천의 '장한가' 등에도 보여

백낙천 선생의 '장한가'는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극화해서 쓴 시이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절절한 아름다움 때문에 자주 읽곤 한다. 오늘은 그 마지막 연(聯)을 읊으며 글을 맺고자 한다.

七月七日長生殿(칠월칠석장생전) 어느 해 칠월칠석 장생전에서/

夜半無人私語時(야반무인사어시)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나눈 우리들의 은밀한 이야기/

在天願作比翼鳥(재천원작비익조) 내생에 천상에 태어난다면 비익조가 되고/

在地願爲連理枝(재지원위연리지) 땅에 태어나면 연리지가 되자 했네/

天長地久有時盡(천장지구유시진) 하늘은 멀고, 땅은 오래도 마침내 다 무너질 날이 있을지언정/

此恨綿綿無絶期(차한면면무절기) 우리의 못다한 이 한은 면면이 이어져 다할 날이 없으리라'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71** 부처님오신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 오셔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를 알아보시고, 길 위에 있는 길 알아보신 부처님. 우리 모두가 당신과 같다고 하셨으나 2천년이 넘도록 부처님처럼 사는 이를 볼 수가 없다. 그 많은 경전을 찍고 그 많은 도량을 지었어도 세상은 아직도 어수선하기만 하다. 조석으로 종을 치고 북을 울려도 지옥은 늘 지옥이다.

절마다, 길마다 연등이 걸리기 시작했다. 부처님오신날이 또 다가온다. 어느 해 이맘때 수덕사 마당을 걸었던 적이 있다. 절 마당에 걸린 연등이 봄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짙어 가고 700년 묵은 법당 안에는 행자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도 부처님 다녀가셔서 이 세상이 이만하지 싶었다. 부처님 그리운 이 시절, 오늘도 절 마당에 연등을 매달고 다시 한 번 서원한다. 부처님처럼 살 수 있기를.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⑧ 조선 벽송지엄 선사의 〈증옥륜선덕(贈玉崙禪德)〉**

닿는 곳마다 모두 공이다

雪髮春風面 (설발춘풍면)
逍遙山市中 (소요산시중)
無窮聲與色 (무궁성여색)
觸處自空空 (촉처자공공)

흰 머리 봄바람의 얼굴로
산중과 시장에서 자유로이 노니네.
다함없는 소리와 색
닿는 곳 마다 절로 공할 뿐이구나.

조선 벽송지엄(碧松智嚴:1464~1534) 스님은 전장에서 남다른 공을 세운 후 대장부로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헛된 명예에 매달리는 자신을 탄식하고 나서 출가했다. 이후 〈대혜어록(大慧語錄)〉 가운데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狗子無佛性]"는 것에 의심을 두어 깨쳤다.

스님은 한 끼 식사와 한 벌 누더기로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살았으며 온갖 것이 여래의 실상으로서 참과 거짓, 이름이나 모습 등을 끊어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일미선(一味禪)이라 했다.

이 시는 선의 이치에 깊이 통달하고 그 덕이 뭇 대중에게 미치는 선덕인 옥륜 스님의 수행의 경지를 읊은 것이기도 하겠고 지엄 스님 자신이 체득한 법의 실상을 옥륜 스님에게 드러내 보여 준 것이기도 하겠다. 스님은 감각기관과 대상이 다 실체 없는 공한 법의 실상을 비유와 법으로써 읊었다. 1구는 늙음을 눈같이 흰 머리로, 생동하는 젊음은 봄바람 같은 얼굴에 비유해 색으로써 시간을 보여 주었다. 2구는 산중으로 표현되는 고요함과 시장으로 비유되는 시끄러움을 통해 공간을 통해 소리를 드러내었다. 3구에서는 앞의 비유를 성색으로, 마지막 구는 법의 실체인 공을 드러냈다. 늙음과 젊음,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대치되는 시·공간에서 스님은 자유롭게 노닌다. 닿는 곳마다 모두 절로 공이기 때문이다. "자공공(自空空)"을 통해 소요하는 것이 바로 일미선(一味禪) 임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부처님이 설하신 오온과 12처가 공·무상·무아임을 여실지견 한다면 우리도 바쁜 일상에서 경계에 반연하지 않고 소요 자재할 수 있을 것이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을 건너는 여린 풀빛의 이 봄에 말이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디지인 특허 :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新 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신제품 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제품문의 :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내 앞에 닥친 거 다 그냥 한마음에다 흡수시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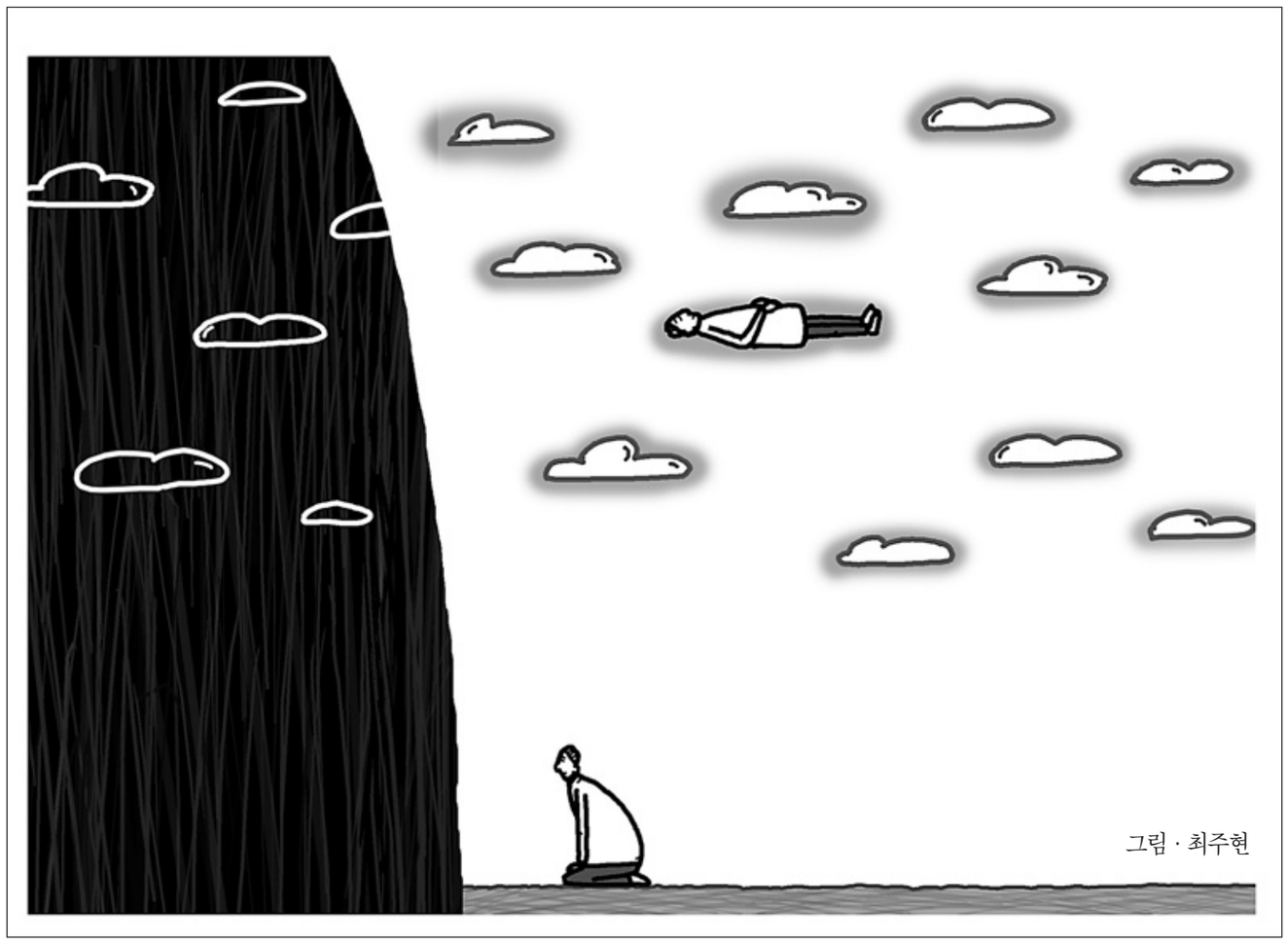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 스님, 감사합니다. 저의 어설픈 질문이 스님의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을까 송구스럽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스님께서 저에게 호두 한 알을 건네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환희심에 차서 한시도 그 호두를 제 손에서, 그리고 제 주머니 속에서 놓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기를 한 2년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 호두도 제 손때가 묻어서 보기 좋게 윤도 나고 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문득 진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그 호두를 깨어서 그 속을 맛있게 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문도 모르게 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웬걸, 거기에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뭐라 할 수 없는 눈물이 또 솟았습니다. 실컷 울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 스님은 어디에든 다 계시구나. 또 무엇이든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풀 한 포기, 바람 한 점에도 평등공법(平等空法)으로 어루만져 주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나왔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탓하시어 가르침을 주십시오.

큰스님 : 옛날에 내가, 공부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길을 걸어올 때 얘깁니다. 나의 모습으로 보였다고 했죠? 당신의 마음이 말입니다. 때로는 나로 보였다면 둘이 아닌 까닭에 나의 모습으로 보였다 뿐이지 당신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찰나에 하나로 되고, 또 당신이 당신으로 보였다면 나로 보였던 게 당신한테로 하나가 돼 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의 배움의 과정이지 내가 보인다고 나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디고 다 있구나!' 하는 그 생각도 옳지만 배우는 과정에서는 때로는 찰나에 자식과 아버지가 부(父)로 하나가 되고, 때로는 생각을 했다 하면 자(子)가 돼 버려, 그냥. 부와 자가 그냥 자가 돼 버려. 하나가 돼 버려. 그러니까 그 도리만 알면 자유자재권을 얻을 수 있어. 모든 게, 어느 거 하나 내 거 아님이 없다 하는 도리도 그 까닭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깨 먹은 건 잘 깨 먹었어. 언제고 모습이라는 건 없어지게 마련이거든. 깨지게 마련이야. 그리고 먹어치우게 마련이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라.' 그건 무슨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알지? 부처님이 대신 못 깨쳐 주니까 부처님을 한마음에다 흡수시켜라 이 소리거든. 먹어치워라 이러는 게 막말로 그냥 잡아먹으라는 게 아니라, 하하하…, (가슴을 짚으시며) '흡수시켜라' 이거야. 둘 아니게 흡수시켜라. 모든 거,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개구리든 뱀이든 하여간에 내 앞에 닥친 거면 다 그냥 흡수시켜라 이거야. 그래서 한 번 씽긋 웃으며 꽃 한 송이 든 거와 같이 이심전심으로 그냥 전부 통해라 이거야. 여북하면 부처님께서 사생자부가 되라고 뼈 한 무더기 놓고 가르치셨겠나!


그림 · 최주현

질문자3(남) : 가족을 데리고 이웃과 더불어 세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니 정말 은산철벽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요새 그걸 뚫어 보려고 송곳과 드릴,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만 여의치 않아 스님이 가르쳐 주신 다이아몬드 장진을 했습니다. 기필코 뚫을 것입니다. 뛰어넘을 것입니다.

큰스님 : 그렇게 해 보세요. 허허허…. 사실은 마음은 체가 없어서 철퇴도 없고, 또 꼬챙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있고, 강도 건널 수가 있고, 은산철벽도 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한생각을 하면 저 미국에도 통하고, 저 은하수에도 통하고 저 우주에도 통하는 데요, 뭐. 그냥 빛보다 더 빠르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갑니까?

질문자3(남) :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은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큰스님 : 죽고 사는 거를 다 그냥 거기다 탁 놔 버리고요. 겁내지 말아요. 자식이 어떻게 될까, 부인이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바가지를 긁을까? 뭐, 당신 속을 탁 보니까 그래요. '그런 것이 악마들처럼 들이덤비는 데는 내가 용빼는 재주 있나?' 이러지만 그런 거를 다 그냥 놓고, 그냥 다 놓고…. 그거를 들고선 붙잡고 쩔쩔매든, 다 놓고 그냥 뻔뻔하게 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외려 다 놓게 되면 심부름꾼이 생겨요.

질문자3(남) :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산 대사께서는 원력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인마살상용 칼, 활, 창, 철퇴 같은 것을 그렇게 보유하고 계셨는지요? 그것을 원력으로써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고 또 임박해서도 관법으로써 능히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계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 법형제님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바랍니다.

큰스님 : 아주 할 말 다 하시네. 하하하. 달마 대사께서는 활구공법이기 때문입니다, 활구공법! 그 뜻, 아시겠습니까?

질문자3(남) : 이해가 잘 안됩니다.

큰스님 : 예를 들어서, 살림하시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천차만별로 돌아가는데 그 천차만별의 기능이 다 한군데 들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 노릇 하시죠? 또 남편 노릇 하시죠? 아, 기능이 많이 들어 있네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를 다 가지고 있다. 삼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세계를 다 (주먹을 쥐어 보이시며) 일세계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삼계를 일심으로 가지고 있는데 너무 허공같이 커서 그 일심마저도 공했다. 이 공한 마음은 허공과 같다. 그러니 달마 대사께서도 자기 거 아님이 없고, 자기 아님이 없으니, 때로는 생각을 안 하면 부처로 하시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法身)으로 하시고, 또 움죽거렸다 하시면 보현신으로 하신다. 또 한생각으로, 보살의 이름으로 관찰해서 '너, 그 모든 거를, 법으로 다스릴 땐 다스리고, 건질 땐 건지고, 또 자비를 베풀 땐 베풀고 이렇게 해라.' 하고 마음을 내시면 그대로 보살들이 다, 보살의 이름으로써 응신(應身)이 돼서 응해 주셨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했다는 거죠.

달마 대사도 부처님께서도 일불(一佛)이지, 달마 대사가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 시대에 모습을 달리 해서 나왔을 뿐이지, 이 허공 안에 깨친 사람이 다 있다 하더라도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며) 일불입니다, 일불! 만불이 일불이요 일불이 만불이니, 만불을 제각기 보지 말라. 제각기 보지 않되 제각기 보라. 때에 따라서 상대로서 할 때는 둘만 둘 아니게 보는 거지만 넓게 본다면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죠. 그러니 모든 이치를 전자의 선조들께서는 "부처님 법이 어떤 것입니까?" 하면 "차 한 잔 마시고 가거라." 하셨죠.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어디서 왔습니다 하면 "아, 차 한 잔 먹고 가거라." 부처님 법을 오래

☞ 30면으로 계속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1-545-5060

회원을 모십니다

아래의 취지와 목적으로 함께하실
종단 종정, 총무원장 스님을 모십니다
〈군소종단 종정, 총무원장 스님〉

① 친목을 위한 모임
② 종단의 발전과 승가 양성의 연구
③ 학술연구 토론
④ 이웃나라 불교문화 연구
⑤ 우리불교 문제 연구 토론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138-12
전 화 : 041)621-5537

대불교 종단 발전 협의회(가칭)

불기 2555년(2011년) 신묘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특집광고 접수 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불법홍포를 위해 정진하시는 대덕 큰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현대불교신문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시고, 물심양면 도움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 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봉축 특집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함께하는 축하광고 지면을 마련하였사오니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정진의 자세로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 래

■ 제 목 : 2011년 봉축 축하 광고
■ 내 용 : 축하말씀, 단체 및 사찰명, 임원진, 사진, 주소, 연락처 등
■ 크 기 : 크기에 따라 선택 가능
■ 마감일 : 2011년 4월 29일(금요일)
■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및 지사지국

본 사	02)732-1522	광고영업부
부산지사	051)632-0064	이재진 지사장
대구지사	053)768-8008	손문철 지사장
광주전남	062)384-3009	양행선 지사장
전 북	063)910-8977	조동제 지사장
영주지국	054)634-3429	박영애 지사장
경남남부	055)746-9778	청운스님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고 크기별 샘플 보내드립니다.

현 대 불 교 신 문 사

죽고 사는 것도 겁내지 말고 탁 놔버리세요

☞ 29면에서 계속

배웠다는 사람한테도 "차 한 잔 먹고 가거라." 했는데, 부처님을 안다거나 모른다 하는 사람들에게다 그냥 '차 한 잔 먹고 가라.' 고 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질문자4(남) : 스님, 감사합니다. 광주지원에서 왔습니다. 스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주셔서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름에 국가정책상 방역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곤충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살생이 되는데 어떻게….

큰스님 : 두 가지 여건이 있어요. 자기 주인공 선장한테다 놓지 않고 그냥 살생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냥 살생이 되고, 여기다가 놓고 살생을 하면 살생이 아니라 그거는 탄생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을 시킬 때도 그 모습으로 재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벌레 곤충 만 마리를 한데로 모아서 탄생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을 시키는 거죠.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재생을 시키니까 옛날의 그 선사들, 선지식들께서 소 한 마리를 잡아도 그건 살생이 아니라 무명을 벗겨준 게 되기 때문에, 재생을 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자비다.

질문자4(남) : 잘 알았는데요. 불자들은 그렇게 할지언정 불자 아닌 분들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쩔까요?

큰스님 : 그러면 한생각 내 주는 거죠, 뭐. 모르든 알든 모두들 미생물에서부터 어떠한 곤충이든지 다 그냥 모아서 재생이 될 거라면 재생이 되게 하는데, 하나씩 개별적으로 안 되죠. 그것은 인간의 그 모두를 겸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질문자4(남) : 그리고 또 크게 나가자면 국가간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도 생기는데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살생을 하는 경우가 어차피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큰스님 : 그것도 걱정 말고 하세요. 허허허…. 때로는 이런 게 있죠. 자연적으로 집안이 좁아지면 집안을 늘일 수도 있지만, 식구가 많아져서 집안이 좁아지면 뿔뿔이 헤어져서 나가기도 하고, 또 체로 걸러서 없애기도 합니다. 어떠한 씨를 심었는데 싹이 배게 나와 있으면은 열매가 굵게 열리질 않으니까 요걸 뽑아 버리죠, 한데 붙은 거는. 그렇게 뽑아 버리는 것처럼 우주 제불세계에서 볼 때에 이게 전부 솎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굶어 죽는 나라도 있고, 때로는 물로 죽고 불로 죽고, 그냥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질문자4(남) : 제 욕심 같으면 나서 죽을 바에야 아예 안 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스님 : 때로는 그렇게도 생각되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걱정을 한다면 그렇게 그냥, 얼른 쉽게 말해서 총으로 팡 맞아서 죽는다면 아주 편리한 진화가 아닌가. 그냥 지근지근 아파서 죽는 거보다도 파딱파딱 죽으면 오히려 고생 없이, 재생이 돼서 나오더라도 아주 편리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겁내지 말아야 되죠. 그 사람네들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죽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예수가 부활하듯 그냥 또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살고 이거뿐이지, 누구나가 한 번은 다 죽어요. 죽는다는 거는 다 알고들 계시죠? 그런데요, 뭐! 그 사람네들만 죽고 나는 안 죽는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죽어요. 그런데 죽는 것은 살 양으로 죽는다, 이런 게 있죠. 살기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거를 겁내지 마세요. 그것도 자연의 이치니까요.

> 진짜로 주인공이라는 그 속에서는,
> 그 불성 속에서는 천차만별로 화해서
> 나투어서 신장도 돼 주고 보디가드도 돼 주고,
> 해결사도 돼 주고 관세음보살도 돼 주고,
> 다 돼 준다는 거를 믿으세요.

질문자5(남) :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중에 가진 몇 가지 의문점과 함께,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받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스키를 타러 무주 덕유산을 갔었습니다. 가서 스키를 차에 실어 놓고 주차장에 차를 넣고 잠깐 스키장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제 차는 물리적으로 헤드라이트가 켜지지 않게 돼 있는데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아, 이거 산에 올라가지 말라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이 일어났었습니다. 일어났는데 '그래, 그냥 가 보자.' 하고서 또 끌고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스키를 타는데, 제 스틱이 두 짝이 있는데 스틱이 몸에 잘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아서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바퀴 돌고 와서 자리에 가 보니까 스틱 두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것이요. 그래서 누가 놓고 갔나 둘레를 아무리 봐도 갖다 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잘 모르겠지만 고맙게 받겠다.' 하고서 스키를 잘 탔습니다. 타고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차에 불이 켜진 부분이 의문이 났고요. 그 다음에 새로 얻은 물건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배웠어야 되는 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 나같으면 의심할 게 하나도 없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말입니다, 좀 넓게, 좋도록 생각을 하세요. 헤드라이트가 켜졌으면 '아, 이건 밝혀 준다고 잘 갔다오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것을 '가지 말라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왜, 켜졌는데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잘 돌아가는 쪽으로, 좋도록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 물건이 생긴 것도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땐 이상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니까 내 졸병들이 갖다 놓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허허허….

언젠가 그렇게 내가 얘기했죠. 여기 처음 오던 해에 김장을 해야 할 텐데 그릇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릇이 없으니까 뭐, 배추도 절일 수도 없고 그런데, '배추는 절여야 할 텐데 어떡해? 그릇이 있어야 할 텐데….'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나가니까 그릇이 와서 차곡차곡 쟁여져 있어요. 누구나가 그 도리를 알 수 있는데도 부처님은 그것을 꼭 금하셨거든요. 아, 그런 걸 하게 하면 은행에 돈이 하나도 남아나는 게 없게요? 하하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모습을 자꾸 없애고 보이지 않게 하지 마라 이거야. 현재에 사람들이 살면서 이러하다는 걸 근본적으로 가르쳐야지 요술쟁이로 가르치면 못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부처님께서도 아예 금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 몸뚱이를 그냥 그대로 누워서 보여 주셨죠. 그러니까 급할 때 그런 게 생기는 걸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주인공이 다 그렇게 시켜서 그냥 그렇게 됐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옛날에도 그런 예가 있죠. 어떤 사람이 빨치산으로 갇혀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나올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예를 들어서 당신 같으면 당신의 원자 속에서 입자를 내보내서 그냥 딴 사람을 데려오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을 따 주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현실로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중간의 역할을 주인공 자리에서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름만 부르는 사람 앞에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로 주인공이라는 그 속에서는, 그 불성 속에서는 천차만별로 화해서 나투어서 신장도 돼 주고, 보디가드도 돼 주고, 해결사도 돼 주고, 관세음보살도 돼 주고, 지장도 돼 주고, 문수도 돼 주고, 보현도 돼 주고, 해신도 돼 주고, 산신도 돼 주고 다 돼 준다는 거를 믿으세요. 믿고 해야 돼요.

질문자5(남) : 큰스님께 병고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상당히 좀 심했었는데 '모든 것을 다 거기서 하니까…. 뭐, 끌고 가든지 병원을 데리고 가든지 하여간 알아서 해라.' 하고서 병원을 안 가고 그냥 코푸시럽을 사서 먹고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눈이 갑자기 막 아프기 시작해서 그냥 또 밀고 나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병원에 가 보셔야지 안 가 보시면 됩니까?" 하고 자꾸 얘기를 하기에 "아, 그래!" 하고 병원에를 한 번 갔어요. 그랬더니, 눈에 뭐가 박혔다 그러면서 여러 개를 뽑아내더라고요, 눈에서. 그렇게 두 번을 겪으면서 제 생각이 물론 같이 한자리지만 무의 세계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바깥의 물질적인 것도 같이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스님 : 아휴, 참 내! 생각을 말이에요, 병원엘 가든지 약국엘 가든지 자기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자기가 있으니까 아픈 것도 있는 거지 자기가 없으면 아픈 것도 없죠. 그러니까 병원엘 가도 자기 주인공 그 자체, 자기 영혼의 근본이 거길 가게 하는 거죠.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가요. 허허허…. 그래서 남의 손을 빌려요. 내 손으로 할 거라면 내 손으로 하고 저 손을 빌려야 될 거라면 저 손을 빌리고, 이게 마음대로 자유자재권을 거기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계 받을 때 '술 먹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죠? 그런 걸 나는 중간에다 놓고, '술을 먹되 남을 괴롭히지 말고 망주로 먹지 마라.' 이랬죠. 하여튼 뭐든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고, 그러니까 뭐든지 나한테 맞게 먹으면 탈이 하나도 안 나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요, 거짓말하지 말란다고 그냥 형제지간이나 또는 친구지간이나, 말을 좋게 해 줘야 이쪽하고 의리가 나빠지지 않는데, 거짓말 안 한다고 그냥 곧이곧대로, 이쪽에서 욕했다고 그대로 얘기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되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융통성이거든요, 융통성.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을 했어도 거짓말이 아니 되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해라.' 이럴 수도 없고, 이게 엉거주춤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짓말 해도 아니 되고 아니 해도 아니 되는 그 가운데서 네가 알아서 융통성 있고 지혜롭게 해 나가라. 이게 그대로 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융통성 있게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아, 내 한마음이 저기까지 미치는구나! 보이지 않는 한마음이 찰나에 들고 나면서 남의 손을 빌리게 해 주는구나! 그리고 겉으로는 내 주인공의 손을, 주인공이 이렇게 남의 손을 빌리게 해 줬으니 그 수고한 걸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 건 여기서 그렇게 만들어 줬으니 감사하고….' 이런 거죠. 매사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회자 : 오늘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큰스님 : 다 됐습니까?

사회자 : 예.

큰스님 : 그저 길었든 짧았든 한순간의 일입니다. 한순간의 일이에요. 우리가 한 시간이 됐든 한 시간이 넘었든 연방 과거로 돌아가면서 연방 미래로 오면서 연방 현실로 그냥 그대로, 그냥 초지(初地)에 끝난 거죠. 허허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도반으로서 배우게 돼서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97년 4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www.buddhashopping.com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051) 515-8888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요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농 협:121068-56-042256[예금주:강태규]
◆우체국:612416-02-031008[예금주:강태규]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바림칼라등 30cm
연화만월등 (흰색,분홍,빨강,파랑,초록)
비단접등 10.5cm 12cm
청사초롱
전통북등색상▶ 빨강, 파랑, 초록 흰색, 분홍, 노랑
공단등
전통북등
바림등

• 공단등(6cm) @2,700원(100개이상)
• 공단등(8cm) @3,300원(96개이상)
• 공단등(10.5cm) @5,500원(24개이상)
• 공단등(13cm) @12,000원(12개이상)
• 공단등(20cm) @35,000원(4개이상)
• 비닐만월등(특) 170,000원(100개)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1Box)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1Box)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1Box)
• 전 통 북 등 (50개) 150,000원(1Box)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1Box)
• 비단접등(10.5cm,12cm) 340,000원(100개)

• 바림등(6cm) @2,700원(100개이상)
• 바림등(8cm) @3,300원(96개이상)
• 바림등(10.5cm) @5,500원(24개이상)
• 바림등(13cm) @12,000원(12개이상)
• 바림등(20cm) @35,000원(4개이상)
• 칼라바림등(30cm) / 칼라공단등(30cm)

방수전선간격(50구)
22cm / 25cm / 30cm / 50cm
1m / 2m ※기타주문생산

연잎(일반) 5,000원(1묶음)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전구(5W/8W) 45,000원 [국산] 1BOX: 100개 제조원: 동진전구 안전인증제품
연등속지백색 1묶음 6cm 3,500원 / 8cm 4,000원 10.5cm 4,500원 / 12cm 6,000원 ※1묶음당 100개를 만들 수 있음
집게부착PVC등표 @20,000원 (100개) 크기: 8.5×21c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기반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삽!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권력의 2중대 '문화재위원회'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 연구소장

우리나라의 문화재위원회는 특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있다.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각종 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지만 정부 자문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예외 없이 문화재청 정책과 행정집행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문화재위원에 선정되는 것은 문화재계에서 최고수준의 명예를 달성하기 때문에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화재위원에 선정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실력 및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가장 많은 행태가 정치권과 권력층에 줄 대기가 있으며, 한국 학계의 병폐인 학맥의 입김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렇게 선임된 문화재위원이 역사와 문화재의 가치를 공명정대하게 평가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금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기존 문화재위원회는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문화재관련 학설이나 분석분야에서 문화재전문가들이 오히려 자신의 학설만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학맥에 연결되어 있는 후학 위원들은 비판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만 하며, 다른 학파는 무시하기에 이른다.

특히 정치권력이 교체되면서 문화재의 전문성이 전무한 인사를 문화재위원회에 선임하기도 했다. 이 점은 참여정부 때도 있었는데, 정치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그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올해 4월 25일에 새로운 문화재위원이 선임된다. 문화재청은 400군데 기관에 위원 후보를 추천하라고 했단다. 그러나 문화재 정책에 비판적인 지적을 하는 시민단체나 연구소에는 추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결국 생색내기 추천을 받겠다는 것이다. 2009년에도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했거나 시민단체와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위원에 선임되지 못했다. 2009년의 경우 일부 문화재분과는 정치권력과 밀접한 교수 세 네 명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위원을 선정했다는 사실이 추후에 들리기 시작했다. 한 교수는 권력의 지시에 의해 문화재위원을 선임했고, 또 다른 교수는 자신의 학맥과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자신에게 반대되는 논리를 전개한 학파와 전문가를 위원에서 빼버렸다.

또, 다른 행태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면서 문화재에 대해서 경험과 지식이 없는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인사를 선임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다. 즉 문화재보호법 제8조 2항의 3을 보면 인류학 · 사회학 · 건축 · 도시계획 · 관광 · 환경 · 법률 · 종교 · 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규정돼 있지만, 2009년에 선임된 언론 · 법조 · 종교 · 경제계 등에서 선임된 인사들이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나치게 공무원 비율이 높았다는 문제도 있다. 즉 문화재청의 국장과 소속 기관장이 문화재위원에 있었으며 정부기관인 국립박물관 임원들 다수가 문화재위원들로 포진해 있다.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이 문화재 보존을 이유로 정부의 개발사업에 반대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며, 문화재위원회는 국립박물관의 "지방박물관장 회의 또는 부장회의"는 아니다.

또한 문화재청 공무원과 업체와 연결된 인사는 제외하겠다고 해놓고는 문화재청 출신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특정대학 출신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다 보니 특정 학맥만의 주장이 득세했다. 또한 현장을 모르면서 페이퍼학문만 정통이라 여기는 특정대학 출신들이 우리나라 문화재계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한국은 전문가의 나라이다. 아니 전문가 독재가 판을 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학문이나 이론의 진정성보다 당장의 화려한 꽃과 열매만을 추구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최광식호 아니 이명박호 제2기 문화재위원들의 선임 과정과 결과를 살아있는 두 눈과 심장으로 주시하고 있다.

논산 육군훈련소 군법당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후원계좌

제일은행 325-20-221949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국민은행 477401-01-179603(예금주:군종특별교구) ARS 060-700-0108 (전화 한 통에 5000원)

사부대중 칼럼

노장스님의 변덕



이영근
미디어84000 대표

거의 25년쯤 전의 기억으로 대구 모 사찰에서의 일이다. 서울 S여대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겨울수련회를 위해 주지스님을 찾아뵙고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주지스님은 침구를 반드시 지참하고 온다는 조건을 달아 수락하셨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혈기왕성한 학생들은 '예' 하고 스님의 조건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고는 막상 예정된 날짜에 절을 찾았을 때 제대로 침구를 갖춘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 스님은 벼락같이 화를 내며 대중스님들에게 아무도 아이들에게 이부자리를 내주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

그런데 제대로 된 사단은 그 이튿날 났다. 구들장이 두꺼워 한 이틀은 연신 장작을 때대야 온기가 비치는 대중방에서 말만한 처녀들이 오들오들 떨며 하룻밤을 보낸 것을 안 주지스님은 이번에는 대중스님들을 모아놓고 크게 나무라셨다.

"이놈들아, 네놈들이 사람이냐? 내가 이부자리를 내주지 말라고 했어도 알아서 내줬어야지, 네놈들은 따뜻하게 자면서 재들 추울 줄 몰랐단 말이냐?"

사실 그 절에서는 누가 와서 묵고 가든 늘 새로 빤 홑청을 씌운 이부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몇 안 되는 대중스님들의 고역을 염려해서 침구를 가져오라고 하셨던 것이다. 아무튼 그날 대중스님들은 주지스님으로부터 단단히 혼 줄이 났다고 한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노장스님들을 시봉하는 젊은 스님들 중에는 모시는 스님에 대한 불만들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다.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같이 생활하면서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잔소리를 멈추지 않는 것이 노스님들의 특징이어서, 심지어는 상을 차리면서 숟가락과 젓가락의 위치만 바뀌어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프란시스 H. 쿡이라는 미국학자가 쓴 〈Hwa Yen Buddhism(화엄불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일본 불교계에서의 이런 일화가 나온다.

사미스님이 설거지를 하다가 얼핏 젓가락 하나를 개수통에 흘려버렸는데, 나중에 수채에서 그것을 발견한 노스님이 사미스님을 불러 물었다.

"이것이 쓸 수 있는 것이냐? 쓸 수 없는 것이냐?"

그리고는 '네가 이 젓가락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나 진배없다' 식의 꾸중을 서너 시간에 걸쳐 들었는데, 그때 그 사미스님의 나이가 일고여덟 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상좌 길들이기에 인정사정없는 것은 일본 스님이나 우리나라 스님이나 매한가지였던 것 같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제자들에게는 모질디 모진 노스님들이 신도들에게는 인자하고 자상하기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쯤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다.

노스님을 잘 모시는 보살님들 가운데는 '노스님이 마치 친정아버지 같아서' 라는 이유를 대는 이가 제법 많다. 말하자면 오랜 수행의 결과가 덕화(德化)로서 자연스레 신도들에게 발현된 것인데, 실제 노스님의 지청구에 숨이 막혀 '저 노장 언제 뒈지나' 하면서 마지못해 시봉하던 젊은 스님들도 그렇게 10년, 20년을 같이 살다보면 어느새 스승님 못지않은 덕을 갖추게 되는 것이 우리 불가(佛家)의 자연스런 문화였다. 소중함에 대해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먼저 이 이야기들을 떠올린 것은 우리 불교가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 많은 부분 세속화돼가고 있음에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돈을 잔뜩 들여 절을 아무리 크게 짓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랴. 그 안에서 빚어지는 인간관계가 여법(如法)하지 못하다면.

요즘 학생들이 연속 자살을 하면서 KAIST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유는 다른 것 같지만 최근에는 교수도 한 사람 자살을 선택했다고 해서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그런데 이유를 따져보니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데는 일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안내도 되던 등록금을 내게 하고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강의를 영어로만 진행하게 한 현 총장의 학내 개혁이 원인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승자독식으로 사회양분화가 심해지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학생마저 무한경쟁으로 내몬 당사자는 교육자라 할 수 없다. 그저 사육사일 뿐이다.

社說

실질적 지원 따라야 불교학이 바로 선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이 주요 추진과제로 21세기 통합대장경 아카이브 사업을 내놓았다. 대장경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불교기록문화유산을 집대성하는 가히 21세기판 경전 결집이라 불릴만한 대작불사이다.

동국대는 삼보정재로 건립된 종립대학으로 건학 100년을 훌쩍 넘겼음에도 그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명문사학으로서의 위상을 다하지 못해왔다. 당장 불교학 분야가 그랬다. 혜화전문학교 시절부터 동국대로 바뀐 즈음이 한국불교학이 태동하던 여명기였다면 지금의 동국대 불교학은 침체기라 불릴 만하다.

이는 저조한 외부 프로젝트 수주로도 드러난다.

인재관리도 엉망이었다. 불교학 박사학위자 30여 명 이상이 중음신처럼 불안한 상태에서 위태로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인환 스님은 4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동국대가 불교학 중심이 되겠다는데, 이는 현재 동국대가 불교학의 중심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스님은 "동국대는 과거부터 시작해 지금도 불교학의 중심에 있다"며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에 비둘기호, 새마을호가 다니다가 지금은 KTX · KTX2가 다니지 않느냐"는 비유를 들었다. 경부선은 동국대가 불교학의 중심인 기정 사실이며, 새마을, KTX 등은 시대에 맞는 사업계획 등을 뜻한다.

인환 스님의 비유가 재치 있는 기관장의 위기모면용 멘트가 아니라 촌철살인하는 선사다운 현답이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동국대 김희옥 총장 취임과 제2대 불교학술원장 인환 스님에게 불교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4대강 유역에 있을 문화재도 살펴야

낙단보 마애불을 둘러싼 한바탕 소동이 문화재청의 불교계 요구 수용으로 일단락됐다. 문화재청 등에 '사법처리' 까지 운운하던 조계종은 낙단보에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4대강 개발 사업 구간에서 제2 제3의 마애불이 나올 수 있지 않은가? 낙단보에서 문화재가 발견됐다면 다른 사업 구간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낙단보 마애불 천공훼손을 경험한 불교계라면 4대강 사업 전역의 문화재 발굴 · 보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계종이 4대강 유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성보에는 눈을 감은 채 낙단보 마애불에만 집착하는 것은 근시안적 태도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진리(문화재)를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현실과 타협한 것은 출가자다운 자세가 아니다.

문화재청이 불교계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해서 낙단보 마애불이 보존되지 않는다. CCTV를 설치해도 4대강 개발에 대한 정부 의지를 꺾지 못하면 마애불은 언제고 훼손될 위험에 처해있다. 낙단보 마애불이 여기서 더 훼손된다면 이는 성보문화재 훼손에 그치지 않는다. 그로 인한 조계종과 문화재청간 반목, 불자 · 국민과 국가기관과의 불신은 각각의 마음에서 분노로 불종자를 끊어 낼 더 큰 재앙 아닌가. 하물며 제2 제3의 낙단보 마애불이 나중에라도 발견된다면 그 다음은 어찌할텐가. 조계종의 용단을 기다린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과 유황오리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그의 저서 『구세심방』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상태를 말합니다.

1)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복부비만의 가장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將(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紅癍(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지적체) : 병덩어리를 없애줌.	九腹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 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우수발명 기업선정 (2011년 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SD)제조업체등록, 공정거래등록 /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 특허청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낀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사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금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은셔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저림을 치료하러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위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을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남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3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휴가때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권유를 하였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치시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드셔보시길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준다는 마음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있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줄것을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감도 잘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 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이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 되어 정말 좋아 하셔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잔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여 간편한 포장의 참옻잔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즉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옻가네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40-70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